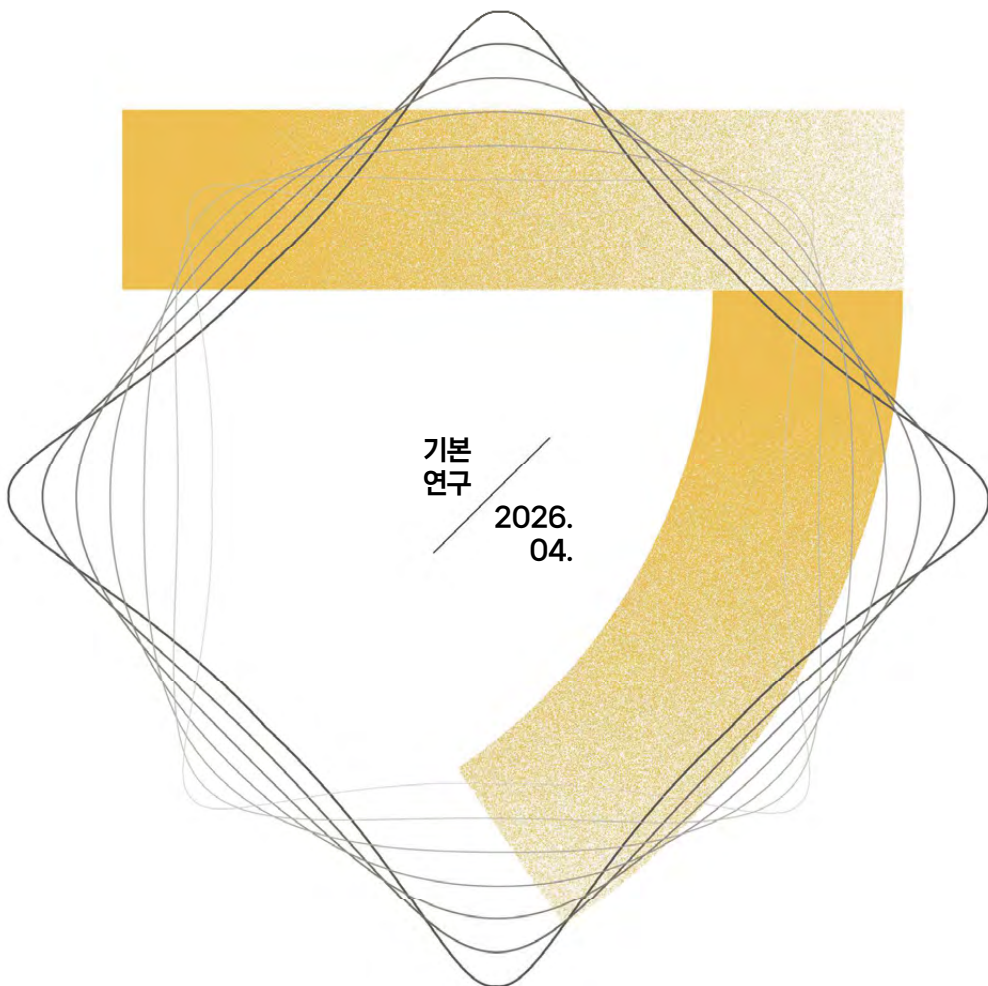


● ● ● 기본연구 202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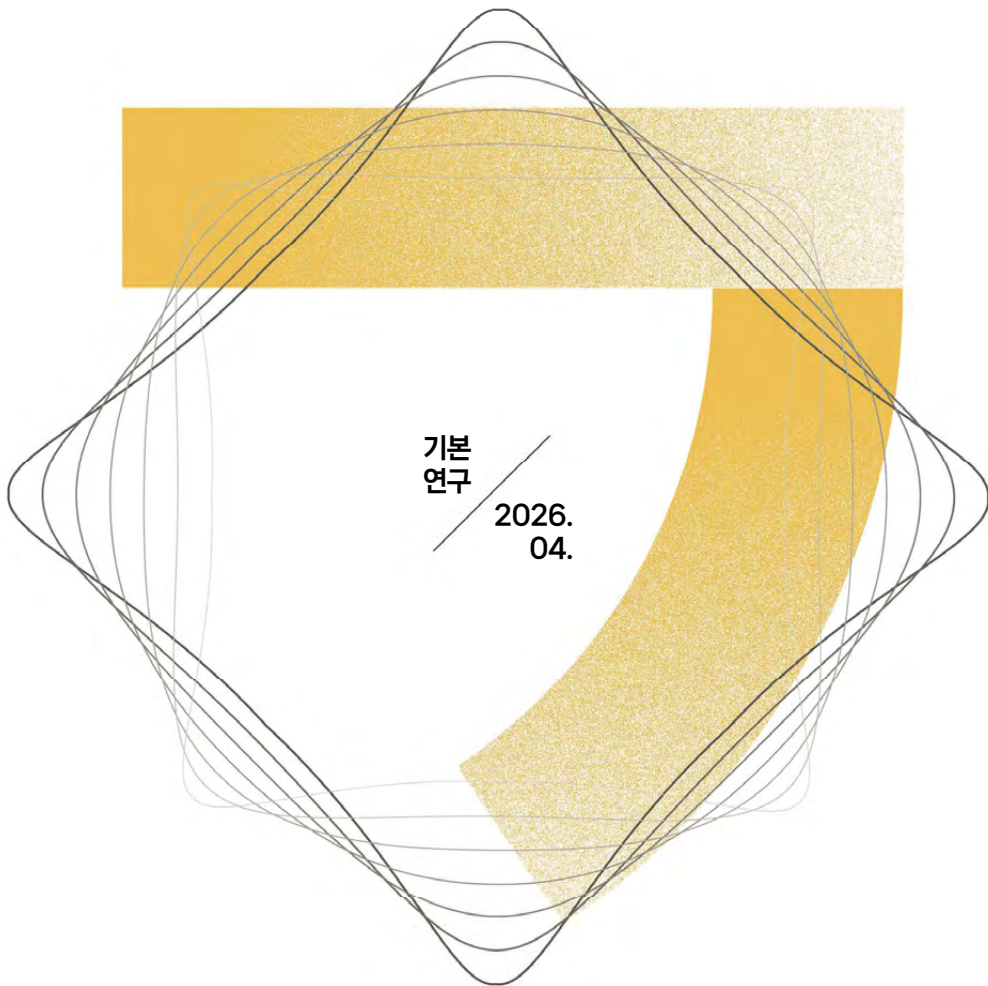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연구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연정·강길주·장유진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연구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연정·강길주·장유진



연구진 profile

이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	---

강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	---

장유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지원• 경제산업연구부 전문연구원
-----	--

■ 연구 목적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문제를 사업장 내부 작업환경과 산업단지 외부 기반환경이 결합된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분석은 김해시의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현황, 관련 정책 환경 검토,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 인식 조사, 근로환경 영향 요인 분석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이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의 우선 영역과 정책 대상을 식별하고자 하였음

■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핵심 진단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문제는 사업장 내부 작업환경뿐 아니라 산업단지 외부의 주차, 보행, 접근성,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과 결합된 구조적 과제임

○ 정책 우선 적용 대상

공간 측면에서는 농공단지와 노후·취약 산업단지가, 집단 측면에서는 여성·중장년층·농공단지 근로자가 우선 고려 대상으로, 각 대상의 취약성과 수요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중점 추진 전략

농공단지 생활기반 집중 패키지, 이동권·생활편의 중심 공공인프라 개선, 중소기업 공동복지·청년친화 리뉴얼, 김해형 통합 추진체계 구축이 핵심 전략임

○ 단계별 추진 구상

단기에는 생활기반 개선과 실행기반 구축, 중기에는 공동복지·청년친화 확산, 장기에는 김해형 산업단지 생활·근무 통합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함

○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개별 기업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단위의 생활·근무 통합정책으로 전환하고, 취약성 보완과 체감효과 확산을 함께 고려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함의

-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은 개별 시설 보수 차원을 넘어 산업단지를 매개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실현하는 생활·근무 통합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II	김해시 중소기업·산업단지 현황 및 정책환경	7
	1. 김해시 중소기업 현황	7
	2. 김해시 산업단지 조성 현황	26
	3. 근로환경 관련 정책환경 및 개선 필요성	42
III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인식 조사 결과 분석	48
	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48
	2. 사업장 근로환경 인식 및 개선 수요 분석	53
	3. 산업단지 환경개선 인식 및 수요 분석	66
IV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영향 요인 분석	79
	1. 분석 개요	79
	2. 응답자 특성별 근로환경 영향 요인 분석	83
	3. 산업단지 특성별 영향 요인 분석	88
V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94
	1. 분석 결과 종합 및 우선순위 진단	94
	2.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04
VI	결론 및 제언	115
	참고문헌	118
	부 록	120

I 서론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과 생산, 고용의 핵심 기반이며, 지역경제의 성장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의해 크게 좌우됨
 - 2023년 기준 전국 중소기업은 829만 8,91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함. 종사자 수는 1,911만 7,649명으로 전체의 80.4%, 매출액은 3,301조 2,545억 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함¹⁾(중소벤처기업부, 2025)
 - 이 중 2023년 기준 제조업 중소기업 수는 613,696개로, 2022년 630,366개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2022년 341만 1,161명 대비 0.5% 감소한 339만 4,339명임
 - 매출액은 2022년 834조 6,227억 원 대비 1.9% 감소한 818조 6,334억 원으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영 및 고용 여건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악화된 모습을 보임
- 한편, 경상남도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며, 제조업 고용 비중이 기업 수 비중보다 높아 제조업이 지역 고용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산업 부문임
 - 2023년 기준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은 49,268개로 전국의 5.9%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는 114만 2,819명으로 전국의 6.0%, 매출액은 188조 4,730억 원으로 전국의 5.7%를 차지함
 - 시도별·산업별 중소기업 기업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구조 전반에서 제조업 중심의 특성이 뚜렷함. 2023년 경남 전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은 5만 2,629개(10.7%)로 도매 및 소매업(11만 7,237개, 23.9%) 다음의 주요 업종으로 나타남

1)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분류 체계를 따름.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부록을 참조 바람

- 종사자 수 기준에서는 경남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중 제조업 종사자가 29.1%(33만 2,379명)를 차지하여 전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이는 제조업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이 곧 지역 중소기업 고용의 질과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한편 김해시는 중소기업과 산업단지가 집적된 경남의 대표적 산업도시로서, 산업활동과 고용이 개별 사업장 단위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라는 집적된 공간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음
- 「김해시 제조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김해시 제조업체 수는 10,086개, 근로자 수는 84,719명임. 기업체 대부분은 종업원 50인 이하 영세·중소 기업체로, 이들이 전체 제조업체의 98.0%(9,833개)를 차지함(김해시, 2024)
 - 또한 김해시의 주력산업은 금속, 기계, 자동차, 선박 관련 전통 제조업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음
 - 김해시 산업단지 기본 현황을 보면, 2025년 12월 기준으로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총 20개소이며, 이 중 일반산업단지 12개, 농공단지 8개이고, 20개 중 13개 산업단지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해당함(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25)
 - 이러한 특징은 김해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근로환경이 산업단지의 교통·주차·편의 인프라 부족 등과 결합할 때 복합적인 정책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산업단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공간인 동시에 근로자의 생활 기반 공간이기도 함
- 김해시처럼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공존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입지가 혼재된 구조에서는 산단별 격차가 근로환경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즉 산업단지의 노후화 수준, 도로 및 주차 여건,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환경, 편의시설, 환경관리 수준 등은 사업장 내부 근로환경과 결합되어 실제 체감 근로환경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근로환경은 노동자의 안전, 건강, 직무만족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및 인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김진하·황민영, 2019; 안향자·이상직, 2021; 광노학·김문준, 2016)
 - 김해시와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산업단지 집적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근로환경 개선이 산업재해 예방, 건강권 보장, 이직률 완화, 청년층 유입 확대,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문제는 복지, 노동, 산업, 도시기반 정책이 혼합된 종합적 정책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김해시 중소기업과 산업단지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국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과 제조업 구조, 산업단지 집적 특성, 관련 법령 및 제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둘째,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문제를 사업장 내부 환경과 산업단지 외부 기반 환경이 결합된 구조임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여 근로환경 저해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즉 작업공간, 휴게시설 등과 같은 사업장 내부 요소뿐 아니라 도로, 주차, 보행, 대중교통, 편의시설, 환경 관리와 같은 외부 요소를 함께 분석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문제의 실질적 구성 요인을 도출함
- 셋째, 김해시 산업단지 내 위치한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 인식조사와 관련 통계분석을 연계하여, 근로환경 개선의 우선 영역과 대상을 식별하고자 함
 -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및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방안 도출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인식 조사 결과와 관련 요인 변수를 결합한 통계분석을 통해 근로환경 개

선 정책대안의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김해시 실정에 부합하는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신규 정책 발굴과 사업 설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김해시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2025년 기준
 - 일부 자료는 공표 시차를 고려하여 2025년 이전 자료를 병행 활용함
- 공간적 범위: 김해시 관내 산업단지
 - 분석의 중심은 김해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나, 전국 및 경상남도 자료는 김해시의 상대적 위치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활용함
- 주요 연구 내용
 - 전국, 경상남도, 김해시의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현황 분석
 - 김해시 산업단지의 조성 특성, 노후도,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여건 분석
 -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 인식 및 근로환경 영향 요인 분석, 개선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선행 사례 분석
 -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환경 관련 문헌과 정책자료,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함
- 통계 및 행정자료 분석
 - 전국 및 경상남도, 김해시의 관련 중소기업, 산업단지 기본통계와 현황 자료를 활용함
- 실태조사 및 영향 요인 분석
 - 김해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환경 인식 조사와 산업단지 외부 변수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근로환경 만족도, 개선 수요, 영향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II 김해시 중소기업·산업단지 현황 및 정책환경

1 | 김해시 중소기업 현황

1) 전국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 현황

(1) 전국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과 매출액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3년 기준 전국 중소기업은 829만 8,91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함. 종사자 수는 1,911만 7,649명으로 전체의 80.4%, 매출액은 3,301조 2,545억 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함
 -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 수는 25만 6,189개, 종사자 수는 16만 1,355명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7조 7,746억 원 감소함

<표 2-1> 전국 중소기업 총괄현황

구분	2022년 (비중)	2023년 (비중)	증감 (증감률)
기업체 수	8,042,726개 (99.9%)	8,298,915개 (99.9%)	256,189개 (3.2%)
종사자 수	18,956,294명 (81.0%)	19,117,649명(80.4%)	161,355명 (0.9%)
매출액	33,090,291억 원 (44.2%)	33,012,545억 원(44.9%)	△77,746억 원 (△0.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표 2-2> 전국 기업 총괄현황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2023
기업체 수 (개)	전체	7,295,451	7,723,867	8,053,163	8,309,696
	중소기업	7,286,082	7,713,895	8,042,726	8,298,915
	비중(%)	99.9	99.9	99.9	99.9
종사자 수 (명)	전체	21,935,003	22,865,491	23,410,899	23,767,377
	중소기업	17,791,969	18,492,614	18,956,294	19,117,649
	비중(%)	81.1	80.9	81.0	80.4
매출액 (억 원)	전체	56,611,742	64,500,838	74,944,317	73,591,237
	중소기업	26,745,661	30,171,248	33,090,291	33,012,545
	비중(%)	47.2	46.8	44.2	44.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2020~2023년 전국 중소기업의 변화를 보면, 중소기업 수와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및 매출 비중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임
 - 중소기업 수는 2020년 728만 6,082개에서 2023년 829만 8,915개로 증가하였고,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 수준을 유지함
 -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1,779만 1,969명에서 1,911만 7,649명으로 늘어났으나, 전체 종사자 대비 비중은 81.1%에서 80.4%로 하락함

<표 2-3>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 현황

산업분류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증감률 (%)
전산업	8,042,726	100.0	8,298,915	100.0	256,189	3.2
A.농업, 임업 및 어업	110,914	1.4	117,127	1.4	6,213	5.6
B.광업	2,479	0.0	2,400	0.0	△79	△3.2
C.제조업	630,366	7.8	613,696	7.4	△16,670	△2.6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43,652	1.8	168,106	2.0	24,454	17.0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493	0.2	13,653	0.2	160	1.2
F.건설업	580,355	7.2	596,606	7.2	16,251	2.8
G.도매 및 소매업	2,097,327	26.1	2,198,812	26.5	101,485	4.8
H.운수 및 창고업	667,704	8.3	682,246	8.2	14,542	2.2
I.숙박 및 음식점업	884,473	11.0	893,896	10.8	9,423	1.1
J.정보통신업	193,509	2.4	217,148	2.6	23,639	12.2
K.금융 및 보험업	61,830	0.8	62,047	0.7	217	0.4
L.부동산업	1,223,606	15.2	1,232,980	14.9	9,374	0.8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0,814	3.9	333,778	4.0	22,964	7.4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5,362	2.3	193,660	2.3	8,298	4.5
P.교육 서비스업	272,184	3.4	286,086	3.4	13,902	5.1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4,628	1.1	86,855	1.0	2,227	2.6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1,055	2.0	164,779	2.0	3,724	2.3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8,975	5.2	435,040	5.2	16,065	3.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매출액은 2020년 2,674조 5,661억 원에서 2022년 3,309조 291억 원까지 확대된 뒤, 2023년 3,301조 2,545억 원으로 소폭 감소함. 이에 따라 전체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은 2020년 47.2%에서 2022년 44.2% 까지 하락한 후, 2023년 44.9%로 일부 회복됨
- 이는 중소기업의 외형적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및 매출 측면의 상대적 위상은 최근 다소 정체 또는 조정되었음을 시사함

○ 업종별 기업 수 분포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중심이나, 고용과 매출 측면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 종사자 현황

산업분류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종사자수 (명)	구성비 (%)	종사자수 (명)	구성비 (%)	종사자수 (명)	증감률 (%)
전산업	18,956,294	100.0	19,117,649	100.0	161,355	0.9
A.농업, 임업 및 어업	178,431	0.9	190,769	1.0	12,338	6.9
B.광업	10,691	0.1	10,361	0.1	△330	△3.1
C.제조업	3,411,161	18.0	3,394,339	17.8	△16,822	△0.5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50,900	0.8	175,345	0.9	24,445	16.2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6,428	0.5	98,834	0.5	2,406	2.5
F.건설업	1,920,233	10.1	1,906,864	10.0	△13,369	△0.7
G.도매 및 소매업	3,746,675	19.8	3,833,523	20.1	86,848	2.3
H.운수 및 창고업	1,152,970	6.1	1,100,059	5.8	△52,911	△4.6
I.숙박 및 음식점업	1,793,548	9.5	1,838,857	9.6	45,309	2.5
J.정보통신업	727,748	3.8	718,677	3.8	△9,071	△1.2
K.금융 및 보험업	149,269	0.8	140,804	0.7	△8,465	△5.7
L.부동산업	1,500,753	7.9	1,505,871	7.9	5,118	0.3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14,059	5.3	1,047,859	5.5	33,800	3.3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74,149	5.7	1,069,949	5.6	△4,200	△0.4
P.교육 서비스업	428,577	2.3	442,482	2.3	13,905	3.2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23,763	3.8	752,130	3.9	28,367	3.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0,025	1.4	263,387	1.4	3,362	1.3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16,914	3.3	627,539	3.3	10,625	1.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기업 수 기준 상위 업종은 도·소매업 219만 8,812개(26.5%), 부동산업 123만 2,980개(14.9%), 숙박·음식점업 89만 3,896개(10.8%) 순으로 나타남. 한편, 제조업은 61만 3,696개로 전체의 7.4% 수준임
- 반면 종사자 수 기준에서는 도·소매업 383만 3,523명(20.1%), 제조업 339만 4,339명(17.8%), 건설업 190만 6,864명(10.0%), 숙박·음식점업 183만 8,857명(9.6%) 순으로 나타남

<표 2-5>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현황

산업분류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매출액 (억 원)	구성비 (%)	매출액 (억 원)	구성비 (%)	매출액 (억 원)	증감률 (%)
전산업	33,090,291	100.0	33,012,545	100.0	△77,746	△0.2
A.농업, 임업 및 어업	318,937	1.0	320,926	1.0	1,989	0.6
B.광업	30,965	0.1	31,851	0.1	886	2.9
C.제조업	8,346,227	25.2	8,186,334	24.8	△159,893	△1.9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5,735	0.3	84,025	0.3	△1,710	△2.0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40,215	0.7	226,130	0.7	△14,085	△5.9
F.건설업	3,603,841	10.9	3,581,592	10.8	△22,249	△0.6
G.도매 및 소매업	11,204,716	33.9	11,054,856	33.5	△149,860	△1.3
H.운수 및 창고업	1,484,093	4.5	1,460,252	4.4	△23,841	△1.6
I.숙박 및 음식점업	1,648,632	5.0	1,792,633	5.4	144,001	8.7
J.정보통신업	931,930	2.8	959,586	2.9	27,656	3.0
K.금융 및 보험업	345,199	1.0	406,979	1.2	61,780	17.9
L.부동산업	1,195,860	3.6	1,069,131	3.2	△126,729	△10.6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67,137	3.5	1,188,206	3.6	21,069	1.8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61,290	2.3	803,777	2.4	42,487	5.6
P.교육 서비스업	267,341	0.8	292,361	0.9	25,020	9.4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5,792	2.6	910,590	2.8	44,798	5.2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0,571	0.7	250,752	0.8	20,181	8.8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1,812	1.1	392,564	1.2	30,752	8.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매출액 기준에서도 도·소매업 1,105조 4,856억 원(33.5%), 제조업 818조 6,334억 원(24.8%), 건설업 358조 1,592억 원(10.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전국 중소기업은 1인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영세한 기업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됨

- 2023년 기준 종사자 1인 중소기업은 644만 269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77.6%를 차지하며, 2~9인 기업은 162만 5,964개(19.6%), 10~99인 기업은 22만 2,703개(2.7%), 100~499인 기업은 9,461개(0.1%)로 나타남
- 2022년과 비교하면 1인 기업은 29만 672개 증가하여 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2~9인 기업은 3만 4,185개 감소하여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2-6> 종사자 규모별 중소기업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증감률 (%)
전체	8,042,726	100.0	8,298,915	100.0	256,189	3.2
1인	6,149,597	76.5	6,440,269	77.6	290,672	4.7
2~9인	1,660,149	20.6	1,625,964	19.6	△34,185	△2.1
10~99인	222,990	2.8	222,703	2.7	△287	△0.1
100~499인	9,432	0.1	9,461	0.1	29	0.3
500인 이상	558	0.0	518	0.0	△40	△7.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매출액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국 중소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의 저매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중간 매출 규모의 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2023년 기준 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은 448만 6,881개로 전체의 54.1%를 차지하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기업은 178만 8,115개(21.5%),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기업은 108만 4,562개(13.1%)로 나타남
-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5천만 원 이하 기업이 476만 5,581명으로 24.9%,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기업이 361만 4,522명으로 18.9%,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기업이 332만 6,221명으로 17.4%를 차지함

- 전국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저매출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자체 투자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근로환경 개선 관련 투자는 영세기업일수록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반면 고용은 저매출 기업뿐 아니라 중간 매출 규모 기업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어, 관련 정책이 영세기업 지원과 함께 실제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군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2-7> 매출액 규모별 중소기업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증감률 (%)
전체	8,042,726	100.0	8,298,915	100.0	256,189	3.2
5천만원 이하	4,350,699	54.1	4,486,881	54.1	136,182	3.1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1,030,207	12.8	1,084,562	13.1	54,355	5.3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731,067	21.5	1,788,115	21.5	57,048	3.3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414,802	5.2	420,753	5.1	5,951	1.4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	403,927	5.0	407,240	4.9	3,313	0.8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61,978	0.8	61,924	0.7	△54	△0.1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45,766	0.6	45,462	0.5	△304	△0.7
500억원초과	4,280	0.1	3,978	0.0	△302	△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표 2-8> 매출액 규모별 중소기업 종사자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종사자 수 (명)	구성비 (%)	종사자 수 (명)	구성비 (%)	종사자 수 (명)	증감률 (%)
전체	18,956,294	100.0	19,117,649	100.0	161,355	0.9
5천만원 이하	4,668,718	24.6	4,765,581	24.9	96,863	2.1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1,270,292	6.7	1,304,870	6.8	34,578	2.7
1억원초과 5억원이하	3,326,534	17.5	3,326,221	17.4	△313	△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663,777	8.8	1,660,299	8.7	△3,478	△0.2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	3,597,583	19.0	3,614,522	18.9	16,939	0.5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474,005	7.8	1,458,152	7.6	△15,853	△1.1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377,417	12.5	2,421,885	12.7	44,468	1.9
500억원초과	577,968	3.0	566,119	3.0	△11,849	△2.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2)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에서 전국 중소기업의 약 6% 내외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주요 지역임
 - 2023년 기준 경상남도 중소기업은 49만 268개로 전국의 5.9%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는 114만 2,819명으로 전국의 6.0%, 매출액은 188조 4,730억 원으로 전국의 5.7%를 차지함

<표 2-9>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증감률 (%)
전국	8,042,726	100.0	8,298,915	100.0	256,189	3.2
경남	482,366	6.0	490,268	5.9	7,902	1.6
수도권	4,206,779	52.3	4,362,179	52.6	155,400	3.7
비수도권	3,835,947	47.7	3,936,736	47.4	100,789	2.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표 2-10>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종사자 수 (명)	구성비 (%)	종사자 수 (명)	구성비 (%)	종사자 수 (명)	증감률 (%)
전국	18,956,294	100.0	19,117,649	100.0	161,355	0.9
경남	1,118,490	5.9	1,142,819	6.0	24,329	2.2
수도권	10,369,692	54.7	10,418,929	54.5	49,237	0.5
비수도권	8,586,602	45.3	8,698,720	45.5	112,118	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표 2-11>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매출액 (억 원)	구성비 (%)	매출액 (억 원)	구성비 (%)	매출액 (억 원)	증감률 (%)
전국	33,090,291	100.0	33,012,545	100.0	△77,746	△0.2
경남	1,832,198	5.5	1,884,730	5.7	52,532	2.9
수도권	19,359,665	58.5	19,134,211	58.0	△225,454	△1.2
비수도권	13,730,626	41.5	13,878,334	42.0	147,708	1.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2022년과 비교하면 경상남도 중소기업 수는 7,902개, 종사자 수는 24,329명, 매출액은 5조 2,53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기업 수 증가율은 다소 낮으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남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12> 경상남도 업종별 기업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산업분류	전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소기업	중기업		
전산업	490,644	484,429	5,839	490,268	376
A.농업, 임업 및 어업	19,986	19,956	26	19,982	4
B.광업	123	118	*	*	*
C.제조업	52,848	51,143	1,486	52,629	219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828	10,813	3	10,816	12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215	1,046	*	*	*
F.건설업	38,072	37,809	253	38,062	10
G.도매 및 소매업	117,269	115,781	1,456	117,237	32
H.운수 및 창고업	39,103	38,980	101	39,081	22
I.숙박 및 음식점업	70,620	70,127	490	70,617	3
J.정보통신업	3,930	3,889	34	3,923	7
K.금융 및 보험업	1,724	1,715	4	1,719	5
L.부동산업	51,959	51,788	136	51,924	35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953	11,809	139	11,948	5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904	10,721	173	10,894	10
P.교육 서비스업	18,028	17,959	*	*	*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68	3,491	*	*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504	8,471	28	8,499	5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110	28,813	*	*	*

주1)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임
 주2)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주3) 중소기업 외는 중소기업 범위 초과 기업으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②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③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④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등을 의미함
 주4)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업종별 기업 수 기준으로 보면, 경상남도 중소기업은 도·소매업 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이 뒤를 잇는 구조를 보임
 - 2023년 경남 중소기업의 산업별 기업 수는 도·소매업 11만 7,237개(23.9%)가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 7만 617개(14.4%), 제조업 5만 2,629개(10.7%), 부동산업 5만 1,924개(10.6%), 운수·창고업 3만 9,081개(8.0%), 건설업 3만 8,062개(7.8%) 순으로 나타남

<표 2-13> 경상남도 업종별 종사자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명)

산업분류	전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소기업	중기업		
전산업	1,265,515	922,590	220,229	1,142,819	122,696
A.농업, 임업 및 어업	28,922	28,064	758	28,822	100
B.광업	542	382	*	*	*
C.제조업	430,376	233,390	98,989	332,379	97,997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4,673	11,143	64	11,207	3,466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300	4,037	*	*	*
F.건설업	112,780	95,315	14,862	110,177	2,603
G.도매 및 소매업	192,122	170,557	18,403	188,960	3,162
H.운수 및 창고업	65,053	56,919	6,828	63,747	1,306
I.숙박 및 음식점업	123,523	116,066	7,288	123,354	169
J.정보통신업	10,860	7,465	2,847	10,312	548
K.금융 및 보험업	5,703	2,663	152	2,815	2,888
L.부동산업	64,272	56,551	3,400	59,951	4,321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275	29,991	9,248	39,239	1,036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266	24,942	21,274	46,216	4,050
P.교육 서비스업	24,946	23,754	*	*	*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9,161	13,782	*	*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803	11,839	1,720	13,559	244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938	35,730	*	*	*

주1)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임

주2)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주3) 중소기업 외는 중소기업 범위 초과 기업으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②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③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④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등을 의미함

주4)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앞서 제시한 전국 현황과 비교하면 경남은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비중이 7.4%인 데 비해, 경남은 10.7%로 3.3%p 높게 나타남
- 종사자 수 기준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상남도 중소기업 고용구조에서 제조업 중심 특성이 분명하게 확인됨
 -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전체 종사자 수는 114만 2,819명이며, 이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는 33만 2,379명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함. 다음으로 도·소매업 18만 8,960명(16.5%), 숙박·음식점업 12만 3,354명(10.8%), 건설업 11만 177명(9.6%), 운수·창고업 6만 3,747명(5.6%) 순으로 나타남
 - 즉 기업 수 기준에서는 도·소매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고용 기준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전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17.8%인 점을 고려하면, 경남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 29.1%는 전국 평균보다 11.3%p 높은 수준으로, 경남 중소기업 고용구조가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냄
- 매출액 기준에서도 경상남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임
 - 경상남도 중소기업의 2023년 매출액은 188조 4,730억 원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9조 8,241억 원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이어 도·소매업 47조 8,399억 원(25.4%), 건설업 17조 4,883억 원(9.3%), 숙박·음식점업 등 기타 업종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남 중소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기업 수 비중 이상으로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현황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병존하는 형태를 보이면서도, 실제 고용과 생산을 지탱하는 핵심 축은 제조업이라는 점을 시사함

<표 2-14> 경상남도 업종별 매출액(2023년 기준)

(단위: 억 원)

산업분류	전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소기업	중기업		
전산업	2,985,739	1,132,902	751,827	1,884,730	1,101,009
A.농업, 임업 및 어업	36,766	33,338	3,152	36,490	276
B.광업	1,507	915	*	*	*
C.제조업	1,643,563	408,769	389,472	798,241	845,322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9,554	3,971	722	4,693	104,861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169	6,263	*	*	*
F.건설업	186,864	127,668	47,216	174,883	11,981
G.도매 및 소매업	538,362	295,959	182,440	478,399	59,963
H.운수 및 창고업	80,302	56,921	15,121	72,041	8,261
I.숙박 및 음식점업	100,237	88,890	10,178	99,068	1,169
J.정보통신업	12,482	6,177	4,949	11,125	1,357
K.금융 및 보험업	29,621	1,963	496	2,458	27,162
L.부동산업	63,832	16,173	14,497	30,670	33,162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659	22,364	10,904	33,267	1,392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3,116	18,146	13,106	31,253	1,863
P.교육 서비스업	11,773	10,530	*	*	*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7,733	13,288	*	*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342	6,556	4,439	10,995	1,347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855	15,013	*	*	*

주1)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임

주2)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주3) 중소기업 외는 중소기업 범위 초과 기업으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②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③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④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등을 의미함

주4)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2) 김해시 중소기업 현황

- 김해시는 경상남도 내에서 단순히 중소기업 수가 많은 지역을 넘어, 고용과 매출액 측면에서도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중소기업 집적 도시임
- 2023년 기준 김해시 중소기업은 8만 3,632개로 경남 전체의 17.1%를 차지하며,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임. 종사자 수는 22만 5,786명으로 경남 전체의 19.8%, 매출액은 47조 1,825억 원으로 경남 전체의 2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매출액 비중이 기업 수 비중보다 높다는 점은 김해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규모와 산업 생산 기여도가 경남 내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의미함

<표 2-15> 경상남도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구성비 (%)	기업 수 (개)	증감률 (%)
경남	482,366	100.0	490,268	100.0	7,902	1.6
진주시	49,566	10.3	50,040	10.2	474	1.0
통영시	21,132	4.4	21,170	4.3	38	0.2
사천시	16,633	3.4	16,834	3.4	201	1.2
김해시	82,239	17.0	83,632	17.1	1,393	1.7
밀양시	15,983	3.3	16,527	3.4	544	3.4
거제시	31,227	6.5	31,966	6.5	739	2.4
양산시	52,803	10.9	54,060	11.0	1,257	2.4
창원시	137,936	28.6	139,006	28.4	1,070	3.9
의령군	3,517	0.7	3,629	0.7	112	3.2
함안군	12,551	2.6	12,709	2.6	158	1.3
창녕군	8,141	1.7	8,286	1.7	145	1.8
고성군	8,268	1.7	8,391	1.7	123	1.5
남해군	7,559	1.6	7,859	1.6	300	4.0
하동군	7,495	1.6	7,767	1.6	272	3.6
산청군	5,911	1.2	6,042	1.2	131	2.2
함양군	5,656	1.2	5,960	1.2	304	5.4
거창군	9,551	2.0	9,949	2.0	398	4.2
합천군	6,198	1.3	6,441	1.3	243	3.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종사자 수 비중 또한 기업 수 비중을 상회하고 있어, 김해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전체 중소기업 고용의 질과 노동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과제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김해시의 중소기업 규모는 전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음. 2022년과 비교하면 김해시 중소기업 수는 8만 2,239개에서 8만 3,632개로 1,393개 증가하여 1.7%의 증가율을 보였음
 - 종사자 수는 22만 2,247명에서 22만 5,786명으로 3,539명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46조 5,433억 원에서 47조 1,825억 원으로 6,392억 원 증가함
 - 증가율 자체는 크지 않으나 기업 수, 고용, 매출이 모두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김해시 중소기업 기반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확장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16> 경상남도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종사자 수 (명)	구성비 (%)	종사자 수 (명)	구성비 (%)	종사자 수 (명)	증감률 (%)
경남	1,118,490	5.9	1,142,819	6.0	24,329	2.2
진주시	104,294	9.3	105,984	9.3	1,690	1.6
통영시	39,003	3.5	37,935	3.3	△1,068	△2.7
사천시	38,025	3.4	38,915	3.4	890	2.3
김해시	222,247	19.9	225,786	19.8	3,539	1.6
밀양시	33,763	3.0	35,330	3.1	1,567	4.6
거제시	75,702	6.8	83,219	7.3	7,517	9.9
양산시	121,768	10.9	123,757	10.8	1,989	1.6
창원시	328,017	29.3	332,519	29.1	4,502	5.7
의령군	7,520	0.7	7,790	0.7	270	3.6
함안군	37,644	3.4	38,986	3.4	1,342	3.6
창녕군	19,409	1.7	19,430	1.7	21	0.1
고성군	16,588	1.5	17,215	1.5	627	3.8
남해군	12,513	1.1	12,897	1.1	384	3.1
하동군	12,055	1.1	12,419	1.1	364	3.0
산청군	11,252	1.0	11,439	1.0	187	1.7
함양군	10,606	0.9	10,601	0.9	△5	△0.0
거창군	17,065	1.5	17,386	1.5	321	1.9
합천군	11,019	1.0	11,211	1.0	192	1.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표 2-17> 경상남도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3년-'22년)	
	매출액 (억 원)	구성비 (%)	매출액 (억 원)	구성비 (%)	매출액 (억 원)	증감률 (%)
경남	1,832,198	5.5	1,884,730	5.7	52,532	2.9
진주시	138,861	7.6	140,460	7.5	1,599	1.2
통영시	54,690	3.0	56,305	3.0	1,615	3.0
사천시	55,999	3.1	57,993	3.1	1,994	3.6
김해시	465,433	25.4	471,825	25.0	6,392	1.4
밀양시	53,457	2.9	57,181	3.0	3,724	7.0
거제시	71,242	3.9	82,170	4.4	10,928	15.3
양산시	227,219	12.4	233,308	12.4	6,089	2.7
창원시	499,926	27.3	521,971	27.7	22,045	22.4
의령군	13,097	0.7	12,729	0.7	△368	△2.8
함안군	98,063	5.4	97,412	5.2	△651	△0.7
창녕군	40,084	2.2	38,748	2.1	△1,336	△3.3
고성군	25,206	1.4	27,223	1.4	2,017	8.0
남해군	11,091	0.6	10,956	0.6	△135	△1.2
하동군	13,498	0.7	12,639	0.7	△859	△6.4
산청군	13,947	0.8	14,788	0.8	841	6.0
함양군	12,856	0.7	11,484	0.6	△1,372	△10.7
거창군	22,531	1.2	22,722	1.2	191	0.8
합천군	14,997	0.8	14,815	0.8	△182	△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업종별 기업 수 기준으로 보면, 김해시 중소기업은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임
 - 2023년 기준 김해시 중소기업은 총 8만 3,632개이며, 도매 및 소매업이 2만 1,097개로 전체의 25.2%를 차지함. 이어서 제조업 1만 4,837개(17.7%), 숙박 및 음식점업 9,595개(11.5%), 부동산업 9,396개(11.2%), 운수 및 창고업 6,488개(7.8%), 건설업 5,966개(7.1%) 순으로 나타남
 - 기업 수 기준으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제조업 역시 김해시 중소기업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확인됨

- 업종별 종사자 수 기준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김해시 중소기업 고용구조의 중심축은 제조업임이 확인됨

- 2023년 김해시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총 22만 5,786명이며, 제조업 종사자가 9만 6,900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3만 5,720명(15.8%), 숙박 및 음식점업 1만 7,731명(7.9%), 건설업 1만 5,878명(7.0%), 부동산업 1만 302명(4.6%), 운수 및 창고업 9,209명(4.1%) 순으로 나타남
- 기업 수 기준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달리 고용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음. 이는 김해시 중소기업 고용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표 2-18> 김해시 업종별 기업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산업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전산업	82,217	1,415	83,632
A.농업, 임업 및 어업	*	*	697
B.광업	8	-	8
C.제조업	14,345	492	14,837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87	-	387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73	65	338
F.건설업	5,902	64	5,966
G.도매 및 소매업	20,736	361	21,097
H.운수 및 창고업	6,474	14	6,488
I.숙박 및 음식점업	9,503	92	9,595
J.정보통신업	640	4	644
K.금융 및 보험업	206	-	206
L.부동산업	9,367	29	9,396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95	20	1,915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92	24	1,816
P.교육 서비스업	3,505	10	3,515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88	169	657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1,366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37	67	4,704

주1)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임
 주2)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주3)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표 2-19> 김해시 업종별 종사자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명)

산업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전산업	173,588	52,198	225,786
A.농업, 임업 및 어업	*	*	1,054
B.광업	35	-	35
C.제조업	68,138	28,762	96,900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18	-	418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31	1,220	2,151
F.건설업	12,710	3,168	15,878
G.도매 및 소매업	31,244	4,476	35,720
H.운수 및 창고업	8,307	902	9,209
I.숙박 및 음식점업	16,347	1,384	17,731
J.정보통신업	1,168	346	1,514
K.금융 및 보험업	340	-	340
L.부동산업	10,104	198	10,302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658	1,088	5,746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10	5,084	8,894
P.교육 서비스업	4,593	154	4,747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69	4,353	6,322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2,233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742	850	6,592

주1)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임
 주2)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주3)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 김해시 중소기업의 매출액 역시 제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나타남
 - 2023년 김해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총 47조 1,825억 원이며, 제조업 매출액은 26조 6,282억 원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함
 -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10조 6,162억 원(22.5%), 건설업 2조 8,158억 원(6.0%), 숙박 및 음식점업 1조 6,267억 원(3.4%), 운수 및 창고업 9,991억 원(2.1%)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매출액 비중은 기업 수 비중 17.7%, 종사자 수 비중 42.9%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 김해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제조업 부문에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즉, 김해시 중소기업은 기업 수 분포상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적지 않으나, 고용과 매출액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표 2-20> 김해시 업종별 매출액 현황(2023년 기준)

(단위: 억 원)

산업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전산업	267,943	203,882	471,825
A.농업, 임업 및 어업	*	*	2,460
B.광업	95	-	95
C.제조업	142,760	123,522	266,282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53	-	253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838	5,681	7,519
F.건설업	19,492	8,666	28,158
G.도매 및 소매업	59,710	46,452	106,162
H.운수 및 창고업	8,385	1,606	9,991
I.숙박 및 음식점업	14,233	2,035	16,267
J.정보통신업	930	355	1,284
K.금융 및 보험업	306	-	306
L.부동산업	3,442	4,073	7,515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90	1,284	4,974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798	2,066	4,864
P.교육 서비스업	2,068	164	2,232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04	5,790	7,694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1,766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35	1,468	4,002

주1)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임

주2)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주3)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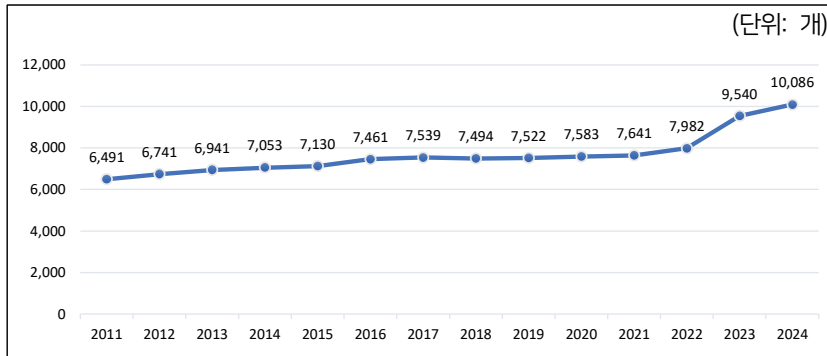
- 한편, 김해시 중소기업 현황은 김해시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김해시 제조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일부 파악할 수 있음²⁾

- 2024년 기준으로 김해시 제조업체 수는 10,086개, 근로자 수는 84,719명으로, 2023년 대비 기업체 수는 546개, 근로자 수는 3,320명 증가한 것

2) 「중소기업 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김해시에 본사를 둔 전산업 부문 중소기업을 집계한 자료임. 반면 「김해시 제조업체 실태조사」(김해시)는 김해시에 입지한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기반 자료로, 산업 범위가 제조업에 한정되고 조사 방식도 상이함. 따라서 두 자료는 수치가 일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전자는 김해시 전체 중소기업의 규모를, 후자는 제조업 현장의 구조와 입지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제조업체 수는 2011년 6,491개에서 2024년 10,086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2022년 7,982개, 2023년 9,540개, 2024년 10,086개로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자료) 김해시(2024)

(그림 2-1) 김해시 제조업체 추이(2011-2024년)

- 김해시 제조업체 고용은 중소기업 중심 구조를 보임
 - 2024년 기준 김해시 50인 이하 제조업체는 9,883개로 전체의 98.0%를 차지함. 특히 10인 미만 규모의 업체는 8,024개소로, 김해시 전체 제조업체의 79.6%를 차지함
- 읍면동별로는 한림면 1,974개(19.6%), 주촌면 1,572개(15.6%), 진례면 1,480개(14.7%) 순으로 업체 수가 많고, 근로자 수는 진례면 15,094명(17.8%), 주촌면 15,067명(17.8%), 한림면 14,186명(16.7%) 순으로 나타나 제조업체와 고용이 특정 산업입지에 집중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표 2-21> 김해시 제조업체 인력 현황(2024년 기준)

구분		빈도(개)	비중(%)
50인 미만	소계	9,883	98.0
	1~4명	6,097	60.5
	5~9명	1,927	19.1
	10~19명	1,133	11.2
	20~29명	432	4.3
	30~39명	192	1.9
	40~49명	102	1.0
50인 이상	소계	203	2.0
	50~99명	141	1.4
	100~199명	41	0.4
	200~299명	14	0.1
	300명 이상	7	0.1
김해시 전체		10,086	100.0

자료) 김해시(2024)

<표 2-22> 김해시 제조업체 현황(2024년 기준)

구분	업체 수		근로자 수	
	개	비중(%)	명	비중(%)
김해시 전체	10,086	100.0	84,719	100.0
한림면	1,974	19.6	14,186	16.7
주촌면	1,572	15.6	15,067	17.8
진례면	1,480	14.7	15,094	17.8
상동면	1,050	10.4	6,752	8.0
진영읍	1,046	10.4	11,228	13.3
생림면	657	6.5	5,670	6.7
장유1동	396	3.9	3,659	4.3
장유2동	64	0.6	263	0.3
장유3동	49	0.5	114	0.1
삼안동	334	3.3	5,509	6.5
불암동	303	3.0	1,668	2.0
칠산서부동	336	3.3	1,945	2.3
활천동	267	2.6	1,881	2.2
대동면	162	1.6	548	0.6
북부동	136	1.3	533	0.6
내외동	132	1.3	354	0.4
회현동	53	0.5	109	0.1
부원동	32	0.3	62	0.1
동상동	43	0.4	77	0.1

자료) 김해시(2024)

2 | 김해시 산업단지 조성 현황

1) 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 산업단지는 단순히 기업의 공장용지 공급 수단이 아니라, 생산활동과 지원, 생활 기능이 함께 배치되는 계획적 산업입지 공간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는 산업단지를 ‘산업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정 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 유형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각 단지의 정책적 목적과 기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
 - 산업단지 유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같은 체계를 따르고 있음

<표 2-23> 산업단지의 유형 및 특징

구분	정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성격 및 특징
국가 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가 전략산업 육성·광역 개발 중심의 대규모 거점형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지역산업 육성·지방 분산·중소기업 집적 중심의 지역기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 내 첨단산업·지식기반산업 집적 중심의 혁신형 산업단지
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농어촌 산업유치·소득기반 확충·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심의 지역밀착형 산업단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전략산업과 광역 개발, 일반산업단지는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분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 농공단지는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목적을 가짐

2) 전국 및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현황

(1) 전국 산업단지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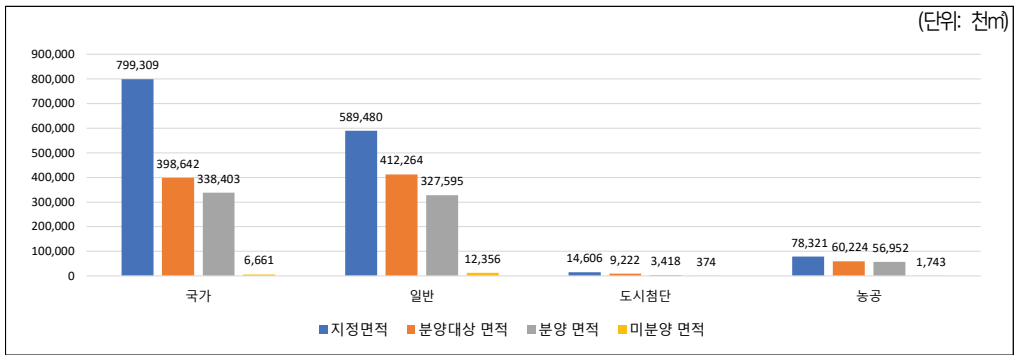
-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59개이며, 지정 면적은 1,481,716천㎡임
 - 전국 산업단지의 분양 대상 면적은 880,351천㎡, 분양공고 면적은 747,502천㎡이며, 실제 분양 면적은 726,368천㎡으로 미분양 면적은 21,134천㎡임
 -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2.8%로, 이는 산업단지가 실제 기업 입지 수요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함
- 산업단지 유형별로 보면, 산업단지 수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많지만, 지정 면적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함
 - 2025년 12월 기준 일반산업단지는 765개로 전체 단지 수의 56.3%를 차지하며, 농공단지는 485개로 전체 단지 수의 35.7%를 차지함
 - 반면 국가산업단지는 55개로 단지 수 비중은 4.0% 수준에 그치지만, 지정 면적은 799,309천㎡로 전체의 53.9%를 차지함.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면적은 589,480천㎡로 전체의 39.8%를 차지하며, 국가산업단지 다음으로 큰 비중을 보임
- 이러한 구조는 산업단지 유형별 기능 차이가 전국 산업입지 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국가산업단지는 수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국가 전략산업과 대규모 기간산업 입지를 담당하는 광역 거점형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단지당 면적이 매우 큼
 - 일반산업단지는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집적 기능을 폭넓게 담당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4> 전국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2025년 12월 기준)

(단위: 개, 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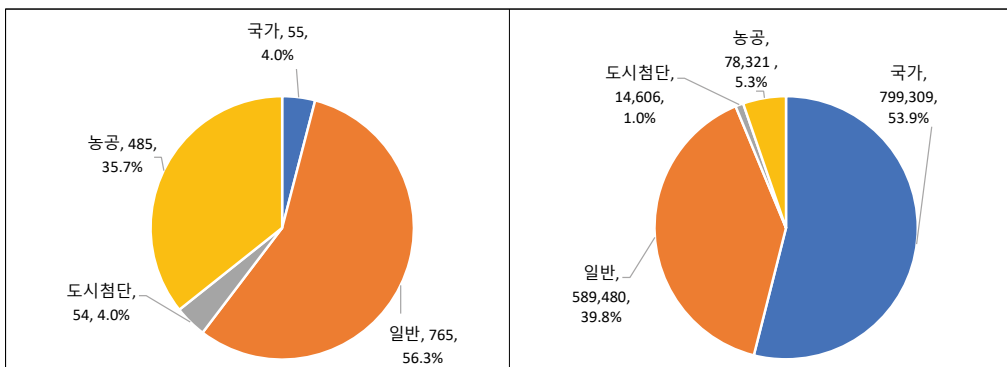
구분	단지수	지정 면적	분양대상 면적	분양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면적	미분양 면적	미분양률
전국	1,359	1,481,716	880,351	747,502	726,368	21,134	2.8
국가	55	799,309	398,642	345,064	338,403	6,661	1.9
일반	765	589,480	412,264	339,951	327,595	12,356	3.6
도시첨단	54	14,606	9,222	3,792	3,418	374	9.9
농공	485	78,321	60,224	58,695	56,952	1,743	3.0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현황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현황

(그림 2-2) 전국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2025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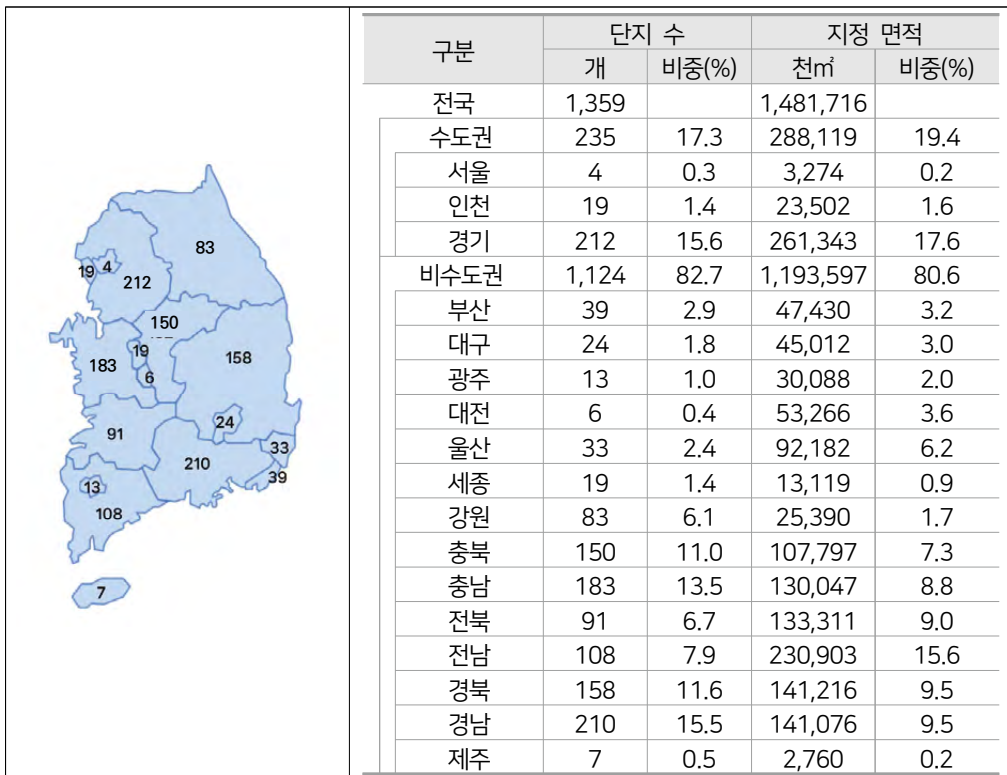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현황

(그림 2-3) 전국 산업단지 단지 수 및 지정 면적(2025년 12월 기준)

- 농공단지에는 비도시지역 산업기반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단지 수는 많지만, 단지당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유형으로, 아직 단지 수와 면적은 작지만 향후 도시형 혁신산업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별 산업단지 분포를 보면, 산업단지 수와 지정 면적은 경기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일부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지 수와 지정 면적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음

-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59개 중 경기도가 212개(15.6%)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210개(15.5%), 충청남도 183개(13.5%), 경상북도 158개(11.6%), 충청북도 150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현황

(그림 2-4) 지역별 산업단지 단지 수 및 지정 면적(2025년 12월 기준)

- 지정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261,343천㎡, 17.6%)와 전라남도(230,903천㎡, 15.6%)의 비중이 특히 높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141,216천㎡, 9.5%)와 경상남도(141,076천㎡, 9.5%) 순임
- 전라남도는 단지 수 비중은 7.9%이지만 지정 면적 비중은 15.6%로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울산, 대전 등도 단지 수 비중보다 면적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반대로 경상남도는 단지 수 기준으로는 전국 2위 수준인 15.5%이지만, 지정 면적 기준으로는 9.5%를 차지하여 소규모 산업단지 중심의 수적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강원, 세종 등도 단지 수 비중이 지정 면적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

(2)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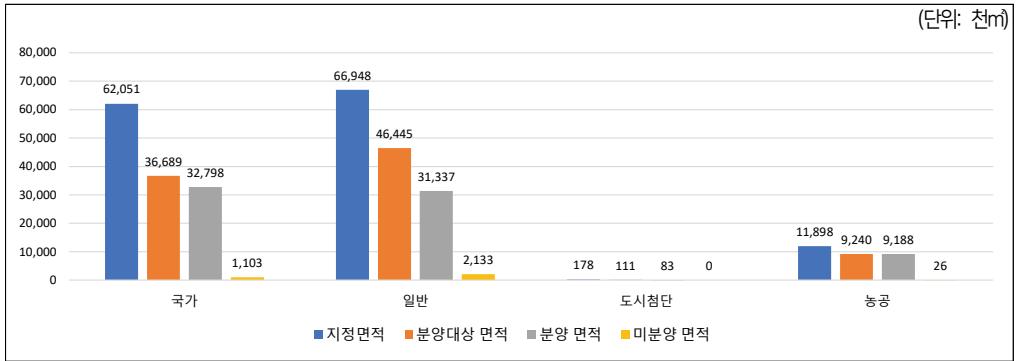
-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제조업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국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임
 - 2025년 12월 기준 경상남도 산업단지는 총 210개이며, 지정 면적은 141,076천㎡임
 - 분양대상 면적은 92,485천㎡, 분양공고 면적은 76,669천㎡이며, 실제 분양 면적은 73,406천㎡, 미분양 면적은 3,262천㎡로, 이에 따른 미분양률은 4.3%임
 - 앞서 살펴본 전국 산업단지 현황과 비교하면, 경상남도는 전국 산업단지(1,359개)의 약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정 면적 기준으로는 전국 산업단지 지정 면적(1,481,716천㎡)의 약 9.5% 수준임
- 경상남도 산업단지는 단지 수 기준으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 12월 기준 일반산업단지는 117개로 전체의 55.7%를 차지하며, 농공단지는 82개로 39.0%를 차지하는 반면, 국가산업단지는 9개로 4.3%,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개로 1.0% 수준에 그침
 - 즉, 경상남도는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대규모 산업입지 구조라기보다,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폭넓게 분포하는 산업입지 구조를 보이고 있음

<표 2-25>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2025년 12월 기준)

(단위: 개, 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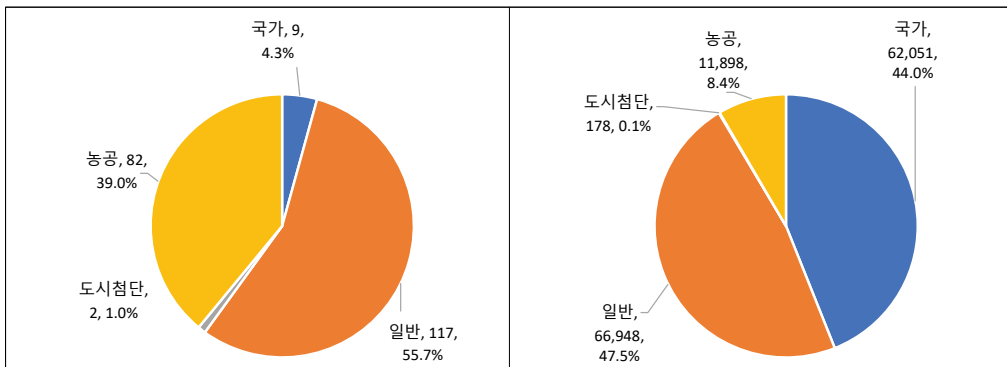
구분	단지수	지정 면적	분양대상 면적	분양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면적	미분양 면적	미분양률
경상남도	210	141,076	92,485	76,669	73,406	3,262	4.3
국가	9	62,051	36,689	33,901	32,798	1,103	3.3
일반	117	66,948	46,445	33,470	31,337	2,133	6.4
도시첨단	2	178	111	83	83	0	0.0
농공	82	11,898	9,240	9,214	9,188	26	0.3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현황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현황

(그림 2-5)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2025년 12월 기준)



(그림 2-6) 경상남도 산업단지 단지 수 및 지정 면적(2025년 12월 기준)

- 지정 면적 기준으로 보면,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구조임
 - 경상남도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면적은 66,948천㎡로 경남 전체의 47.5%를 차지하며, 국가산업단지는 62,051천㎡로 44.0%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농공단지는 11,898천㎡로 경남 전체의 8.4%,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78,295㎡로 0.1% 수준에 불과함

- 지역별로 보면, 산업단지 수는 김해시와 함안군, 창원시 등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
 - 김해시는 28개(조성완료 20개, 조성중 8개)로 경상남도 전체의 13.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25개(조성완료 18개, 조성중 7개)로 11.9%, 창원시는 21개(조성완료 14개, 조성중 7개)로 10.0%, 사천시는 17개(조성완료 11개, 조성중 6개)로 8.1%를 차지함
 - 반면 남해군은 1개(0.5%), 합천군은 3개(1.4%)에 그쳐 시군 간 산업단지 분포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산업단지 수 기준으로는 김해시가 가장 많지만, 지정면적 기준으로는 창원시의 비중이 가장 높고, 거제시와 김해시, 함안군이 그 뒤를 잇는 구조임
 - 창원시의 지정 면적은 45,188천㎡로 경상남도 전체의 32.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다음으로 거제시 14,488천㎡(10.4%), 김해시 11,123천㎡(8.0%), 함안군 9,242천㎡(6.6%), 양산시 8,470천㎡(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 조성 구조를 보면, 경상남도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 기반 형성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경남 전체에서 9개에 불과하며, 조성이 완료된 곳은 창원시(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와 거제시(지세포자원비축단지) 두 지역 뿐임
 - 즉, 경상남도 산업단지 구조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중심이라기보다,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폭넓게 분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표 2-26> 경상남도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구분	산업단지 조성 (개)															지정 면적 (천㎡)
	합계			국가			일반			도시 첨단		농공				
	계	조성 완료	조성 중	계	조성 완료	조성 중	계	조성 완료	조성 중	계	조성 완료	조성 중	계	조성 완료	조성 중	
경남	210 (1)	148	62	9 (1)	2	7 (1)	117	66	51	2	1	1	82	79	3	139,402
진주시	12 (1)	12 (1)	-	(1)	-	(1)	6	6	-	-	-	-	6	6	-	6,747
통영시	5	1	4	1	-	1	4	1	3	-	-	-	-	-	-	6,778
사천시	17	11	6	1	-	1	10	5	5	-	-	-	6	6	-	7,370
김해시	28	20	8	-	-	-	20	12	8	-	-	-	8	8	-	11,123
밀양시	14	11	3	1	-	1	4	3	1	-	-	-	9	8	1	5,726
거제시	8	3	5	3	1	2	4	1	3	-	-	-	1	1	-	14,488
양산시	14	9	5	-	-	-	13	8	5	-	-	-	1	1	-	8,470
창원시	21	14	7	3	1	2	15	11	4	2	1	1	1	1	-	45,188
의령군	7	4	3	-	-	-	3	-	3	-	-	-	4	4	-	1,609
함안군	25	18	7	-	-	-	15	8	7	-	-	-	10	10	-	9,242
창녕군	11	7	4	-	-	-	6	2	4	-	-	-	5	5	-	3,994
고성군	13	8	5	-	-	-	8	3	5	-	-	-	5	5	-	4,443
남해군	1	1	-	-	-	-	-	-	-	-	-	-	1	1	-	54
하동군	6	3	3	-	-	-	2	-	2	-	-	-	4	3	1	7,405
산청군	7	7	-	-	-	-	3	3	-	-	-	-	4	4	-	883
함양군	9	8	1	-	-	-	2	2	-	-	-	-	7	6	1	1,832
거창군	9	8	1	-	-	-	2	1	1	-	-	-	7	7	-	1,953
합천군	3	3	-	-	-	-	-	-	-	-	-	-	3	3	-	443

주) 진주시는 현재 사천시와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1)로 별도 표시함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현황

3) 김해시 산업단지 조성 현황

- 2025년 12월 기준 김해시에는 총 28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 지정 면적은 11,123천㎡임
 - 산업단지 유형은 일반산업단지 20개, 농공단지 8개로 구성되며, 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없음
 - 분양대상 면적은 7,523천㎡, 분양공고 면적은 6,783천㎡, 실제 분양 면적

은 6,665천㎡, 미분양 면적은 118천㎡로 나타나며, 전체 미분양률은 1.7% 수준임

- 김해시 산업단지는 수, 면적 기준 모두 일반산업단지 중심이며, 일반산업단지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산업단지는 전체 단지 수의 71.4%(20개), 지정 면적의 88.3%(9,824천㎡)를 차지하는 반면, 농공단지는 전체 단지 수의 28.6%(8개), 지정 면적의 11.7%(1,300천㎡) 비중임
 - 전체 28개 단지 중 조성완료 단지는 20개로 71.4%, 조성 중 단지는 8개로 28.6%를 차지하며, 일반산업단지는 20개 중 12개가 조성완료, 8개가 조성 중이고, 농공단지는 8개 모두 조성이 완료된 상태임



자료) 김해시(2024)

(그림 2-7) 김해시 산업단지 현황

<표 2-27> 김해시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2025년 12월 기준)

(단위: 개, 천㎡, %)

구분	지정 현황(개)			지정 면적	분양현황			
	계	조성 완료	조성 중		분양공고 면적	분양 면적	미분양 면적	미분양률
김해시 전체	28	20	8	11,123	6,783	6,665	118	1.7
일반산업단지	20	12	8	9,823	5,773	5,655	118	2.0
농공단지	8	8	0	1,300	1,010	1,010	0	0.0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산업단지의 공간적 분포는 특정 읍·면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구조를 보임
 - 조성완료 산업단지 20개 중 진영읍(일반 3개, 농공 3개) 6개, 한림면(일반 2개, 농공 2개) 4개, 주촌면(일반 3개, 농공 1개) 4개가 위치하고 있어, 김해시 산업단지의 공간적 중심은 이들 지역임을 알 수 있음

<표 2-28> 김해시 산업단지 분포(2025년 12월 기준 조성 완료)

구분	합계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개	단지명	개	단지명
김해시 전체	20	12	-	8	-
진영읍	6	3	주호, 오척, 김해가산	3	진영죽곡, 본산, 하계
한림면	4	2	김해명동, 신천	2	병동, 안하
주촌면	4	3	덕암, 김해골든루트, 이노비즈밸리	1	내삼
생림면	2	0	-	2	나전, 봉림
진례면	2	2	김해테크노밸리, AM하이테크	0	-
대동면	1	1	김해대동첨단	0	-
풍유동	1	1	서김해	0	-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조성 시기별로 보면, 김해시 산업단지는 1990년대 농공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일반산업단지가 확대되면서 현재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1990년대에는 나전, 봉림, 내삼, 진영죽곡 등 농공단지가 먼저 조성되면서 비도시지역 제조업 입지 기반이 마련되었음
 - 2000년대에는 덕암일반산업단지와 병동·안하농공단지 등이 조성되었고, 2007년 이후 김해골든루트, 김해테크노밸리, 김해명동, 서김해, 이노비즈

밸리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됨

- 2020년대에는 신천, AM하이테크, 김해대동첨단 등 신규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김해시 산업단지 규모가 더욱 확대됨
- 김해시 조성완료 산업단지는 일부 대형 일반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다수의 중소 규모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산재해있는 구조임
- 조성완료 산업단지 면적 9,121천㎡ 가운데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가 2,807천㎡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1,644천㎡(18.0%),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1,519천㎡(16.7%)가 그 뒤를 이음
 - 이들 3개 단지의 면적 합계는 5,970천㎡로 김해시 전체 조성완료 산업단지 면적의 65.5%를 차지함
 - 반면 농공단지는 진영죽곡농공단지 405천㎡(4.4%)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150천㎡ 수준의 소규모 단지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주체 측면에서도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차이가 뚜렷함
- 조성완료 20개 단지의 사업주체는 김해시 8개, 민간 8개, 공사 2개, 민관합작 2개로 나타남
 - 일반산업단지는 여러 방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최근 조성된 대규모 단지 일수록 민간 또는 민관합작 방식 비중이 높음. 반면 농공단지는 8개 중 7개가 김해시 주도로 조성되어 공공 주도형 성격이 뚜렷함
 - 이는 김해시 산업단지 조성이 초기에는 공공 주도의 농공단지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이후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냄
- 산업단지 노후도는 2025년 말 기준 준공인가일로부터의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후 산단(15년 이상), 중간 산단(10~14년), 신규 산단(10년 미만)으로 구분함

<표 2-29> 김해시 산업단지별 현황(2025년 12월 기준 조성 완료)

구분	지정 면적(천㎡)	사업기간(년)	준공인가일	사업주체
김해시 전체	9,121	-	-	-
일반산업단지	7,821	-	-	-
덕암	156	1999~2001	2001.07.26	김해시
김해골든루트	1,519	2007~2014	2014.12.26	공사
주호	117	2009~2013	2013.06.25	민간
김해명동	263	2009~2019	2019.02.22	민간
오척	149	2011~2013	2013.12.12	민간
김해테크노밸리	1,644	2011~2018	2018.04.06	민관합작
서김해	449	2013~2021	2021.04.23	공사
김해가산	97	2010~2022	2022.07.18	민간
이노비즈밸리	213	2013~2020	2020.01.02	민간
신천	245	2012~2024	2024.04.05	민간
AM하이테크	162	2015~2022	2022.08.10	민간
김해대동첨단	2,807	2016~2024	2024.05.30	민관합작
농공단지	1,300	-	-	-
나전	144	1994~1995	1995.06.30	김해시
봉림	93	1995~1997	1997.08.30	김해시
내삼	113	1996~1998	1998.09.28	김해시
진영죽곡	405	1989~1997	1997.08.30	김해시
병동	149	2001~2003	2003.11.10	김해시
안하	127	2004~2007	2007.04.26	김해시
본산	131	2005~2011	2011.06.30	민간
하계	137	2006~2012	2012.04.26	김해시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2-30> 김해시 산업단지 노후도(2025년 12월 기준 조성 완료)

구분	기준	산업단지		개수 (개)	지정 면적 (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김해시 전체	-	-	-	20	9,121
노후 산단	준공 후 15년 이상	덕암	나전, 봉림, 내삼, 진영죽곡, 병동, 안하	7	1,187
중간 산단	준공 후 10~14년	김해골든루트, 주호, 오척	본산, 하계	5	2,053
신규 산단	준공 후 10년 미만	김해명동, 김해테크노밸리, 서김해, 김해가산, 이노비즈밸리, 신천, AM하이테크, 김해대동첨단	-	8	5,880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025년 12월 기준 김해시 조성완료 산업단지를 노후도 기준으로 구분하면, 노후 산단은 총 7개, 중간 산단은 5개, 신규 산단은 8개로 나타남
 - 노후 산단들은 주로 소규모 농공단지와 초기 일반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35.0%이나, 면적 기준으로는 13.0%(1,187천㎡)에 그침. 반대로 신규 산단은 개수 기준으로 전체의 40.0%, 면적 기준으로는 64.5%(5,880천㎡)를 차지함
- 2025년 12월 기준으로 김해시 산업단지 20개소에는 등록공장 기준으로 총 1,08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에서 소기업은 953개(87.7%), 중기업은 129개(11.9%), 대기업은 5개(0.5%)임
- 즉 김해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구조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산업단지라는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유형별로 보더라도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 중심 구조는 공통적으로 확인됨
- 일반산업단지는 총 837개 기업 중 소기업 736개(87.9%), 중기업 97개(11.6%), 대기업 4개(0.5%)로 구성되어 있음. 농공단지는 총 250개 기업 중 소기업 217개(86.8%), 중기업 32개(12.8%), 대기업 1개(0.4%)로 나타남
 -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모두 대기업 비중은 1% 미만이며, 소기업 비중이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김해시 산업단지 전반의 기업 구조가 영세·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기업 수는 일부 주요 산업단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음
- 기업 수는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296개,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188개,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132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75개, 진영죽곡농공단지 72개 등의 순으로 많음

<표 2-31> 김해시 산업단지별 기업 수 현황(2025년 12월 기준 조성 완료)

구분	기업 수 (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김해시 전체	1,087	953	129	5
일반산업단지	837	736	97	4
덕암	31	29	2	-
김해골든루트	132	88	42	2
주호	13	13	-	-
김해명동	38	35	2	1
오척	15	14	1	-
김해테크노밸리	296	268	28	-
서김해	75	1	-	-
김해가산	1	67	8	-
이노비즈밸리	1	1	-	-
신천	13	11	2	-
AM하이테크	34	33	1	-
김해대동첨단	188	176	11	1
농공단지	250	217	32	1
나전	33	28	5	-
봉림	2	-	2	-
내삼	30	30	-	-
진영죽곡	72	52	19	1
병동	25	24	1	-
안하	47	46	1	-
본산	15	11	4	-
하계	26	26	-	-

주)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등록공장 기업 수로, 김해시 자체 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025년 12월 기준 김해시 산업단지 20개소의 등록공장 총 근로자 수는 21,399명이며, 이 가운데 내국인 근로자는 20,210명(94.4%), 외국인 근로자는 1,189명(5.6%)으로 나타남
 - 전체 근로자 가운데 남성은 16,259명(76.0%), 여성은 5,140명(24.0%)으로, 김해시 산업단지 고용구조는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제조업 고용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산업단지 유형별로 보면,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수는 15,620명으로 전체의 73.0%를 차지하며, 농공단지는 5,779명으로 27.0%를 차지함

<표 2-32> 김해시 산업단지별 근로자 수 현황(2025년 12월 기준 조성 완료)

구분	계 (명)	근로자 수					
		소계	내국인		소계	외국인	
			남자(명)	여자(명)		남자(명)	여자(명)
김해시 전체	21,399	20,210	15,290	4,920	1,189	969	220
일반산업단지	15,620	14,608	11,082	3,526	1,012	823	189
덕암	711	692	546	146	19	14	5
김해골든루트	5,468	5,026	3,575	1,451	442	358	84
주호	226	221	182	39	5	2	3
김해명동	442	436	380	56	6	6	0
오척	277	277	231	46	0	0	0
김해테크노밸리	4,957	4,604	3,527	1,077	353	286	67
서김해	1,136	1,086	857	229	50	38	12
김해가산	18	18	12	6	0	0	0
이노비즈밸리	5	5	4	1	0	0	0
신천	169	167	146	21	2	2	0
AM하이테크	362	316	221	95	46	37	9
김해대동첨단	1,849	1,760	1,401	359	89	80	9
농공단지	5,779	5,602	4,208	1,394	177	146	31
나전	585	580	443	137	5	5	0
봉림	120	113	109	4	7	7	0
내삼	366	360	313	47	6	6	0
진영죽곡	2,589	2,516	1,718	798	73	56	17
병동	610	610	486	124	0	0	0
안하	554	519	436	83	35	34	1
본산	495	458	335	123	37	24	13
하계	460	446	368	78	14	14	0

주)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등록공장 근로자 수로, 김해시 자체 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일반산업단지 비중이 77.0%인데 비해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비중이 73.0%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실제로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를 단순 계산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약 18.7명, 농공단지는 약 23.1명으로, 농공단지가 기업 수는 적지만 기업당 종업원 수는 다소 많은 구조를 보임

○ 근로자 수 역시 일부 주요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자 수는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5,468명,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4,957명, 진영죽곡농공단지 2,589명,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1,849명 순으로 많음

- 이들 4개 산업단지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14,863명으로, 전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약 69.5%를 차지함

3 | 근로환경 관련 정책환경 및 개선 필요성

1) 근로환경의 개념과 유형

- 근로환경은 단일 법률에서 완결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라기보다, 근로조건, 안전보건, 복지, 작업장 및 공간환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과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법체계상 근로환경은 임금·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복지 및 생활여건 등을 분절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분석에서는 통합적 해석이 필요함
- 한편 관련 선행연구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근로환경의 분석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음

<표 2-33> 근로환경의 법·정책상 개념과 유형

구분	법·정책상 개념	주요 내용	관련 근거 법
근로조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휴게, 고용형태 등 근로의 기본 조건	「근로기준법」 제1조
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작업장 안전관리, 보호구, 위험성평가, 위생, 건강장해 예방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복지·생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환경	휴게시설, 식사공간, 샤워·탈의공간, 복지서비스, 건강지원, 생활편의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공간·입지	산업단지 및 사업장 주변의 외부 기반환경	교통 접근성, 주차, 보행환경, 편의시설, 공용복지시설, 환경관리 등 사업장 외부의 공간적 조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조
조직·관계	사업장 내 인적·조직적 운영환경	업무강도, 교육훈련, 상하관계, 소통, 직무자율성, 조직문화 등	단일 법률로 직접 정의되지 않으며, 관련법 전반과 연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예를 들어, 김진하·황민영(2019)은 중소기업 노동환경은 작업위험, 작업장 물리환경, 안전보건체계, 복지 및 생활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안향자·이상직(2021)은 물리적 업무환경을 개인집중업무 공간, 협업 공간, 어메니티 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 공간이 직무만족과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 광노학·김문준(2016)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관계·보상 요인과 복지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복지환경과 직무환경의 개선이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과 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의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부의 물리적 작업환경과 복지·위생 환경, 그리고 산업단지 외부의 공용 기반 환경에 초점을 두고자 함
- 김해시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개별 기업 내부의 작업공간, 안전·위생 여건, 휴게시설뿐 아니라 산업단지 차원의 교통, 주차, 보행, 편의시설 등 공용 인프라가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근로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로환경의 넓은 범주에는 임금체계, 노사관계 전반과 같은 요소도 포함되나, 본 연구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라는 공간 단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함

2) 근로환경 관련 정책환경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은 근로조건, 안전보건, 복지·생활, 공간·입지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개념임. 한편, 관련 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개입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연계성이 가장 높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같은 법 제4조의2와 제4조의3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홍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방정부 개입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를 단순히 생산시설의 집합지가 아니라 지원·복지·생활 기능이 결합된 계획적 산업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을 근로환경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경상남도과 김해시 차원에서도 근로환경 개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김해시는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이는 근로환경 문제가 개별 기업의 자율적 관리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방·지원 정책 대상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표 2-34> 산업단지 근로환경 관련 법·조례 체계

구분	법률·조례명	관련 내용	특징
국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대책 수립·시행 근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내부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지자체 개입의 직접적 법적 근거 제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를 생산시설뿐 아니라 지원·복지·생활 기능이 결합된 계획적 산업공간으로 규정	산업단지의 외부 기반시설과 공간환경을 근로환경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제공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근거 마련	김해시를 포함한 도내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을 포괄하는 상위 정책 틀 제공
김해시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저감과 관련된 작업환경 개선 근거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김해시의 직접적 실행 근거 제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경상남도의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광역 차원에서 제도화한 상위 정책 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포함한 도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광역 단위의 방향 제시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김해시의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활동과 작업환경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두 조례 모두 산업단지 외부 기반시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국가 단위의 대표적인 근로환경 관련 조사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가 있으며, 여기에서도 근로환경을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작업장 위험노출, 심리사회적 위험, 건강문제, 직무만족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근로환경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고용노동 환경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사 항목은 노동강도, 스트레스, 반복작업, 근로패턴, 감정노동, 교육훈련, 폭력·차별, 직업만족도, 건강문제, 위험요인 노출 정도 등 13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본은 전국 5만 가구를 지역별로 층화하여 추출하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함. 조사 주기는 3년으로, 전국 취업자의 근로환경 수준과 변화 추이를 장기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다만 근로환경조사는 전국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조사라는 점에서, 전국 단위 비교와 일반적 노동환경 진단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주차난,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 안전, 공용 편의시설 부족 등과 같은 공간 기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음

- 특히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환경은 개별 사업장 내부의 작업조건뿐 아니라 산업단지 외부 기반시설 수준과 결합되어 형성되므로, 국가 단위 일반조사만으로는 지역 정책 설계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표 2-35> 근로환경조사 개요 및 특징

구분	근로환경조사
조사 목적	전국 취업자의 고용노동환경 및 위험노출 실태 파악
조사 대상	전국 취업자
주요 내용	노동강도, 스트레스, 반복작업, 감정노동, 건강문제, 위험요인 노출, 직무만족도 등 노동환경 전반
장점	노동환경 전반 파악 가능
한계	특정 공간·생활환경 문제 파악 어려움

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개요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3)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

-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시설의 집합지가 아니라, 산업시설과 관련 지원시설 및 복지·생활 기능이 함께 배치되는 계획적 산업 공간이라는 점에서 근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를 ‘산업시설과 그 관련 교육·연구·업무·지원·유통시설 및 그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업단지가 생산공간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동, 휴식, 생활편의와 기업지원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공간임을 의미함
 - 따라서 산업단지의 도로, 주차, 보행, 대중교통, 편의시설, 환경관리 수준은 사업장 외부 요인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근로환경을 구성하는 공간적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장 내부 환경과 산업단지 외부 환경이 결합되어 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환경을 형성할 것임.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장 내부 환경과 산업단지 외부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로 보기보다, 인력 확보, 직무만족도

- 향상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적 산업정책으로 이해해야 함
-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만족도는 작업공간 내부의 설비와 유해요인, 위생·휴게시설뿐 아니라 출퇴근 교통, 주차, 식사, 편의시설, 보행 안전 등과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음
 - 그러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통근버스, 별도 주차공간, 휴게시설, 편의서비스 등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업단지 내 공용 인프라의 수준이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수준을 좌우할 가능성이 큼
 - 이런 점에서 김해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환경 문제는 개별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산업단지 단위의 공동 인프라 및 공간적 산업정책 문제로 볼 수 있음
- 김해시처럼 중소 제조업체와 산업단지가 집적된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큼
- 김해시는 다수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공존하고, 노후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가 혼재하는 구조로 산업단지별 기반 환경 수준과 근로환경 체감 수준의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근로환경 문제를 단순히 사업장 내부 안전이나 개별 기업의 복지 문제로 한정할 수 없으며, 산업단지 외부의 교통·주차·보행·편의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 차원의 정책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III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인식 조사 결과 분석

1 |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김해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과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특히 본 조사는 일반적인 노동조건 전반이 아니라, 사업장 내부의 물리적 근로환경과 산업단지 외부의 기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직접 연결됨
 - 설문지 구성에도 ‘넓은 의미의 근로환경’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근로환경’, 즉 물리적 근로환경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사설계 및 내용
 - 조사대상은 김해시 산업단지 20개소(일반산업단지 12개, 농공단지 8개) 내 사업장 근로자이며, 조사표본은 총 1,532명임

<표 3-1>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2025년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근로환경 인식 조사	
조사대상 및 표본	김해시 산업단지 20개소(일반 12개, 농공 8개) 내 사업장 근로자 1,53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및 현장조사	
조사기간	2025.10.27~11.21 (26일간)	
조사 내용	기본정보	연령대, 성별, 근무기간, 근무 산업단지
	사업장 내 근로환경 인식 및 수요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청년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 인식
	산업단지 환경조성(개선) 인식 및 수요	산업단지 노후화에 대한 인식, 산업단지 내 환경조성(개선) 필요 정도 및 필요 부분, 산업단지 환경조성(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산업단지 환경조성(개선)이 청년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 인식
	기타 의견	사업장 근로환경 및 산업단지 환경조성(개선) 관련 기타 의견

자료) 연구진 작성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함
- 조사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26일간이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SPSS Statistics)를 활용하여 분석함
- 조사문항은 크게 기본정보, 사업장 내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산업단지 환경조성(개선)에 대한 인식 및 수요, 기타 의견 등임

○ 본 조사에서 적용한 근로환경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장 근로환경: 근로자가 속해있는 사업장 내외부 근로환경을 의미함. 세부적으로 사업장 복지환경(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실, 기숙사 등), 작업환경(작업장 내부 조명시설, 공기조화설비, 냉난방 시설 등), 외관환경(작업장 외부 균열, 누수, 도색 상태 등), 녹지환경(조경, 화단, 울타리 등), 외부환경(흡연구역,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으로 구분함
- 산업단지 환경: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단지 내 환경을 의미함. 세부적으로 도로 및 주차환경(도로정비, 주차장 등), 보행 환경(인도, 가로등 등), 편의시설(식당, 편의점 등), 문화여가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등), 접근성(대중교통, 셔틀버스 운행 등), 녹지공간(화단, 공원 등), 휴식공간(옥외 벤치, 그늘막 등), 안내시설(표지판 등), 경관디자인(상징물, 도색 등)으로 구분함

○ 한편, 본 조사는 김해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을 직접 수집한 자료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으나, 다음과 같이 결과분석 시 몇 가지 유의점이 있음

- 본 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과 체감 수요를 바탕으로 한 조사이므로, 객관적 시설 수준이나 행정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로환경의 범위를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임금수준, 노사관계, 인사제도, 고용안정성과 같은 넓은 의미의 노동환경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산업단지별 규모의 차이로 응답자 수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전체 평균에 대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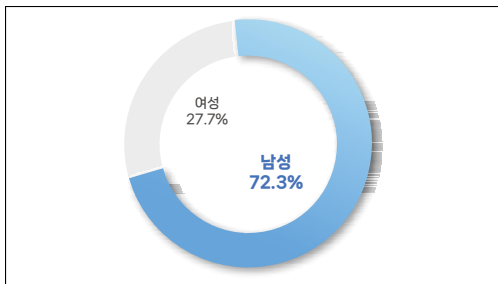
2)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성별

- 전체 응답자 1,532명 중 남성은 1,107명(72.3%), 여성은 425명(27.7%)으로, 김해시 산업단지 및 제조업 고용구조가 남성 중심적 특성을 보이는 것과 일치함

○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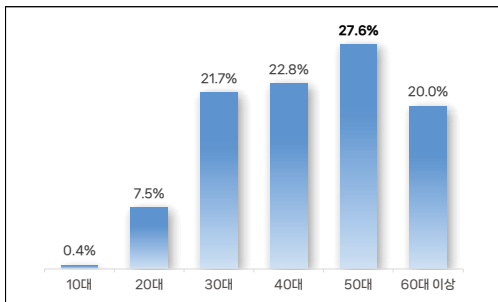
- 연령대는 50대가 27.6%로 가장 높고, 40대 22.8%, 30대 21.7%, 60대 이상 20.0%, 20대 7.5%, 10대 0.4%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70.4%가 4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의 연령구조가 전반적으로 중·고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구분	빈도(명)	비율(%)
남성	1,107	72.3
여성	425	27.7
전체	1,5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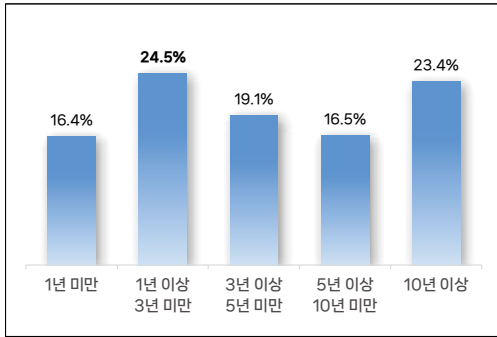
(그림 3-1) 응답자 성별



자료) 연구진 작성

구분	빈도(명)	비율(%)
10대	6	0.4
20대	115	7.5
30대	333	21.7
40대	349	22.8
50대	423	27.6
60대 이상	306	20.0
전체	1,532	100.0

(그림 3-2) 응답자 연령대



자료) 연구진 작성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미만	252	16.4
1년 이상 3년 미만	376	24.5
3년 이상 5년 미만	293	19.1
5년 이상 10년 미만	253	16.5
10년 이상	358	23.4
전체	1,5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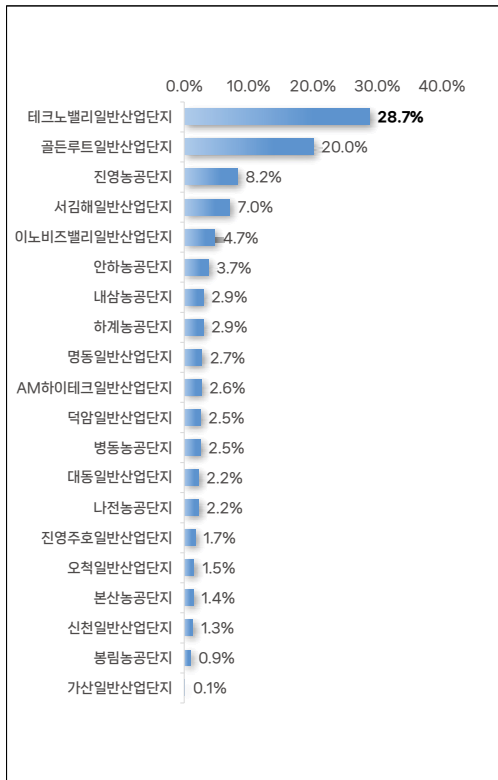
(그림 3-3) 응답자 근무기간

○ 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4.5%로 가장 높고, ‘10년 이상’ 23.4%, ‘3년 이상 5년 미만’ 19.1%, ‘5년 이상 10년 미만’ 16.5%, ‘1년 미만’ 16.4% 순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별 유효표본은 모집단 분포를 고려하여 일부 산업단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가 440명(28.7%)으로 가장 많고,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307명(20.0%), 진영농공단지 126명(8.2%), 서김해일반산업단지 108명(7.0%), 이노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 72명(4.7%)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가산일반산업단지(2명), 봉림농공단지(14명) 등 일부 산업단지는 응답자 수가 적어 산업단지별 비교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구분	빈도(명)	비율(%)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440	28.7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307	20.0
진영농공단지	126	8.2
서김해일반산업단지	108	7.0
이노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	72	4.7
안하농공단지	57	3.7
내삼농공단지	44	2.9
하계농공단지	44	2.9
명동일반산업단지	42	2.7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40	2.6
덕암일반산업단지	39	2.5
병동농공단지	39	2.5
대동일반산업단지	34	2.2
나전농공단지	33	2.2
진영주호일반산업단지	26	1.7
오척일반산업단지	23	1.5
본산농공단지	22	1.4
신천일반산업단지	20	1.3
봉림농공단지	14	0.9
가산일반산업단지	2	0.1
전체	1,5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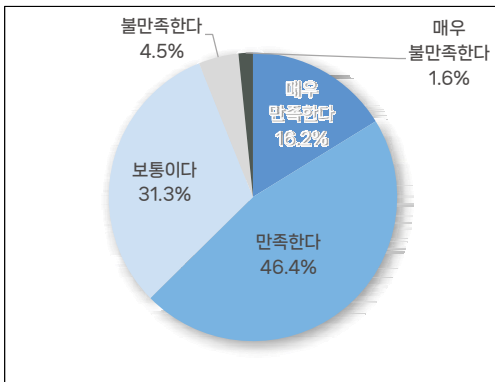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4) 응답자 근무 산업단지

2 | 사업장 근로환경 인식 및 개선 수요 분석

1)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

- 소속 사업장 내 근로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1,532명 중 ‘매우 만족한다’는 248명(16.2%), ‘만족한다’는 711명(46.4%)으로 나타나, 만족 응답은 총 959명(62.6%)임. 반면 ‘보통이다’는 479명(31.3%)이며,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를 합한 불만족 응답은 94명(6.1%)으로 나타남
 -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3.71점으로, 김해시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보통’ 응답 비중이 31.3%로 적지 않다는 점은 현재의 사업장 근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추가적인 개선 여지도 상당함을 시사함
 - 즉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 응답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려운 유보적 평가도 일정 규모 존재함
 - 이는 향후 사업장 내 근로환경 개선정책이 불만 해소 차원을 넘어, ‘보통’ 응답층을 ‘만족’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5)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

<표 3-2> 응답자 특성별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

구분		만족 (매우 만족+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매우 불만족)	전체	만족도 평균 (점)	
전체	빈도(명)	959	479	94	1,532	3.71	
	비중(%)	62.6	31.3	6.1	100.0		
성별	남성	빈도(명)	707	344	56	1,107	3.75
		비중(%)	63.9	31.1	5.1	100.0	
	여성	빈도(명)	252	135	38	425	3.61
		비중(%)	59.3	31.8	8.9	100.0	
연령대	청년층	빈도(명)	309	121	24	454	3.81
		비중(%)	68.1	26.7	5.3	100.0	
	중장년층	빈도(명)	447	264	61	772	3.64
		비중(%)	57.9	34.2	7.9	100.0	
	고령층	빈도(명)	203	94	9	306	3.75
		비중(%)	66.3	30.7	2.9	100.0	
근무기간	5년 미만	빈도(명)	574	287	60	921	3.70
		비중(%)	62.3	31.2	6.5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명)	158	81	14	253	3.71
		비중(%)	62.5	32	5.5	100.0	
	10년 이상	빈도(명)	227	111	20	358	3.73
		비중(%)	63.4	31	5.6	100.0	
산업단지	일반	빈도(명)	751	331	71	1,153	3.74
		비중(%)	65.1	28.7	6.2	100.0	
	농공	빈도(명)	208	148	23	379	3.62
		비중(%)	54.9	39.1	6.1	100.0	

주1) 청년층은 30대 이하, 중장년층은 40, 50대, 고령층은 60대 이상 근로자를 의미함

주2) 만족도 평균(점)은 5점 척도를 적용하여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는 성별, 연령대,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의 만족 비율이 63.9%, 만족도 평균은 3.75점으로 여성의 만족 비율 59.3%, 만족도 평균 3.61점 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의 불만족 비율은 8.9%로 남성의 불만족 비율 5.1%보다 높아, 사업장 내 근로환경에 대한 체감 수준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위생시설, 편의공간 등에 대한 성별 체감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청년층은 만족 비율이 68.1%, 만족도 평균은 3.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중장년층은 만족 비율이 57.9%, 만족도 평균은 3.6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비율도 7.9%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음. 고령층은 만족 비율이 66.3%, 만족도 평균이 3.75점으로 비교적 높고, 불만족 비율은 2.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는 중장년층이 사업장 환경에 대해 가장 비판적 또는 현실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수요가 이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무기간별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장기 근로자에서 만족도가 소폭 높게 나타남
 - ‘5년 미만’은 만족 비율이 62.3%, 만족도 평균은 3.7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만족 비율이 62.5%, 만족도 평균은 3.71점, ‘10년 이상’은 만족 비율은 63.4%, 만족도 평균은 3.73점으로 나타남
 -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장기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 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적응되어 있어 환경 수준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음
 - 또한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한 평가는 근무기간보다는 성별이나 연령, 산업단지 특성 등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만족도가 농공단지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산업단지는 만족 비율이 65.1%, 만족도 평균은 3.74점으로 나타난 반면, 농공단지는 만족 비율이 54.9%, 만족도 평균은 3.62점으로 나타남
 - 특히 농공단지는 ‘보통’ 응답 비율이 39.1%로 일반산업단지의 28.7%보다 높아, 전반적인 불만족 수준은 비슷하더라도 만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농공단지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사업장 내 복지·위생·편의 환경 또

는 시설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정책이 산업단지 유형별로 차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의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성, 중장년층, 농공단지 근로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가 확인됨
 - 이는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정책이 전체 평균 수준만을 기준으로 설계되기 보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사업장 유형을 중심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이후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수요 분석에서는 이러한 집단별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어떤 요소가 만족도 저하와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중복응답)

-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수요는 전반적으로 복지·생활편의 환경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복응답 기준으로 전체 응답 1,888건 중 ‘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실, 기숙사 등 복지환경’이 929건(4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작업장 내부 조명시설, 공기조화설비, 냉난방시설 등 작업환경’ 367건(19.4%), ‘작업장 외부 균열, 누수, 도색 등 외관환경’ 205건(10.9%), ‘흡연구역,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외부환경’ 199건(10.5%), ‘조경, 화단, 울타리 등 녹지환경’ 122건(6.5%) 순으로 나타남
 - 즉 응답자는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생산설비 중심의 기술적 환경보다, 일상적 근무와 직접 연결되는 복지·위생·휴게시설 개선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김해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환경 문제가 단순히 작업공정의 효율성 문제라기보다, 근로자의 일상적 생활편의와 휴식 여건의 부족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실, 기숙사 등은 근로자의 체감 만족도와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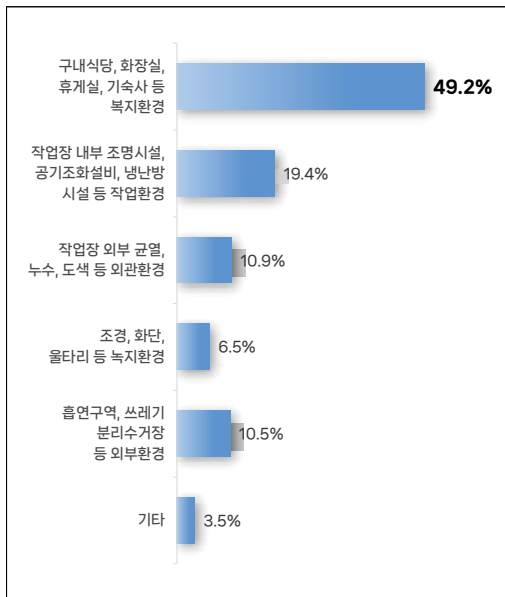
결되는 기본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정책의 우선 투자 영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작업장 내부 조명, 냉난방, 공기조화설비도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어, 복지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

○ 기타 응답에서는 사업장 내부 환경과 산업단지 외부 기반환경 일부가 함께 언급되고 있음

- 기타 의견 66건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사업장 내외부 주차시설 및 교통편(대중교통) 확충’(29건)이었고, 다음으로 ‘생활 인프라 시설(운동시설, 식당, 은행, 편의점 등) 확충’(11건), ‘기반시설(도로, 보도, 건물 등) 유지보수’(9건), ‘공기오염물질 및 주변 악취 개선’(9건) 등이 제시됨

○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복지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자료) 연구진 작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실, 기숙사 등 복지환경	929	49.2
작업장 내부 조명시설, 공기조화설비, 냉난방시설 등 작업환경	367	19.4
작업장 외부 균열, 누수, 도색 등 외관환경	205	10.9
조경, 화단, 울타리 등 녹지환경	122	6.5
흡연구역,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외부환경	199	10.5
기타	66	3.5
전체	1,888	100.0

(그림 3-6)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필요 부분(중복응답)

<표 3-3> 응답자 특성별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필요 부분(중복응답)

구분		복지환경	작업환경	외관환경	외부환경	녹지환경	기타	전체	
전체	빈도(명)	929	367	205	199	122	66	1,888	
	비중(%)	49.2	19.4	10.9	10.5	6.5	3.5	100.0	
성별	남성	빈도(명)	667	256	164	134	87	47	1,448
		비중(%)	46.1	17.7	11.3	9.3	6.0	3.2	100.0
	여성	빈도(명)	262	111	41	65	35	19	557
		비중(%)	47.0	19.9	7.4	11.7	6.3	3.4	100.0
연령대	청년층	빈도(명)	285	98	60	68	39	22	598
		비중(%)	47.7	16.4	10.0	11.4	6.5	3.7	100.0
	중장년층	빈도(명)	458	203	89	104	60	34	1,007
		비중(%)	45.5	20.2	8.8	10.3	6.0	3.4	100.0
	고령층	빈도(명)	186	66	56	27	23	10	400
		비중(%)	46.5	16.5	14.0	6.8	5.8	2.5	100.0
근무기간	5년 미만	빈도(명)	574	233	119	117	80	43	1,217
		비중(%)	47.2	19.1	9.8	9.6	6.6	3.5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명)	147	59	30	39	15	10	327
		비중(%)	45.0	18.0	9.2	11.9	4.6	3.1	100.0
	10년 이상	빈도(명)	208	75	56	43	27	13	461
		비중(%)	45.1	16.3	12.1	9.3	5.9	2.8	100.0
산업단지	일반	빈도(명)	699	259	135	155	87	56	1,491
		비중(%)	46.9	17.4	9.1	10.4	5.8	3.8	100.0
	농공	빈도(명)	230	108	70	44	35	10	514
		비중(%)	44.7	21.0	13.6	8.6	6.8	1.9	100.0

주) 청년층은 30대 이하, 중장년층은 40, 50대, 고령층은 60대 이상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성별로는 남성 46.1%, 여성 47.0%로 모두 복지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연령대별로도 청년층 47.7%, 중장년층 45.5%, 고령층 46.5%로 공통적으로 복지환경 개선이 1순위로 나타남
-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 47.2%, '5년 이상 10년 미만' 45.0%, '10년 이상' 45.1%로 나타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복지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우선되는 것으로 확인됨
- 산업단지 유형별로도 일반산업단지 46.9%, 농공단지 44.7%로 모두 복지환경 개선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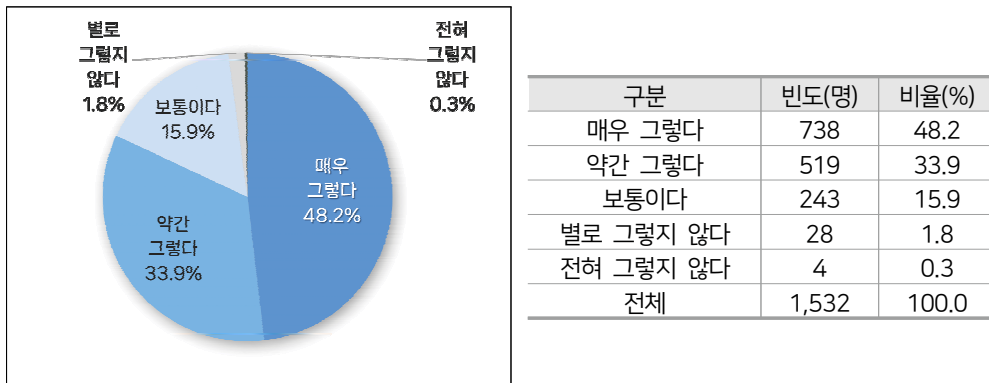
○ 다만 복지환경 다음의 우선순위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여성은 남성보다 작업환경(여성 19.9%, 남성 17.7%)과 외부환경(여성 11.7%, 남성 9.3%)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은 외부환경 비중이 1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흡연구역이나 분리수거장 등 사업장 외부의 생활편의 환경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됨
 - 중장년층은 작업환경 비중이 20.2%로 세 연령대 중 가장 높아, 조명,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등 실제 작업 여건과 직결된 환경개선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은 외관환경 비중이 14.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균열, 누수, 도색 등 노후시설 정비에 대한 체감 요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무기간과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서도 개선 수요의 세부 양상은 달라짐
- 5년 미만 근로자는 복지환경(47.2%)과 함께 작업환경(19.1%)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초기 근무 적응과 직접 관련된 생활편의 및 작업조건 개선 수요가 큰 것으로 해석됨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는 외부환경 비중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장 주변 부대시설의 관리 수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외관환경 비중이 1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장기간 누적된 노후 시설의 문제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농공단지가 일반산업단지보다 작업환경(농공 21.0%, 일반 17.4%)과 외관환경(농공 13.6%, 일반 9.1%) 비중이 높게 나타나, 농공단지에서 시설 노후화 및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정책 수립 시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복지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되, 집단별 특성과 사업장 유형에 따라 보완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 조사 결과,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은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 1,532명 중 ‘매우 그렇다’는 738명(48.2%), ‘약간 그렇다’는 519명(33.9%)으로 나타나, 동의 응답은 총 1,257명(82.1%)임
 - 반면 ‘보통이다’는 243명(15.9%)이며,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동의 응답은 32명(2.1%)에 그침
 -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4.28점으로,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앞서 확인한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의 효과에 대해 높은 기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즉 현재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근로자는 환경개선 시 자신의 근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근로자 만족도 제고를 통한 조직 안정성 및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7)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표 3-4> 응답자 특성별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구분		동의 (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	보통	비동의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평균 (점)	
전체	빈도(명)	1,257	243	32	1,532	4.28	
	비중(%)	82	15.9	2.1	100		
성별	남성	빈도(명)	915	169	23	1,107	4.29
		비중(%)	82.7	15.3	2.1	100	
	여성	빈도(명)	342	74	9	425	4.24
		비중(%)	80.5	17.4	2.1	100	
연령대	청년층	빈도(명)	369	80	5	454	4.27
		비중(%)	81.3	17.6	1.1	100	
	중장년층	빈도(명)	625	126	21	772	4.24
		비중(%)	81	16.3	2.7	100	
	고령층	빈도(명)	263	37	6	306	4.41
		비중(%)	85.9	12.1	2	100	
근무기간	5년 미만	빈도(명)	754	146	21	921	4.28
		비중(%)	81.9	15.9	2.3	1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명)	207	40	6	253	4.23
		비중(%)	81.8	15.8	2.4	100	
	10년 이상	빈도(명)	296	57	5	358	4.32
		비중(%)	82.7	15.9	1.4	100	
산업 단지	일반	빈도(명)	941	187	25	1,153	4.23
		비중(%)	81.6	16.2	2.2	100	
	농공	빈도(명)	316	56	7	379	4.44
		비중(%)	83.4	14.8	1.8	100	

주1) 청년층은 30대 이하, 중장년층은 40, 50대, 고령층은 60대 이상 근로자를 의미함

주2) 평균(점)은 5점 척도를 적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인식이 강함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에서도 대부분의 집단에서 동의 응답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일관되게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동의 비율은 82.7%, 인식 평균은 4.29점, 여성의 동의 비율은 80.5%, 인식 평균은 4.24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의 동의 비율은 85.9%, 인식 평균은 4.41점으로 가장 높고, 청년층의 동의 비율은 81.3%, 인식 평균은 4.27점, 중장년층의 동의 비율은 81.0%, 인식 평균은 4.24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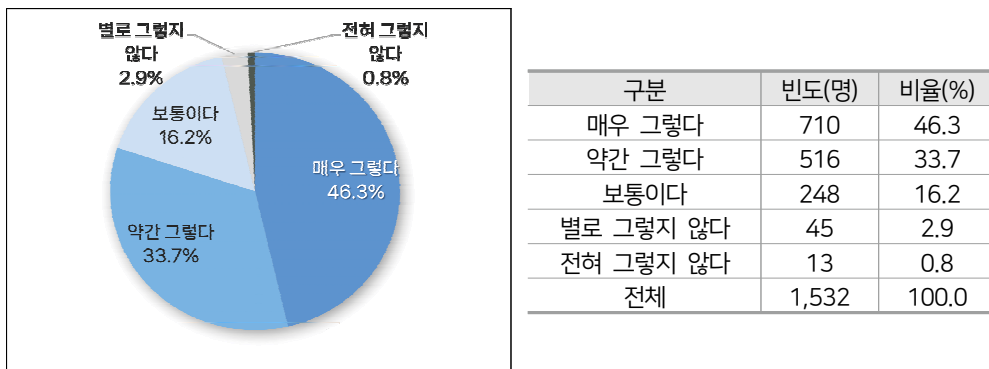
- 특징적인 점은 현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성, 중장년층 집단에서 근로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임. 이는 현재의 환경에 대한 평가는 다소 비판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 근무자의 동의 비율은 82.7%, 인식 평균은 4.32점으로 가장 높고, 5년 미만의 동의 비율은 81.9%, 인식 평균은 4.28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동의 비율은 81.8%, 인식 평균은 4.23점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의 동의 비율은 81.6%, 인식 평균은 4.23점, 농공단지의 동의 비율은 83.4%, 인식 평균은 4.44점으로 나타나, 농공단지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개선의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앞서 농공단지는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가 낮고, 복지환경·작업환경·외관환경 등의 개선 수요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여기에 사업장 환경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은 일반산업단지보다 더 높게 나타나, 농공단지에서의 환경개선 사업이 체감 효과 측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함

4)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청년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 인식

- 조사 결과,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은 청년 근로자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 1,532명 중 ‘매우 그렇다’는 710명(46.3%), ‘약간 그렇다’는 516명(33.7%)으로 나타나, 동의 응답은 총 1,226명(80.0%)임. 반면 ‘보통이다’는 248명(16.2%)이며,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동의 응답은 58명(3.8%)으로 나타남
 -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4.22점으로,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청년 인력 확보에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비교적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앞서 확인한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과도 연결됨
 - 즉 응답자들은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현재 재직자의 만족도 제고에 그치지 않고, 신규 인력 특히 청년층의 유입과 채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다만 근무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인식이 82.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년 채용에 대한 긍정 응답은 80.0%로 소폭 낮게 나타남
 - 이는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청년 채용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그 외 임금수준, 통근여건, 지역 정주여건, 업종 선호도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함을 시사함

-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에서도 대부분의 집단에서 동의 응답 비율이 80% 전후로 나타나, 사업장 환경개선이 청년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확인됨
 - 성별로는 남성의 동의 비율이 81.0%, 인식 평균이 4.24점, 여성의 동의 비율은 77.4%, 인식 평균은 4.15점으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의 동의 비율이 85.6%, 인식 평균이 4.36점으로 가장 높고, 중장년층의 동의 비율은 78.9%, 인식 평균은 4.19점, 청년층의 동의 비율은 78.2%, 인식 평균은 4.17점으로 나타남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8)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청년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 인식

<표 3-5> 응답자 특성별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 청년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 인식

구분		동의 (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	보통	비동의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평균 (점)	
전체	빈도(명)	1,226	248	58	1,532	4.22	
	비중(%)	80.0	16.2	3.8	100.0		
성별	남자	빈도(명)	897	171	39	1,107	4.24
		비중(%)	81.0	15.4	3.5	100.0	
	여자	빈도(명)	329	77	19	425	4.15
		비중(%)	77.4	18.1	4.5	100.0	
연령대	청년층	빈도(명)	355	83	16	454	4.17
		비중(%)	78.2	18.3	3.5	100.0	
	중장년층	빈도(명)	609	128	35	772	4.19
		비중(%)	78.9	16.6	4.5	100.0	
	고령층	빈도(명)	262	37	7	306	4.36
		비중(%)	85.6	12.1	2.3	100.0	
근무기간	5년 미만	빈도(명)	733	150	38	921	4.22
		비중(%)	79.6	16.3	4.1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명)	195	49	9	253	4.11
		비중(%)	77.1	19.4	3.6	100.0	
	10년 이상	빈도(명)	298	49	11	358	4.29
		비중(%)	83.2	13.7	3.1	100.0	
산업단지	일반	빈도(명)	913	196	44	1,153	4.16
		비중(%)	79.2	17.0	3.8	100.0	
	농공	빈도(명)	313	52	14	379	4.38
		비중(%)	82.6	13.7	3.7	100.0	

주1) 청년층은 30대 이하, 중장년층은 40, 50대, 고령층은 60대 이상 근로자를 의미함

주2) 평균(점)은 5점 척도를 적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인식이 강함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 근무자의 동의 비율이 83.2%, 인식 평균이 4.29점으로 가장 높고, 5년 미만의 동의 비율은 79.6%, 인식 평균은 4.22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동의 비율은 77.1%, 인식 평균은 4.11점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의 동의 비율이 79.2%, 인식 평균이 4.16점, 농공단지의 동의 비율은 82.6%, 인식 평균은 4.38점으로 나타나 농공단지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개선의 채용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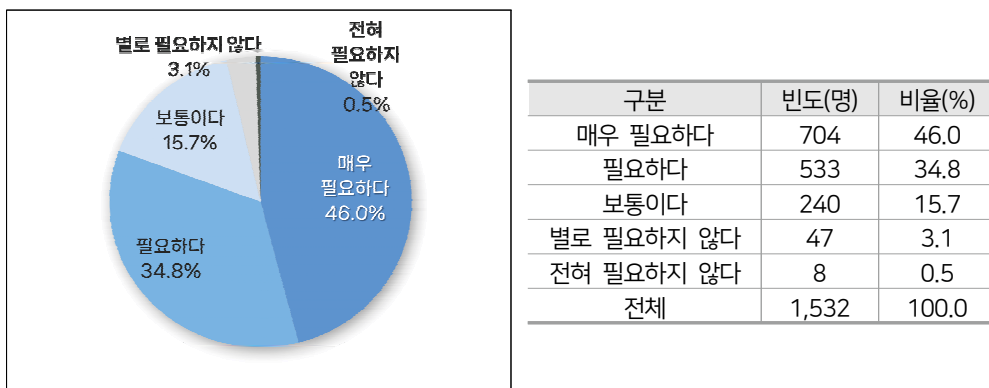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은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청년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중장년층은 현재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는 청년층과 고령층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청년 채용 효과에 대해서는 78.9%가 동의하고 있음. 이는 현재 환경에 대한 평가는 다소 비판적이나, 사업장 환경개선이 신규 인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인식이 존재함을 의미함
 - 또한 농공단지에는 앞선 결과에서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가 다소 낮고, 작업환경·외관환경 개선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럼에도 사업장 환경개선이 청년 근로자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은 일반산업단지보다 더 높았음

3 | 산업단지 환경개선 인식 및 수요 분석

1)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 조사 결과, 산업단지 환경개선은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1,532명 중 ‘매우 필요하다’는 704명(46.0%), ‘필요하다’는 533명(34.8%)으로 나타나, 필요 응답은 총 1,237명(80.8%)임. 반면 ‘보통이다’는 240명(15.7%)이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한 불필요 응답은 55명(3.6%)에 불과함
 - 필요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4.23점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적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매우 필요하다’ 응답이 전체의 46.0%를 차지한다는 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단순한 보조적 과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정책과제임을 시사함

- 앞서 살펴본 사업장 내부 근로환경 인식과 비교할 때,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는 사업장 내부 근로환경 만족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근로자들이 소속 사업장의 근로환경 만족도와 산업단지 차원의 환경개선 필요를 별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9)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표 3-6> 응답자 특성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구분		필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	불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평균 (점)	
전체	빈도(명)	1,237	240	55	1,532	4.23	
	비중(%)	80.8	15.7	3.6	100.0		
성별	남자	빈도(명)	908	161	38	1,107	4.26
		비중(%)	82.0	14.5	3.4	100.0	
	여자	빈도(명)	329	79	17	425	4.14
		비중(%)	77.4	18.6	4.0	100.0	
연령대	청년층	빈도(명)	348	86	20	454	4.15
		비중(%)	76.7	18.9	4.4	100.0	
	중장년층	빈도(명)	616	132	24	772	4.19
		비중(%)	79.8	17.1	3.1	100.0	
	고령층	빈도(명)	273	22	11	306	4.41
		비중(%)	89.2	7.2	3.6	100.0	
근무기간	5년 미만	빈도(명)	738	146	37	921	4.21
		비중(%)	80.1	15.9	4.0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명)	190	53	10	253	4.09
		비중(%)	75.1	20.9	4.0	100.0	
	10년 이상	빈도(명)	309	41	8	358	4.35
		비중(%)	86.3	11.5	2.2	100.0	
산업단지	일반	빈도(명)	920	188	45	1,153	4.16
		비중(%)	79.8	16.3	3.9	100.0	
	농공	빈도(명)	317	52	10	379	4.41
		비중(%)	83.6	13.7	2.6	100.0	

주1) 청년층은 30대 이하, 중장년층은 40, 50대, 고령층은 60대 이상 근로자를 의미함

주2) 평균(점)은 5점 척도를 적용하여 '매우 필요하다' 5점, '필요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 2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함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이러한 결과는 산업단지 외부 기반환경과 사업장 내부 환경이 결합되어 실제 근로환경을 구성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김해시의 근로환경 정책이 개별 사업장 단위의 지원을 넘어 산업단지 차원의 공간환경 개선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성은 농공단지, 고령층, 장기근무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필요 비율이 82.0%, 필요도 평균이 4.26점, 여성의 필요 비율은 77.4%, 필요도 평균은 4.14점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의 필요 비율이 89.2%, 필요도 평균이 4.41점으로 가장 높고, 중장년층은 필요 비율이 79.8%, 필요도 평균이 4.19점, 청년층은 필요 평균이 76.7%, 필요도 평균이 4.15점으로 나타남
 -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 근무자의 필요 비율이 86.3%, 필요도 평균이 4.35점으로 가장 높고, 5년 미만은 필요 비율이 80.1%, 필요도 평균이 4.21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필요 비율이 75.1%, 필요도 평균이 4.09점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의 필요 비율이 79.8%, 필요도 평균이 4.16점인 반면, 농공단지는 필요 비율이 83.6%, 필요도 평균이 4.41점으로 나타남
-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는 전체적으로 높지만, 특히 산업단지의 노후화나 외부 기반시설 부족을 더 오래, 더 직접적으로 경험한 집단일수록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 특히 농공단지는 앞선 사업장 내부 근로환경 분석에서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작업환경 및 외관환경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난 바 있음
 - 여기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까지 일반산업단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농공단지 근로자가 사업장 내부 문제뿐 아니라 산업단지 외부의 기반환경 문제까지 더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함

2)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부문(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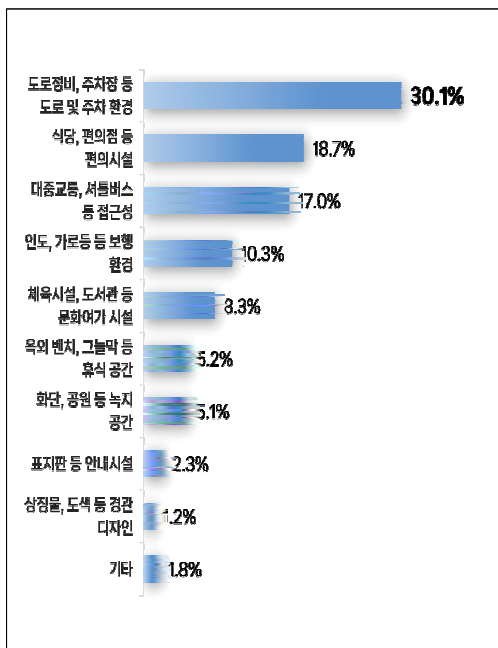
-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도로 및 주차 환경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남
- 중복응답 기준으로 전체 응답 3,000건 중 ‘도로정비, 주차장 등 도로 및 주차 환경’이 904건(3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 560건(18.7%), ‘대중교통, 셔틀버스 등 접근성’ 510건(17.0%), ‘인도, 가로등 등 보행환경’ 309건(10.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 248건(8.3%), ‘옥외 벤치, 그늘막 등 휴식 공간’ 156건(5.2%), ‘화단, 공원 등 녹지 공간’ 153건(5.1%),

‘표지판 등 안내시설’ 69건(2.3%), ‘상징물, 도색 등 경관 디자인’ 37건(1.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수요가 경관이나 상징성보다 출퇴근과 이동, 주차, 기본 편의시설 같은 생활 밀착형 기반여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기타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악취 개선’, ‘안전 및 환경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도로 및 주차 환경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우선적인 개선 필요 항목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차이도 존재함.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도로 및 주차 환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여성은 접근성과 보행 환경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임

- 남성은 도로 및 주차 환경이 32.4%(675건)로 가장 높고, 편의시설 19.1%(398건), 접근성 16.1%(336건)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비율(%)
도로정비, 주차장 등 도로 및 주차 환경	904	30.1
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	560	18.7
대중교통, 셔틀버스 등 접근성	510	17.0
인도, 가로등 등 보행 환경	309	10.3
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	248	8.3
옥외 벤치, 그늘막 등 휴식 공간	156	5.2
화단, 공원 등 녹지 공간	153	5.1
표지판 등 안내시설	69	2.3
상징물, 도색 등 경관 디자인	37	1.2
기타	54	1.8
전체	3,000	100.0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10)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부분(중복 응답)

- 여성은 도로 및 주차 환경이 25.0%(229건)로 가장 높지만, 접근성이 19.0%(174건)로 편의시설 17.7%(162건)보다 높게 나타났고, 보행환경도 12.0%(110건)로 남성의 9.5%(199건)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자가용 중심의 산업단지 통근구조와 보행 여건이 여성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 연령대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도로 및 주차 환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령층일수록 도로·주차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은 도로 및 주차 환경 29.8%(277건), 편의시설 20.9%(194건), 접근성 17.5%(162건) 순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은 도로 및 주차 환경 28.9%(438건), 편의시설 19.3%(292건), 접근성 16.8%(255건) 순으로 나타남
 - 고령층은 도로 및 주차 환경이 34.0%(189건)로 가장 높고, 접근성 16.7%(93건), 편의시설 13.3%(74건) 순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도로·주차 문제에 대한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산업단지 내 이동 편의와 주차 여건, 차량 동선의 안전성이 고령 근로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근무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도로 및 주차 환경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확인됨
- 5년 미만은 도로 및 주차 환경 28.1%(517건), 편의시설 19.2%(353건), 접근성 17.8%(328건) 순으로 나타남
 -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도로 및 주차 환경 32.7%(159건), 편의시설 19.8%(96건), 접근성 16.5%(80건) 순이며, 10년 이상은 도로 및 주차 환경 33.9%(228건), 편의시설 16.5%(111건), 접근성 15.2%(102건) 순으로 나타남
 - 근무기간이 길수록 도로 및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 인식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근무기간에 따라 해당 부문에 대한 불편이 누적되어 개선 필요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산업단지 유형별로도 두 유형 모두 도로 및 주차 환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문제는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 공통 과제로 볼 수 있음
 - 일반산업단지는 도로 및 주차 환경 29.8%(676건)로 가장 높고, 대중교통·셔틀버스 등 접근성 19.0%(432건), 체육시설·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 17.3%(393건) 순으로 나타남
 - 농공단지는 도로 및 주차 환경 31.1%(228건)이 가장 높고, 대중교통·셔틀버스 등 접근성 17.5%(128건), 체육시설·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 16.0%(117건) 순으로 나타남

<표 3-7> 응답자 특성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부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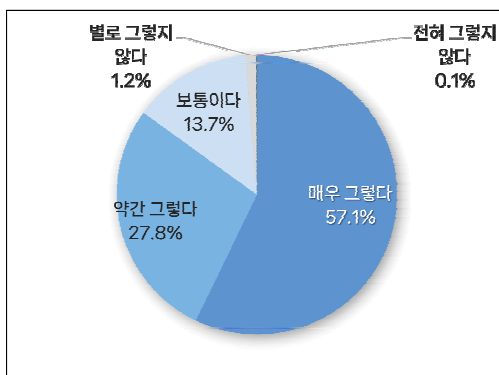
구분		도로 주차 환경	편의 시설	접근성	보행 환경	문화 여가 시설	휴식 공간	녹지 공간	안내 시설	경관 디자인	기타	전체	
전체	빈도(명)	904	560	510	309	248	156	153	69	37	54	3,000	
	비중(%)	30.1	18.7	17.0	10.3	8.3	5.2	5.1	2.3	1.2	1.8	100.0	
성별	남성	빈도(명)	675	398	336	199	190	95	97	42	23	30	2,084
		비중(%)	32.4	19.1	16.1	9.5	9.1	4.6	4.7	2.0	1.1	1.4	100.0
	여성	빈도(명)	229	162	174	110	58	61	56	27	15	24	916
		비중(%)	25.0	17.7	19.0	12.0	6.3	6.7	6.1	2.9	1.6	2.6	100.0
연령대	청년층	빈도(명)	277	194	162	92	82	49	40	15	6	11	928
		비중(%)	29.8	20.9	17.5	9.9	8.8	5.3	4.3	1.6	0.6	1.2	100.0
	중장년층	빈도(명)	438	292	255	163	115	78	82	37	25	31	1,516
		비중(%)	28.9	19.3	16.8	10.8	7.6	5.1	5.4	2.4	1.6	2.0	100.0
	고령층	빈도(명)	189	74	93	54	51	29	31	17	6	12	556
		비중(%)	34.0	13.3	16.7	9.7	9.2	5.2	5.6	3.1	1.1	2.2	100.0
근무기간	5년 미만	빈도(명)	517	353	328	204	167	93	89	41	19	30	1,841
		비중(%)	28.1	19.2	17.8	11.1	9.1	5.1	4.8	2.2	1.0	1.6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명)	159	96	80	39	36	26	27	10	6	7	486
		비중(%)	32.7	19.8	16.5	8.0	7.4	5.3	5.6	2.1	1.2	1.4	100.0
	10년 이상	빈도(명)	228	111	102	66	45	37	37	18	12	17	673
		비중(%)	33.9	16.5	15.2	9.8	6.7	5.5	5.5	2.7	1.8	2.5	100.0
산업단지	일반	빈도(명)	676	231	432	194	393	123	108	44	24	43	2,268
		비중(%)	29.8	10.2	19.0	8.6	17.3	5.4	4.8	1.9	1.1	1.9	100.0
	농공	빈도(명)	228	78	128	54	117	30	48	25	13	11	732
		비중(%)	31.1	10.7	17.5	7.4	16.0	4.1	6.6	3.4	1.8	1.5	100.0

주) 청년층은 30대 이하, 중장년층은 40, 50대, 고령층은 60대 이상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이러한 결과는 김해시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책의 우선순위가 도로·주차·접근성 개선과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에 놓여야 함을 시사함
 - 즉 산업단지 환경조성 정책은 경관 정비나 상징물 조성보다는 도로 정비,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 연계, 보행 안전, 식당·편의점 등 기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3)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 조사 결과, 산업단지 환경개선은 사업장 내부 환경개선보다도 근무 만족도 향상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1,532명 중 ‘매우 그렇다’는 875명(57.1%), ‘약간 그렇다’는 426명(27.8%)으로, 동의 응답은 총 1,301명(84.9%)인 반면, ‘보통이다’는 210명(13.7%)이며,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동의 응답은 21명(1.3%)에 그침
 - 인식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4.41점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의 근무 만족도 영향 인식 평균 4.28점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근로자들이 개별 사업장 내부 환경 못지않게, 산업단지 차원의 도로, 주차, 접근성, 편의시설 등 외부 기반환경을 자신의 근무 만족도와 직접 연결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11)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표 3-8> 응답자 특성별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식

구분		동의 (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	보통	비동의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평균 (점)		
전체	빈도(명)	1,301	210	21	1,532	4.41		
	비중(%)	84.9	13.7	1.3	100			
성별	남성	빈도(명)	941	150	16	1,107	4.4	
		비중(%)	85	13.6	1.4	100		
	여성	빈도(명)	360	60	5	425	4.41	
		비중(%)	84.7	14.1	1.2	100		
연령대	청년층	빈도(명)	385	64	5	454	4.38	
		비중(%)	84.8	14.1	1.1	100		
	중장년층	빈도(명)	653	107	12	772	4.39	
		비중(%)	84.6	13.9	1.6	100		
	고령층	빈도(명)	263	39	4	306	4.47	
		비중(%)	85.9	12.7	1.3	100		
근무 기간	5년 미만	빈도(명)	781	127	13	921	4.4	
		비중(%)	84.8	13.8	1.4	1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명)	215	36	2	253	4.35	
		비중(%)	85	14.2	0.8	100		
	10년 이상	빈도(명)	305	47	6	358	4.45	
		비중(%)	85.2	13.1	1.7	100		
	산업 단지	일반	빈도(명)	968	167	18	1,153	4.36
			비중(%)	84	14.5	1.6	100	
농공		빈도(명)	333	43	3	379	4.54	
		비중(%)	87.9	11.3	0.8	100		

주1) 청년층은 30대 이하, 중장년층은 40, 50대, 고령층은 60대 이상 근로자를 의미함

주2) 평균(점)은 5점 척도를 적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인식이 강함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만족도 제고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성별 격차는 크지 않음
 - 남성은 동의 비율이 85.0%(941명), 인식 평균이 4.40점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동의 비율이 84.7%(360명), 인식 평균이 4.41점으로 나타남
 - 이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효과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고령층은 동의 비율이 85.9%(263명), 인식 평균이 4.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층은 동의 비율 84.8%(385명), 인식 평균 4.38점, 중장년층은 동의 비율 84.6%(653명), 인식 평균 4.39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남
 - 특히 고령층에서 인식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 접근성, 보행 여건과 같은 외부 환경의 질이 고령 근로자에게 더 직접적인 만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앞서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에서도 고령층의 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근로자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모두 강하게 인식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음
- 근무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를 다소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됨
- 5년 미만 근로자는 동의 비율이 84.8%, 인식 평균이 4.40점으로 나타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동의 비율이 85.0%, 인식 평균이 4.35점으로 나타남. 10년 이상은 동의 비율이 85.2%, 인식 평균이 4.45점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무기간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근무기간이 길수록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실제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다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만족도 제고 효과를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산업단지는 동의 비율이 84.0%(968명), 인식 평균이 4.36점으로 나타난 반면, 농공단지는 동의 비율이 87.9%(333명), 인식 평균이 4.54점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앞서 농공단지에서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와 시설 개선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관성을 가짐

- 다시 말해 농공단지 근로자는 산업단지 차원의 환경 여건이 현재 만족도에 미치는 제약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선 사업이 실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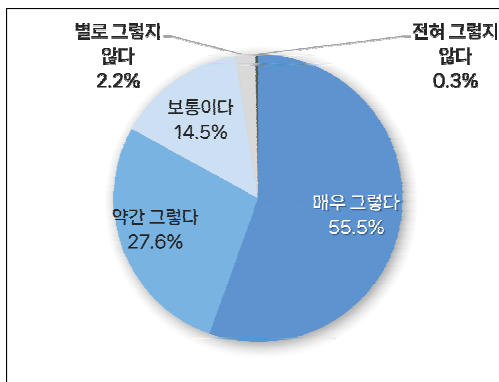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는 실질적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업장 환경개선 시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보다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 시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는 개별 사업장보다 산업단지 차원의 외부 생활·근무 기반에 더 큰 제약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김해시의 근로환경 개선정책은 개별 기업 지원에 머물기보다, 산업단지 차원의 개선을 함께 추진할 때 더 큰 정책 체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

4)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청년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 인식

○ 조사 결과, 산업단지 환경개선은 청년 근로자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 1,532명 중 ‘매우 그렇다’는 850명(55.5%), ‘약간 그렇다’는 423명(27.6%)으로 나타나, 동의 응답은 총 1,273명(83.1%)임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12)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청년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 인식

<표 3-9> 응답자 특성별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청년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 인식

구분		동의 (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	보통	비동의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평균 (점)	
전체	빈도(명)	1,273	222	37	1,532	4.36	
	비중(%)	83.1	14.5	2.5	100.0		
성별	남자	빈도(명)	924	157	26	1,107	4.38
		비중(%)	83.5	14.2	2.3	100.0	
	여자	빈도(명)	349	65	11	425	4.31
		비중(%)	82.1	15.3	2.6	100.0	
연령 대	청년층	빈도(명)	372	73	9	454	4.33
		비중(%)	82.0	16.1	2.0	100.0	
	중장년층	빈도(명)	657	114	20	772	4.34
		비중(%)	85.1	14.8	2.6	100.0	
	고령층	빈도(명)	263	35	8	306	4.45
		비중(%)	85.9	11.4	2.6	100.0	
근무 기간	5년 미만	빈도(명)	758	136	19	921	4.36
		비중(%)	82.8	14.8	2.1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빈도(명)	212	38	3	253	4.3
		비중(%)	83.8	15.0	1.2	100.0	
	10년 이상	빈도(명)	300	48	10	358	4.41
		비중(%)	83.8	13.4	2.8	100.0	
산업 단지	일반	빈도(명)	950	179	24	1,153	4.33
		비중(%)	82.4	15.5	2.1	100.0	
	농공	빈도(명)	323	43	13	379	4.46
		비중(%)	85.2	11.3	3.4	100.0	

주1) 청년층은 30대 이하, 중장년층은 40, 50대, 고령층은 60대 이상 근로자를 의미함

주2) 평균(점)은 5점 척도를 적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인식이 강함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반면 '보통이다'는 222명(14.5%)이며,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동의 응답은 37명(2.5%)으로 나타남
- 인식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4.36점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청년 인력 확보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비교적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매우 그렇다'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5%로 나타난 점은, 산업단지 내 환경 여건이 청년층의 근무지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청년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남성의 인식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남성은 동의 비율이 83.5%(924명), 인식 평균이 4.38점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동의 비율이 82.1%(349명), 인식 평균이 4.31점으로 나타남
 - 여성은 보통과 비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산업단지 환경개선만으로는 청년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에서 청년 채용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인식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청년층은 동의 비율이 82.0%(372명), 인식 평균이 4.33점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은 동의 비율이 85.1%(657명), 인식 평균이 4.34점으로 나타남
 - 고령층은 동의 비율이 85.9%(263명), 인식 평균이 4.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청년 채용 효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확인됨

- 근무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청년 채용 효과를 다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됨
 - 5년 미만은 동의 비율이 82.8%(758명), 인식 평균이 4.36점으로 나타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동의 비율이 83.8%(212명), 인식 평균이 4.30점으로 나타남
 - 10년 이상은 동의 비율이 83.8%(300명), 인식 평균이 4.41점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산업단지 환경을 장기간 경험한 집단일수록 청년 인력 유입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외부 기반 환경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청년 채용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산업단지는 동의 비율이 82.4%(950명), 인식 평균이 4.33점으로 나타

난 반면, 농공단지는 동의 비율이 85.2%(323명), 인식 평균이 4.46점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앞서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와 도로·주차 접근성 등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공단지 근로자는 산업단지 차원의 생활·근무 기반이 현재 청년 유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채용 여건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인식함을 시사함

- 이처럼 산업단지 환경개선은 청년 채용 여건 개선에도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다만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근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청년 채용에 대한 영향 인식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청년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외 요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함을 시사함

IV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영향 요인 분석

1 | 분석 개요

1) 분석의 목적

-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근로환경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사업장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 효과 등의 인식을 빈도, 평균과 같은 기술통계 중심으로 확인하였음. 즉 집단 간 차이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와 그 차이를 설명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음
 - 본 장에서는 인식 조사 결과의 기술통계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제5장에서 정책 대상과 공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장의 실증분석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임
 - 첫째, 성별, 연령대, 근무기간,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와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환경개선 효과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고자 함
 - 둘째, 환경개선 필요 항목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어떤 응답자 집단과 어떤 산업단지 유형에서 특정 개선 항목에 대한 수요가 더 집중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2) 분석 자료 및 변수 구성

(1) 분석 자료

- 본 장의 분석 자료는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인식 조사에서 수집된 원자료(raw data)와 김해시 산업단지의 외부 특성을 결합한 자료임

- 인식 조사 원자료는 응답자 식별값(ID), 성별, 연령대, 근무기간, 근무 산업단지, 산업단지 유형,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사업장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 효과 인식, 사업장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항목 등의 변수로 구성됨
- 산업단지별 구조적 특성 변수는 산업단지 노후도, 지정면적, 소속 근로자 수, 소기업 비중, 산업시설용지 비중, 버스노선 수로 구성됨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개별 응답자의 인식 자료와 산업단지별 특성 자료를 함께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인 수준과 산업단지 수준의 분석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짐

(2) 변수 구성

○ 인식 변수

-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satisfaction*),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needs*) 등 제3장에서 도출한 주요 인식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모든 5점 척도 변수는 값이 높을수록 만족도, 필요도, 긍정적 인식 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사업장 환경개선 선호 부문(*firm_preference*), 산업단지 환경개선 선호 부문(*complex_preference*)은 중복응답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 환경개선 필요 항목은 총 5가지(복지환경, 작업환경, 외관환경, 녹지환경, 외부환경),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항목은 총 9가지(주차환경, 보행환경, 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녹지공간, 휴식공간, 안내시설, 경관디자인)로 구성됨

○ 특성 변수

- 응답자 특성 변수는 성별(*gender*), 연령대(*age*), 근무기간(*period*), 산업단지 유형(*type*) 등 개인별 수준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 구성함
- 산업단지 특성 변수는 산업단지 노후도(*years*), 산업단지 지정면적(*s_meters*), 근로자 수(*em*), 소기업 비중(*small_firm*), 산업시설용지 비중(*industry_land*), 버스노선 수(*bus*) 등 산업단지의 특징을 설명하는 변수로 구성함

<표 4-1> 분석 변수 구성

구분	변수명	내용	측정	
인식 변수	<i>satisfaction</i>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	5점 척도 변수, 값이 클수록 만족도·필요도·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i>needs</i>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i>s_effect</i>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의 근무 만족도 영향 인식		
	<i>young_firm</i>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의 청년 고용 영향 인식		
	<i>needs_effect</i>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근무만족도 영향 인식		
	<i>young_complex</i>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청년고용 영향 인식		
	<i>firm_preference</i>	사업장 환경개선 필요 부문(5개)	중복응답, 항목별 선택 여부 반영	
<i>complex_preference</i>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부문(9개)			
특성 변수	응답자	<i>gender</i>	성별	1=남성, 2=여성
		<i>age</i>	연령대	1=청년층, 2=중장년층, 3=고령층
		<i>period</i>	근무기간	1=5년 미만, 2=5년 이상 10년 미만, 3=10년 이상
		<i>type</i>	산업단지 유형	1=일반산업단지, 2=농공단지
	산업 단지	<i>years</i>	산업단지 노후도	1=노후산단, 2=중간산단, 3=신규산단
		<i>s_meters</i>	산업단지 지정 면적	1=소, 2=중, 3=대
		<i>em</i>	산업단지 소속 근로자 수	1=소, 2=중, 3=대
		<i>small_firm</i>	소기업 비중	1=낮음, 2=보통, 3=높음
		<i>industry_land</i>	산업시설용지 비중	1=낮음, 2=보통, 3=높음
		<i>bus</i>	버스노선 수	1=적음, 2=보통, 3=많음

주) 산업단지 특성 변수의 설정 기준은 제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
자료) 연구진 작성

3) 분석 방법 및 절차

- 본 장의 분석은 응답자 특성과 산업단지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수행함
 - 제2절은 인식 조사 응답자 1,532명을 분석단위로 하여, 성별·연령대·근무기간·산업단지 유형에 따른 인식 변수 차이와 선호 항목 차이를 검토함
 - 제3절은 산업단지 20개소를 분석단위로 하여, 산업단지 노후도와 외부 특성에 따른 인식과 선호 항목 차이를 비교함
 - 이러한 이원적 분석 구조는 개인적 특성과 산업단지 구조적 조건의 영향

을 구분하여 해석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³⁾
 - 1단계: 5점 척도 인식 변수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중복응답 항목 선택률 등 기초통계량 산출
 - 2단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는 t -검정 또는 분산분석으로 검정
 - 3단계: 중복응답 문항은 항목별 선택 비율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χ^2 -검정 적용
 - 4단계: 산업단지 특성은 표본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Kruskal-Wallis 검정 적용
 - 5단계: 검정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및 차이 등 종합 해석

3) 분석 절차에서 활용한 여러 검정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

2 | 응답자 특성별 근로환경 영향 요인 분석

1) 응답자 특성별 인식 변수 차이 검정

- 본 항에서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근로환경 관련 인식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음
- 응답자 특성별 차이 검정 결과, 성별은 일부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남성은 여성보다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와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 반면 사업장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효과 인식에서는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성별에 따라 현재 근로환경 수준과 외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체감은 다를 수 있으나,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 연령대는 응답자 특성 가운데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인 변수임
 - 고령층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와 환경개선의 근무만족도, 청년고용 영향 인식에서 모두 높은 평균을 보였음
 - 반면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장년층은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산업단지 외부 환경을 보다 직접적인 근로환경 요소로 인식하고,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근무기간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 이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산업단지 외부 환경의 불편을 누적적으로 경험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반면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와 환경개선 효과 인식에서는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근로자가 소속된 산업단지 유형은 6개 인식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일관된 변수임
 - 농공단지 근로자는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보다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는 낮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인식은 더 높게 나타났음
 - 이는 농공단지 근로자가 현재 환경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반면, 향후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는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응답자 특성 중 산업단지 유형은 현재 근로환경 인식 수준과 향후 정책 수요를 함께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음

<표 4-2> 응답자 특성별 주요 인식 변수 차이 검정 결과

변수		성별	연령대	근무기간	산업단지 유형
		<i>gender</i>	<i>age</i>	<i>period</i>	<i>type</i>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	<i>satisfaction</i>	2.860**	5.783***	0.211	2.561**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의 근무만족도 영향 인식	<i>s_effect</i>	1.219	4.868***	1.040	-4.422***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의 청년고용 영향 인식	<i>young_firm</i>	1.821*	4.851***	2.976*	-4.049***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i>needs</i>	2.328**	9.401***	6.793***	-4.972***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근무만족도 영향 인식	<i>needs_effect</i>	-0.053	1.535	1.354	-3.944***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청년고용 영향 인식	<i>young_complex</i>	1.356	2.222	1.192	-2.750***

주1) 성별과 산업단지 유형은 독립표본 t-검정 결과이며, 연령대와 근무기간은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임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미만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2) 응답자 특성별 선호 항목 분석

- 본 항에서는 사업장 환경개선 필요 항목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항목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 특성에 따른 항목별 선택률을 도출하고,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음

- 각 항목은 선택=1, 미선택=0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 특성과 항목 선택 여부 간의 관련성은 χ^2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음

(1) 응답자 특성별 사업장 환경개선 선호 항목 분석

- 사업장 환경개선 선호 항목에 대한 χ^2 -검정 결과, 복지환경과 녹지환경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반면 작업환경, 외관환경, 외부환경에서는 일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 이는 사업장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 가운데에서도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인식되는 항목이 존재함을 의미함

- 성별에서는 외관환경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남성의 외관환경 선택 비율은 14.8%, 여성은 9.6%로 나타나 남성이 외관 정비 수요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 이는 남성이 사업장 외부 균열, 누수, 도색 등 물리적 노후화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개선과제로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함

- 연령대에서는 작업환경, 외관환경, 외부환경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작업환경은 중장년층 23.2%, 고령층 21.6%, 청년층 19.4% 순으로 나타나, 청년층보다 중·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음

- 외관환경은 고령층 18.3%, 청년층 13.2%, 중장년층 11.5% 순으로 나타나, 고령층에서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체감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났음

- 외부환경은 청년층 15.0%, 중장년층 13.5%, 고령층 8.8% 순으로 나타나,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고령층보다 사업장 주변의 위생, 흡연, 분리수거 등 생활 관련 환경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근무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이 없었음. 이는 사업장 환경개선에 대한 선호가 근무기간보다는 성별, 연령대,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 구

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줌

- 산업단지 유형에서는 작업환경과 외관환경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작업환경은 일반산업단지 22.5%, 농공단지 28.5%로 나타나 농공단지 근로자의 수요가 더 높았음
 - 외관환경 역시 일반산업단지 11.7%, 농공단지 18.5%로 나타나 농공단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이는 농공단지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작업공간의 물리적 조건과 외관 노후화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4-3> 응답자 특성별 사업장 환경개선 선호 항목 차이 검정 결과

변수		성별	연령대	근무기간	산업단지 유형
		<i>gender</i>	<i>age</i>	<i>period</i>	<i>type</i>
사업장 환경개선 필요 부문 (<i>firm_preference</i>)	복지환경	0.195	1.428	2.743	0
	작업환경	1.349	4.676*	2.744	5.372**
	외관환경	6.637***	8.686**	2.254	10.674***
	녹지환경	0.019	0.365	2.172	0.892
	외부환경	2.489	6.446**	1.687	0.694

주1) 표 안 값은 χ^2 -검정 결과임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미만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2) 응답자 특성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선호 항목 분석

- 산업단지 환경개선 선호 항목에 대한 χ^2 -검정 결과, 주차환경, 보행환경, 편의시설, 접근성을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문화여가시설, 녹지공간, 휴식공간, 안내시설은 일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경관디자인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수요가 경관이나 상징적 정비보다, 실제 이동·보행, 편의 등과 관련된 기능적 항목에서 집단별 차이를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을 의미함

- 성별에서는 주차환경, 보행환경, 접근성, 녹지공간, 휴식공간, 안내시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남성은 주차환경 선택 비율이 61.0%로 여성 53.9%보다 높아, 주차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 반면 여성은 보행환경 25.9%, 접근성 40.9%, 녹지공간 13.2%, 휴식공간 14.4%, 안내시설 6.4% 부문에서 모두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여성 근로자가 산업단지 환경개선에서 주차 자체보다 보행 안전성, 대중교통 접근성, 휴식 환경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연령대에서는 편의시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편의시설 선택 비율은 청년층 42.7%, 중장년층 37.8%, 고령층 24.2%로 나타났음
 - 이는 청년층일수록 산업단지 환경개선에서 식당, 편의점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근무기간에서는 주차환경, 보행환경, 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 접근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주차환경은 근무기간 5년 미만이 56.1%,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2.8%, 10년 이상이 63.7%로 나타남
 - 반면 문화여가시설은 근무기간 5년 미만이 18.1%,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4.2%, 10년 이상이 12.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단기 근로자에서 개선 수요가 높았음. 편의시설과 접근성도 각각 근무기간 5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는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산업단지 내 문화여가시설과 생활편의, 접근성에 민감하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누적된 주차 불편을 보다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산업단지 유형에서는 휴식공간과 안내시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휴식공간은 일반산업단지 9.4%, 농공단지 12.7%로 나타났고, 안내시설은

일반산업단지 3.8%, 농공단지 6.6%로 나타났음

- 이는 농공단지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산업단지 차원의 휴식·안내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함

<표 4-4> 응답자 특성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선호 항목 차이 검정 결과

변수		성별	연령대	근무기간	산업단지 유형
		<i>gender</i>	<i>age</i>	<i>period</i>	<i>type</i>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부문 (<i>complex_preference</i>)	주차환경	6.098**	3.364	7.925**	0.216
	보행환경	11.435***	1.118	6.463**	0.024
	편의시설	0.531	28.217***	6.212**	1.523
	문화여가시설	2.546	2.247	6.737**	1.213
	접근성	15.032***	1.442	6.272**	1.186
	녹지공간	6.174**	0.947	0.288	2.107
	휴식공간	10.562***	0.413	0.02	3.041*
	안내시설	4.099**	1.85	0.413	4.500**
	경관디자인	2.479	2.796	1.82	1.666

주1) 표 안 값은 χ^2 -검정 결과임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미만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3 | 산업단지 특성별 영향 요인 분석

1) 산업단지 외부 특성 유형화

- 본 절에서는 산업단지의 구조적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뒤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음
 - 개별 산업단지 단위 비교는 사례 수가 제한적이고 해석이 분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노후도, 지정 면적, 근로자 수, 소기업 비중, 산업시설용지 비중, 버스노선 수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그룹화한 뒤, 산업단지별 평균 인식값과 항목 선택률을 비교하였음

- 산업단지 특성 변수의 그룹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노후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하면 노후산단, 준공 후 10~14년은 중간산단, 준공 후 10년 미만은 신규산단으로 구분함
 - 지정면적은 140천㎡ 미만을 소, 140천㎡ 이상 250천㎡ 미만을 중, 250천㎡ 이상을 대로 구분함
 - 근로자 수는 400명 미만을 소,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을 중, 1,000명 이상을 대로 구분함

<표 4-5> 김해시 산업단지 특성 변수 그룹 설정 기준

구분		그룹 1	그룹 2	그룹 3
노후도	그룹명	노후산단	중간산단	신규산단
	기준	준공 후 15년 이상	준공 후 10~14년	준공 후 10년 미만
지정 면적	그룹명	소	중	대
	기준	140천㎡ 미만	140천㎡ 이상 250천㎡ 미만	250천㎡ 이상
근로자 수	그룹명	소	중	대
	기준	400명 미만	4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소기업 비중	그룹명	낮음	보통	높음
	기준	85% 미만	85% 이상 95% 미만	95% 이상
산업시설용지 비중	그룹명	낮음	보통	높음
	기준	65% 미만	65% 이상 75% 미만	75% 이상
버스노선 수	그룹명	적음	보통	많음
	기준	2개 미만	2개 이상 3개 미만	3개 이상

자료) 연구진 작성

- 소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 중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미만이면 '낮음', 85% 이상 95% 미만을 '보통', 95% 이상을 '높음'으로 구분함
- 산업시설용지 비중은 전체 지정 면적 중 산업시설용지 비중이 65% 미만이면 '낮음', 65% 이상 75% 미만을 '보통', 75% 이상을 '높음'으로 구분함
- 버스노선 수는 2개 미만을 '낮음', 2개 이상 3개 미만을 '보통', 3개 이상을 '높음'으로 구분함

2) 산업단지 외부 특성별 인식 변수 차이 분석

- 본 항에서는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근무만족도 영향 인식,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청년고용 영향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음
 - 노후도, 지정면적, 근로자 수, 소기업 비중, 산업시설용지 비중, 버스노선 수는 모두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Kruskal-Wallis 검정을 적용하였음
- 분석 결과, 노후도는 세 인식 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다만 평균값을 보면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는 신규산단보다 노후산단과 중간산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근무만족도 및 청년고용 영향 인식도 유사한 방향을 보였으나, 현재 자료만으로는 노후도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움
- 지정면적은 세 인식 변수 가운데 두 변수에서 약한 유의성이 확인되었음
 -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는 소규모 4.18점, 중규모 4.54점, 대규모 4.14점으로, 중규모 산업단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청년고용 영향 인식도는 소규모 4.30점, 중규모 4.59점, 대규모 4.37점으로 나타나 중규모 산업단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중규모 산업단지에서 환경개선 수요와 청년고용 효과 기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 수는 세 인식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산업단지의 단순 고용 규모 자체가 근로환경 인식의 핵심 설명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즉,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사업장 인원 규모보다 실제 교통, 주차, 편의시설 공급 수준 등의 구체적 여건이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음

- 소기업 비중은 ‘낮음’ 그룹에서 인식 변수가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 이는 소기업 비중이 산업단지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참고 변수로는 의미가 있으나, 현재 자료에서는 인식 수준 차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 산업시설용지 비중은 ‘보통’ 그룹에서 인식 변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따라서 산업시설용지 비중은 근로환경 인식 차이를 직접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보기보다, 다른 구조 변수와 함께 보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표 4-6> 산업단지 외부 특성별 주요 인식 변수 차이 검정 결과

변수	노후도 (years)	지정면적 (s_meters)	근로자 수 (em)	소기업 비중 (small_firm)	산업시설용지 비중 (industry_land)	버스노선 수 (bus)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needs)	1.835	5.635*	1.008	2.752	3.080	0.342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근무만족도 영향 인식 (needs_effect)	1.171	3.202	0.206	4.104	2.669	6.694**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청년고용 영향 인식 (young_complex)	0.6	5.435*	0.214	1.78	2.223	1.222

주1) 표 안 값은 각 변수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통계량(H)임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미만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버스노선 수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근무만족도 영향 인식에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버스노선 수가 3개 이상인 ‘높음’ 그룹은 근무만족도 영향 인식 평균이 4.61점으로, ‘보통’ 그룹 4.44점, ‘낮음’ 그룹 4.47점 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산업단지에서 환경개선이 실제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더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3) 산업단지 외부 특성 그룹별 선호 항목 분석

- 본 항에서는 산업단지 외부특성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개선 선호 항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음
 - 산업단지별 항목 선택률을 산출한 뒤, 외부특성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본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항목을 중심으로 제시함
-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산업단지 외부 특성은 제한적이었음
 - 노후도에서는 안내시설, 지정면적에서는 편의시설, 근로자 수에서는 보행환경과 경관디자인, 산업시설용지 비중에서는 접근성, 버스노선 수에서는 편의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인되었음

<표 4-7> 산업단지 외부 특성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선호항목 차이 검정 결과(유의항목 중심)

변수	항목	검정통계량	그룹별 평균 선택률(%)
노후도 (years)	안내시설	7.076**	노후산단 6.3 / 중간산단 12.2 / 신규산단 3.0
지정면적 (s_meters)	편의시설	6.239**	소 24.8 / 중 35.9 / 대 48.1
근로자 수 (em)	보행환경	5.737*	소 27.1 / 중 18.7 / 대 18.5
	경관디자인	7.505**	소 1.5 / 중 4.1 / 대 2.2
산업시설용지 비중 (industry_land)	접근성	5.045*	낮음 40.8 / 보통 26.5 / 높음 36.0
버스노선 수 (bus)	편의시설	6.276**	낮음 23.0 / 보통 36.2 / 높음 49.9

주1) 표 안 값은 각 변수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통계량(H)임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미만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반면 소기업 비중은 어떤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노후도에서는 안내시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중간산단의 안내시설 선택률은 12.2%로, 노후산단 6.3%, 신규산단 3.0%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준공 후 10년 이상 14년 산단에서 산업단지 내 표지판, 정보 제공, 안내체계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 기능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지정 면적에서는 편의시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편의시설 선택률은 소규모 24.8%, 중규모 35.9%, 대규모 48.1%로 산업단지 규모가 커질수록 생활편의시설 수요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식당, 편의점 등 지원 기능을 더 강하게 요구받는 공간임을 시사함
- 근로자 수에서는 보행환경과 경관디자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보행환경은 소규모 산업단지 27.1%, 중규모 18.7%, 대규모 18.5%로 나타나, 소규모 산업단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소규모 산업단지가 도로·보도 구분, 보행안전, 이동동선 측면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경관디자인은 중규모 산업단지 4.1%로 소규모 1.5%, 대규모 2.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절대적 선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보조적 참고 항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산업시설용지 비중은 접근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접근성 선택률은 ‘낮음’ 40.8%, ‘보통’ 26.5%, ‘높음’ 36.0%로 나타났음
 - 이는 산업시설용지 비중이 높거나 낮은 산업단지에서 접근성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산업시설용지 비중과 접근성 간 관계가 단선적이라기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

- 버스노선 수에서는 편의시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편의시설 선택률은 버스노선 수가 ‘낮음’ 23.0%, ‘보통’ 36.2%, ‘높음’ 49.9%로, 이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산업단지에서는 교통·이동 문제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버스 접근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산업단지에서는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과 같은 요구가 보다 우선될 가능성을 시사함

V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1 | 분석 결과 종합 및 우선순위 진단

1) 기본 방향

- 본 연구는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문제를 사업장 내부 환경과 산업단지 외부 기반 환경을 결합한 구조로 파악하고, 인식조사와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 우선 영역과 대상을 식별하고자 하였음
- 제4장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정책의 우선 순위는 단순히 “어느 산업단지가 가장 열악한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현재 취약성과 개선 체감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취약성’과 ‘체감효과’ 두 축을 중심으로 진단함
 - 즉, 현재 만족도가 낮고 환경개선 필요도가 높은 ‘취약성’과 환경개선이 근무만족도 및 청년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체감효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진단함

2) 분석결과 종합

(1)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종합

- 산업단지 유형은 가장 일관된 차이를 보인 핵심 변수임
 - 농공단지 근로자는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보다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는 낮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와 환경개선 효과 인식은 더 높게 나타났음
 - 이는 농공단지가 현재의 근로환경 체감 수준에서는 더 취약하나, 개선 시 정책 체감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공간임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농공단지는 향후 정책 설계의 최우선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연령대는 응답자 특성 중 필요도와 개선 효과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이는 연령집단별 정책 초점이 달라야 함을 의미함
 - 고령층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와 근무만족도 영향 인식, 청년고용 영향 인식 모두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음
 - 또한 청년층은 편의시설 등 청년친화 여건에 민감하며, 중장년층은 현재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한 체감 불만이 크고, 고령층은 산업단지 외부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무기간은 누적 경험에 따른 필요도 차이를 보여주며,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장기근속자가 산업단지 외부 환경의 불편을 장기적으로 경험하면서 누적된 개선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장기 근로자는 현재 만족도 자체보다는 환경개선 필요도가 누적된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성별은 근로환경의 기능적 개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별적 수요를 보였음
 - 남성은 주차환경 선택 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은 보행환경, 접근성, 녹지공간, 휴식공간, 안내시설에서 모두 더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여성 근로자가 주차 자체보다 보행 안전성, 대중교통 접근성, 휴식환경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차이는 향후 정책 설계 방식의 차별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 여성친화형 산업단지 정책은 보행, 조명, 안내, 쉼터, 휴게시설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 특성별 분석 결과 종합

- 노후도는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나 정책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임
 - 노후도는 주요 인식 변수 전반에서 매우 강한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인식 평균값 기준으로 노후산단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이는 노후도 자체가 단독 설명변수로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의미함

○ 지정면적은 정책 확산 거점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변수로 나타남

-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와 청년고용 영향 인식은 중규모 산업단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규모 산업단지가 정책 투자 대비 체감효과와 확산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공간임을 시사함
- 즉 중규모 산단은 환경개선 수요와 확산효과가 함께 높은 전략확산 거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근로자 수만으로는 근로환경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함

- 이는 정책 우선순위가 ‘근로자가 많은 산단’보다 ‘교통, 주차, 보행, 편의시설 등 구체적 기반이 얼마나 부족한 산단인가’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함

○ 버스노선 수에 따라 편의시설 수요 차이가 나타났으며, 버스노선 수가 많은 그룹일수록 편의시설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교통 접근성이 일정 수준 확보된 산업단지일수록, 근로자들이 다음 단계의 개선과제로 편의시설 확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즉, 이러한 산업단지는 기본적인 접근 여건에 생활편의 기능을 보강할 경우 만족도 개선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확산 거점으로 볼 수 있음

3) 정책 우선 순위 진단

(1) 영역별 우선순위 진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정책의 우선 대상과 적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현재 취약성이 큰 대상과 개선 시 체감효과가 크게 나타날 대

상을 구분하여, 정책 자원을 동일하게 분산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배분함

- 공간 측면에서는 농공단지과 노후·취약 산업단지를 집중개선 영역으로, 중규모 산업단지과 버스 접근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를 전략확산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이는 농공단지가 현재 여건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공간인 동시에, 개선에 따른 체감효과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중규모 및 접근성 양호 산업단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하고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시키기에 유리한 공간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임
- 대상자 집단 측면에서는 여성, 중장년층, 농공단지 근로자를 취약성 우선 집단으로, 고령층과 장기 근로자를 필요도 우선 집단으로, 청년층을 미래 전략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 이는 동일한 산업단지 내에서도 누구를 우선 고려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여성은 이동안전성과 생활편의 기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장년층은 현재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농공단지 근로자는 공간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나타났음
 - 반면 고령층과 장기 근로자는 환경개선 필요도와 효과 인식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청년층은 편의시설과 청년친화 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 향후 인력유입과 정착전략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 개선항목 측면에서는 주차, 보행, 접근성, 편의시설이 집중개선 영역에 해당하며, 청년친화 편의·휴식공간과 확산형 시범사업은 전략확산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반면에, 외관이나 노후시설 보완은 구조보완 영역, 일반 유지보수와 미관관리는 유지관리 영역으로 구분됨
 - 이는 김해시 근로환경 개선정책이 상징적·경관적 정비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능적 불편을 우선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함

<표 5-1>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의 종합 우선순위 진단

구분	집중개선 영역	전략확산 영역	구조보완 영역	유지관리 영역
공간	농공단지, 노후·취약 산단	중규모 산단, 버스 접근성 양호 산단	노후 경향은 있으나 효과가 불분명한 산단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산단
집단	여성, 중장년층, 농공단지 근로자	청년층, 장기근속층	고령층 밀집 산단 일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
개선 항목	주차, 보행, 접근성, 편의시설	청년친화 편의·휴식공간, 확산형 시범사업	외관·노후시설 보완	일반 유지보수, 미관관리

자료) 연구진 작성

(2) 산업단지별 정책 유형화

- 종합 우선순위 진단이 김해시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산업단지별 유형화는 이를 개별 산업단지 단위의 정책 적용 가능성으로 구체화한 것임
 - 개별 산업단지 간 서열화라기보다 산업단지 특성, 응답자 인식,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결합하여 정책 설계용으로 재구성한 유형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유형화를 위해 산업단지가 ‘현재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와 ‘환경개선 시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확산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크게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 농공단지 확산거점형, 일반산단 전략확산형, 일반산단 생활기반 집중보완형, 판단유보형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이와 같은 유형화는 이후 제시할 정책대안을 어느 산업단지군에 우선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
 - 내삼농공단지, 병동농공단지, 본산농공단지, 봉림농공단지, 안하농공단지, 하계농공단지
 - 현재의 기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생활기반 보완의 시급성이 큰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선순위로는 안하농공단지를 최우선 후보지로, 내삼농공단지를 차순위 후보지로 제시할 수 있음. 안하농공단지는 해당 유형 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필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내삼농공단지는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필요도와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으로, 두 후보지가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파악됨

○ 농공단지 확산거점형

- 나전농공단지, 진영죽곡농공단지
- 농공단지에 속하지만 규모나 조건 측면에서 시범성과 확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공단지 개선모델의 우선 적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특히 진영죽곡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가운데 규모와 근로자 수가 가장 커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확산하기에 적합함

○ 일반산단 전략확산형

-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김해명동일반산업단지, 신천일반산업단지,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 중규모 또는 대규모이면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해 청년친화 편의공간, 공동복지시설, 공공인프라 개선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좋은 공간으로 판단됨
- 특히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는 근로자 수도 많고 접근성도 비교적 양호하여 청년친화 편의공간, 공동복지시설, 공공인프라 개선사업의 성과를 가장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 판단됨

○ 일반산단 생활기반 집중보완형

-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덕암일반산업단지, 오척일반산업단지, 이노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 주호일반산업단지
- 일반산단지지만 여전히 주차, 보행, 접근성, 편의시설과 같은 기능형 인프라의 보완이 필요함

- 이 중에서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면서도 필요도와 기대효과 인식이 모두 높아 단계적 기능 보완의 성과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대상지임
- 덕암일반산업단지는 노후 일반산단의 성격을 가지면서 인프라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 생활기반 집중보완형 정책의 우선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판단유보형

- 김해가산일반산업단지는 사례 수나 구조적 특성상 일반화된 우선순위 판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판단유보형으로 분류하였음

○ 이와 같은 산업단지별 유형화는 향후 우선 적용할 정책 패키지를 달리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즉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에는 생활기반 긴급보완과 공동편의시설 확충이, 농공단지 확산거점형에는 시범모델형 패키지가, 일반산단 전략확산형에는 청년친화·공동복지 확산사업이, 일반산단 생활기반 집중보완형에는 기능형 인프라 보완이 우선 적용되는 방식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

<표 5-2> 김해시 산업단지별 정책 유형화

정책 유형	해당 산업단지	주요 구조적 특징	정책 우선순위 진단	정책 적용 방향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	내삼농공단지, 병동농공단지, 본산농공단지, 봉림농공단지, 안하농공단지, 하계농공단지	농공단지 중심, 노후 또는 중간단계, 소·중규모, 생활기반 및 접근성 취약 가능성 높음	최우선 필요도 대상	주차·보행·접근성·편 의시설 등 생활기반 긴급보완, 공동편의·공동복지 거점 우선 도입
농공단지 확산거점형	나전농공단지, 진영죽곡농공단지	농공단지이나 규모 또는 조건상 시범성과 가시화 가능성 높음	최우선 + 시범사업 우선지	농공단지 개선모델 시범도입, 생활편의 거점·공동복지시설· 청년친화 기능 패키지화
일반산단 전략확산형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김해명동일반산업단지, 신천일반산업단지,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 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일반산단, 중·대규모 비중 높고 접근성 및 확산성 상대적으로 양호함	체감효과 확산 거점	청년친화 편의공간, 공동복지시설, 공공인프라 개선 시범사업의 성과 확산 거점으로 활용
일반산단 생활기반 집중보완형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덕암일반산업단지, 오척일반산업단지, 이노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 주호일반산업단지	일반산단이나 노후·중간 특성 또는 생활기반 기능 취약이 존재함	차순위 보완 대상	주차·보행·접근성·편 의시설 중심의 기능형 인프라 보완

주) 김해가산일반산업단지는 인식조사 등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워 판단유보형으로 분류함
자료)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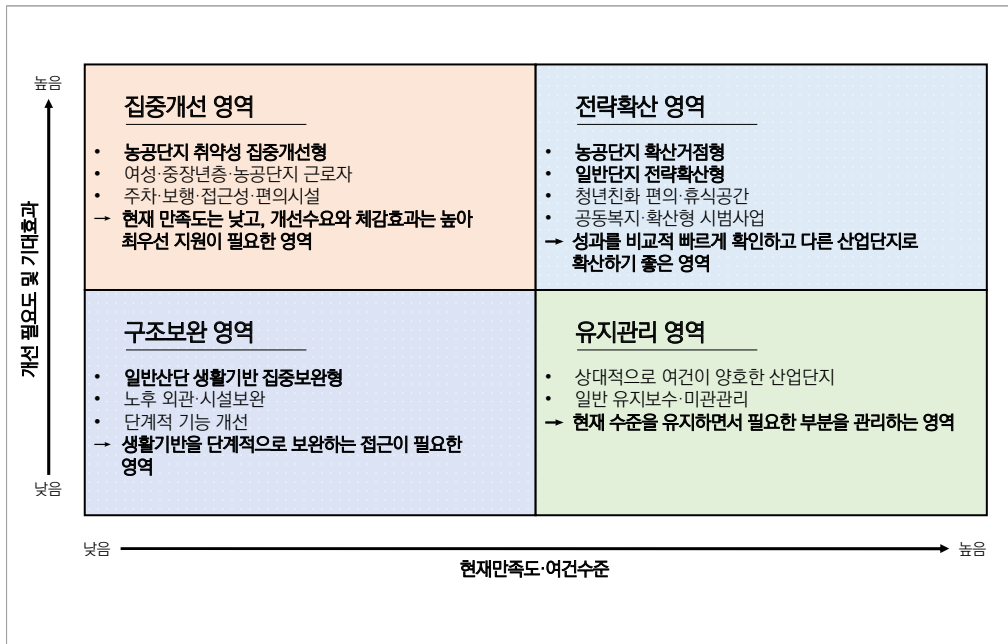
- <그림 5-1>은 앞서 제시한 종합 우선순위 진단과 산업단지별 유형화를 시
각적으로 통합한 개념도임
- 가로축은 현재 만족도 또는 현재 여건 수준을, 세로축은 개선 필요도 및
기대효과를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정책
의 우선 적용 대상을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즉, 현재 만족도는 낮지만 개선 필요도와 기대효과는 높은 대상은 집중개선
영역으로, 현재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개선 시 성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전략확산 영역으로, 현재 만족도는 낮으나 효과가 제한적이거
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대상은 구조보완 영역으로, 현재 여건이 상대적
으로 양호하여 대규모 개선보다 유지관리가 적절한 대상은 유지관리 영역
으로 배치하였음

- 집중개선 영역에는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 산업단지, 여성·중장년층·농공단지 근로자, 그리고 주차·보행·접근성·편의시설과 같은 기능형 항목을 배치하였음
 - 이는 현재의 취약성이 가장 크고,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이 이 영역에 해당함을 보여줌

- 전략확산 영역에는 농공단지 확산거점형, 일반산단 전략확산형, 청년친화 편의·휴식공간, 공동복지·확산형 시범사업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이들 대상이 비교적 빠르게 성과를 확인하고 다른 산업단지로 정책효과를 확산할 수 있는 거점임을 의미함

- 구조보완 영역에는 일반산단 생활기반 집중보완형과 노후 외관·시설 보완, 단계적 기능 개선을 포함하였음

- 유지관리 영역에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와 일반 유지보수·미관관리를 배치하여, 현재 상태의 유지와 선택적 관리가 적절한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단, 현재 김해시 산업단지 20개 중 이 영역에 해당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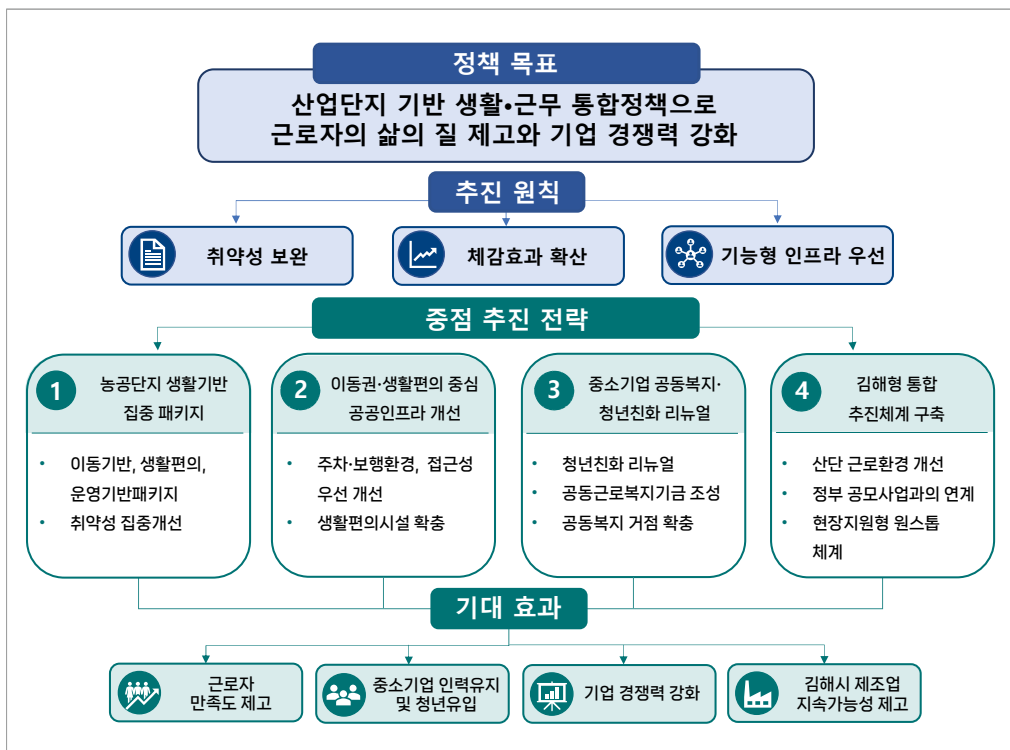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5-1)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우선순위 IPA 분석 결과

2 |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 기본 방향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정책은 개별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 단위의 생활·근무 통합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확인된 김해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핵심 문제는 사업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단지 내 주차, 보행, 접근성,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 요소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정책은 사업장 근로환경과 산업단지 환경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5-2)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의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 체계도

-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은 취약성 보완, 체감효과 확산, 기능형 인프라 우선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농공단지와 노후·취약 산업단지, 여성·중장년층·농공단지 근로자와 같이 현재의 불편과 제약이 큰 대상을 우선 지원하는 취약성 보완 원칙임
 - 둘째, 중규모 산업단지와 버스 접근성이 양호한 산업단지, 청년층과 같이 개선 효과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시범사업 거점으로 활용하는 체감효과 확산 원칙임
 - 셋째, 경관 위주의 정비보다 주차, 보행, 접근성, 편의시설 등 근로자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기능적 불편을 먼저 해소하는 기능형 인프라 우선 원칙임

- 즉, 김해시의 향후 개선 방안은 단편적 시설 보수나 일회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산업단지 유형별 맞춤 패키지, 공동복지 기반 확충, 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결합한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김해시는 ‘기업애로119센터’를 통한 기업지원,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가야클리닝’ 등 현장형 안전·복지사업, ‘진영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⁴⁾
 - 즉 김해시는 현장형 사업 경험과 공모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산업단지 중심의 통합정책으로 연결·고도화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 방안은 신규사업을 전면 신설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산업단지 단위의 생활·근무 통합정책으로 재구성·확장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포함함

4) 김해시는 2023년 기업애로119센터 누리집 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6년 현재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가야클리닝(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등을 운영 중에 있음. 2025년에는 진영농공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에 선정되는 등 정부 공모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한 바 있음(김해시, 2023.12.13.; 김해시, 2025.3.12.; 김해시, 2026.2.11.)

2) 추진전략

▣ 농공단지 생활기반 집중 패키지 도입

- 농공단지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만족도는 낮고, 환경개선 필요도와 효과 인식은 높은 공간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농공단지에는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한 방식의 지원보다 생활기반 집중 패키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생활기반 집중 패키지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기반 기능, 생활편의 기능, 운영기반 기능의 세 가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동기반 기능은 산업단지 내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영역으로, 공용주차장 확보, 단지 내 도로 정비, 보행로 및 조명 개선 등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생활편의 기능은 근로자의 식사, 휴식, 위생과 같은 일상적 수요를 지원하는 영역으로, 편의점, 공동식당, 휴게공간, 공동샤워실, 냉난방 쉼터 등을 함께 보강할 필요가 있음(도수관, 2023)
 - 운영기반 기능은 산업단지의 기본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를 뒷받침하는 영역으로, 분리수거장, 공동환경관리 공간 등 운영 기반 시설도 병행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최근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복지·문화·편의기능을 집적하는 청년문화센터, 이동편의와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김해시는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용주차, 보행안전, 편의시설, 공동복지 기능을 묶은 김해형 농공단지 생활기반 패키지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관련 정부 공모 사업과 적극 연계할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동권·생활편의 중심의 산업단지 공공인프라 개선

- 앞 장의 분석에서 주차, 보행, 접근성, 편의시설은 가장 우선적인 개선 수요 항목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정책이 상징적인 경관정비보다는 이동권과 생활편의 중심의 공공인프라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산업단지 공공인프라 개선은 주차 기능, 보행 기능, 접근 기능, 생활편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차환경 개선
 - 산업단지 내 주차 기능 회복을 위해 공용주차장 확보, 불법주정차 해소, 화물·승용 분리주차 구역 조성, 출퇴근 집중시간대 회차 공간 확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행환경 개선
 -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 기능 확보를 위해 보도 정비, 횡단보도 및 과속저감시설 보완, 야간조명과 CCTV 확충, 배수 및 노면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접근성 개선
 - 출퇴근과 산업단지 접근 기능 강화를 위해 버스정류장 위치 및 대기환경 정비, 정류장-사업장 간 보행동선 개선, 표지체계 정비, 환승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생활편의시설 확충
 - 산업단지 내 체류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편의점, 휴게실, 카페형 쉼터, 식사공간, 안내시설, 공동회의·교육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버스 접근성이 일정 수준 확보된 산업단지는 편의시설 개선의 체감

효과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확산 거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산단 전략확산형과 농공단지 확산거점형에는 정류장 환경개선, 보행연결축 정비, 휴게시설 확충을 결합한 이동권·생활편의 시범사업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공동복지·청년친화 리뉴얼

- 김해시 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으로,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년친화 공간이나 복지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개별 기업 단위 지원을 넘어 공동복지 기반 확충과 노후공장 리뉴얼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함
- 첫째, 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을 통해 노후공장의 내·외부 공간을 개선하고, 청년근로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김해시는 일반산단 전략확산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휴게공간, 식사공간, 탈의공간, 화장실, 안내공간, 외부환경 정비를 포함한 청년친화형 리뉴얼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공동복지시설을 연계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산업단지협의회, 입주기업협의회, 앵커기업 등을 활용하여 산단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유도하고, 이를 휴게공간, 건강관리 기능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영세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기능을 산업단지 단위에서 공동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자원 여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2025)

- 셋째, 산업단지 내 공동복지 거점을 조성·확산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기존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동세탁소에 한정하지 않고 세탁, 휴게, 건강관리, 간이 편의, 정보제공 기능 등을 산업단지 특성에 맞게 결합한 공동복지 거점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즉 공동세탁소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산업단지별 여건에 따라 세탁, 휴게·편의, 건강관리·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복지 허브로 설계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거점을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은 초기 조성과 안착 지원을 담당하고, 이후에는 입주기업협의체나 산업단지협의회,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 운영주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 감면, 운영비 일부 지원, 공모사업 연계, 편의점·카페형 휴게공간·회의공간 대관 등 일부 수익기능 허용과 같은 유인 체계를 함께 마련하여, 자생적 운영이 가능한 공동복지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넷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력유입·정착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청년친화 휴게공간, 카페형 편의시설, 식사·커뮤니티 공간, 채용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 기능을 묶어 '산단 청년 라운지' 형태로 시범 도입할 수 있음
 - 이러한 시설은 일반산단 전략확산형 산업단지에서 먼저 도입하고, 이후 농공단지 확산거점형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적절함

▣ 김해형 통합 추진체계 구축

-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만큼이나 지원체계의 통합성이 중요함
 - 현재 산업단지 관련 사업은 산업, 고용, 복지, 교통, 생활 SOC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제도를 한 번에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따라 김해시는 김해형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는 김해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산업단지 관리주체, 노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 주요 기능은 사업 발굴, 패키지 구성, 공모 연계, 기업·근로자 홍보 등을 포괄하는 것이 적절함

- 이와 함께 산업단지 현장지원형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의 「산단행복일터」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 발굴,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고용노동부, 2026)
 - 김해시도 이를 참고하여 산업단지별 찾아가는 설명회, 컨설팅, 공모 연계, 제도 신청 지원을 묶은 김해형 산단 현장지원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집단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고용유지, 일·생활균형, 청년고용, 고령자 친화 근무환경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5-3>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전략 체계

전략	핵심 대상	주요 사업	우선 적용 유형
농공단지 생활기반 긴급보완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	공용주차장, 보행로, 편의점·공동식당·쉼터, 공동사위실, 환경관리 공간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
이동권·생활편의 공공인프라 개선	노후·취약 산단, 생활기반 취약 산단	주차정비, 보행안전, 정류장 개선, 안내체계, 생활서비스 확충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 일반산단 생활기반 집중보완형
공동복지·청년친화 리뉴얼	50인 미만 중소기업, 청년층, 장기근속층	청년친화 리뉴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복지거점, 산단 청년 라운지	일반산단 전략확산형, 농공단지 확산거점형
통합 추진체계 구축	전 산업단지	협의체, 공모 연계, 원스톱 현장지원, 제도 연계 컨설팅	전 유형 공통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3) 단계별 추진 로드맵

- 단계별 추진 로드맵은 현재 확인된 문제의 시급성, 정책 체감 가능성, 사업의 확산 가능성, 제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 단기에는 현재 근로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불편을 빠르게 완화하여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동복지와 청년친화 기능을 결합한 확산사업을 본격화함
 - 장기에는 산업단지 단위의 생활·근무 통합정책을 상시 운영체제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정책의 체감도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 단기(1~2년)에는 시급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의 가장 우선적인 개선 수요는 주차, 보행, 접근성,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 기능에 집중되어 있었음
 - 또한 농공단지에는 현재 만족도는 낮고 환경개선 필요도와 효과 인식은 높은 공간으로 확인된 만큼, 단기 단계에서는 농공단지 취약성 집중개선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용주차장 확보, 보행안전 개선, 정류장 및 보행연결축 정비,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즉시 체감 가능한 사업부터 착수할 필요가 있음
 -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현재의 불편 감소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후 중장기 사업의 정책 신뢰와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아울러 관련 정부 공모사업 발굴과 연계,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 현장지원형 원스톱 체계의 기초 마련도 병행함으로써 이후 사업의 실행 기반을 조기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기(3~5년)에는 단기의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복지와 청년친화 기능을 결합한 확산형 사업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단기 단계가 현재의 기능적 불편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회복하는 단계라면, 중기 단계는 그 위에 공동복지와 인력유입 기능을 결합하여 산업단지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라 할 수 있음
 - 이 시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공동복지 거점 확충, 청년친화 리뉴얼, 공동복지거점, 산단 청년 라운지 조성 등을 산업단지 유형과 여건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반산단 전략확산형과 농공단지 확산거점형 산업단지는 규모와 접근성, 정책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년친화·공동복지 정책의 시범성과를 보여주는 우선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동시에 이 단계에서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광역 단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단기 사업의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장기 단계의 제도화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장기(5년 이상)에는 산업단지 단위 생활·근무 통합정책을 제도화하고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단기와 중기의 사업이 개별 시설 개선과 시범사업 중심이었다면, 장기 단계는 이를 김해시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제로 정착시키는 단계임

<표 5-4>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분	추진 방향	우선 사업	추진 근거
단기 (1~2년)	시급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우선 추진	공용주차장 확보, 보행안전 개선, 정류장 및 보행연결축 정비,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 협의체 구성, 공모 연계, 원스톱 체계 기초 마련	현재 근로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불편을 빠르게 완화하고 정책 신뢰를 확보할 필요
중기 (3~5년)	공동복지·청년친화 기능을 결합한 확산형 사업 본격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공동복지 거점 확충, 청년친화 리뉴얼, 공동세탁소 기능 고도화, 산단 청년 라운지, 복합편의거점 조성	단기 개선성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질적 전환과 정책 확산을 추진할 필요
장기 (5년 이상)	산업단지 생활·근무 통합정책의 제도화 및 상시 운영체제 전환	데이터 축적, 정기 모니터링, 정책평가, 유지관리 체계 구축, 관련 정책과의 연계 운영	개별 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김해형 산업단지 정책체계를 정착시킬 필요

자료) 연구진 작성

- 이를 위해 산업단지별 데이터 축적, 정기 모니터링, 정책평가,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정책을 교통, 복지, 청년, 고용, 산업지원정책과 연계된 상시 정책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단지별 정책성과와 유형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성 집중개선형 산업단지가 확산거점형으로 전환되거나, 기능형 인프라 보완이 공동복지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결국 장기 단계의 목표는 개별 사업의 누적이 아니라, 김해시가 산업단지를 단순 생산공간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과 일자리가 결합된 공간으로 관리하는 김해형 산업단지 생활·근무 통합정책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있음
- 또한 김해시가 신규로 검토하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사례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⁵⁾
- 예를 들어, 서울시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컨설팅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개보수를 지원함(서울특별시, 2025; 수원특례시, 2025)
 - 청주시는 기업 및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기숙사, 공용시설, 작업공간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인근 산단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음(청주시, 2025; 광주광역시 2022)
 - 용인특례시는 기업SOS 체계를 기반으로 현장 상담과 원스톱 회의를 연계하고 있어, 김해형 통합 추진체계 구축에도 참고할 수 있음(용인특례시, 2026)
- 그리고 제안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김해시청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연구가 제안하는 주요 사업은 시설개선, 복지, 교통·이동 편의, 기

5)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길 바람

업지원 등이 결합된 정책으로, 단일 부서 중심이 아니라 총괄부서와 협조 부서 간 역할 분담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농공단지 생활기반 집중 패키지 시범사업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노동복지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사업이므로, 산업단지 관리와 공모사업 경험을 가진 도시개발과를 총괄부서로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함
- 여기에 주차 기능은 교통정책과, 버스승강장과 대중교통 접근 기능은 대중교통과, 공동세탁소와 근로자 복지 기능은 기업투자유치단,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기능은 건강증진과가 분담하는 구조를 실무적으로 마련해야 함

VI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김해시 산업단지에 입지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문제를 사업장 내부 환경과 산업단지 외부 기반환경이 결합된 구조적 과제로 파악하고, 김해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전국·경상남도·김해시의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와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 인식조사와 영향 요인 분석을 연계하여 근로환경 개선의 우선 영역과 대상을 식별하고자 하였음
 - 즉, 본 연구는 문헌 및 선행사례 분석, 통계·행정자료 분석, 근로자 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결합한 근거기반 정책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분석 결과,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문제는 개별 기업 내부의 작업장 정비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공간적 성격을 지님이 확인되었음
 - 김해시는 중소기업과 산업단지가 집적된 제조업 중심 도시이며, 조성완료 산업단지 20개 중 일반산업단지 12개, 농공단지 8개로 구성되고, 이 중 노후 산업단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별 기반여건 격차가 근로환경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김해시의 근로환경 문제는 노동·복지 정책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교통, 도시기반 정책이 결합된 종합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분명하게 확인되었음. 사업장 내부 근로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나, 개선 수요는 복지환경과 작업환경에 집중되었고, 산업단지 차원에서는 도로·주차, 편의시설, 접근성, 보행환경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 이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환경이 사업장 내부 설비뿐 아니라 출퇴근, 이동, 식사, 휴식, 위생과 같은 일상적 생활기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함
 - 다시 말해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의 핵심 쟁점은 ‘생산공간의 문제’인 동시에 ‘생활기반의 문제’이기도 함
- 본 연구에서 다른 영향 요인 분석과 우선순위 진단에서는 정책 적용 순서를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음
- 가장 일관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산업단지 유형이었으며, 농공단지 근로자는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보다 사업장 근로환경 만족도는 낮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와 효과 인식은 더 높게 나타났음
 - 또한 고령층과 장기 근로자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여성은 보행, 접근성, 휴식, 안내 등 생활편의와 안전 기능에 더 민감한 수요를 보였음
 - 산업단지 특성 측면에서는 중규모 산업단지가 정책 확산 거점으로서 의미를 가졌고, 버스 접근성이 일정 수준 확보된 산업단지는 편의시설 보강시 만족도 개선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되었음
 - 결국 김해시의 정책 우선순위는 현재 취약성과 개선 체감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이중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정책의 핵심 결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정책의 기본 단위는 개별 기업보다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 적절함. 영세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주차, 휴게, 복지, 편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단위의 공동 인프라와 생활기반 확충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정책의 우선 대상은 농공단지와 노후·취약 산업단지, 그리고 여성·중장년층·농공단지 근로자와 같은 취약집단이 되어야 함
 - 셋째, 정책수단은 경관 중심 정비보다 주차, 보행, 접근성, 편의시설, 공동 복지와 같은 기능형 인프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이러한 결론이 가지는 주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우선 김해시는 근로환경 정책을 개별 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로 취급하기보다, 산업단지 경쟁력과 고용 유지, 청년 유입, 지역 제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정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정책 추진 방식은 모든 산업단지에 동일한 메뉴를 분산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공단지 생활기반 집중 패키지, 이동권·생활편의 중심 공공인프라 개선, 공동복지·청년친화 리뉴얼, 통합 추진체계 구축과 같이 유형별·단계별로 차등화된 방식이어야 함
 - 또한 지자체의 역할은 모든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데 있기보다, 초기 조성과 공모 연계, 협의체 운영, 제도 연결을 통해 민간과 현장 주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역할에 가까워야 함. 이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이 될 것임
 - 마지막으로 김해시의 향후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단순히 추가하는 데만 있지 않음. 기업애로119센터 기반의 기업지원,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공동세탁소 운영, 진영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사업 추진 등의 우수 선도 사례를 산업단지 단위의 생활·근무 통합정책 관점에서 재정렬하고, 연결·확장하는 것도 중요함
 - 결국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정책의 실효성은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선도 사례를 전략적으로 묶어 산업단지별 여건에 맞게 확장·정착 시키는 데서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 확대나 환경정비 차원을 넘어,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생활·근무 통합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그 전환의 방향을 ‘농공단지 우선’, ‘기능형 인프라 우선’, ‘취약 집단 우선’, ‘확산거점 중심’이라는 네 가지 원칙으로 제시하였음
 - 향후 김해시가 이러한 방향 하에 산업단지별 여건과 집단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 청년층 유입 확대, 나아가 김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20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26.1.15), 2026년도 산단행복일터 추진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 곽노학·김문준(2016),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환경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1), 19-25.
- 광주광역시(2022.8.17),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서비스 확대,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김진하·황민영(2019),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김해시(2023.12.13.),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누리집 개설, 김해시 보도자료.
- 김해시(2024), 「김해시 제조업체 실태조사」, 김해시.
- 김해시(2025.3.12), 진영농공단지, 산업부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 선정, 김해시 보도자료.
- 김해시(2026.2.11), 김해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시작, 김해시 보도자료.
- 도수관(2023),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노사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울주군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의 근로 환경과 직원 복지, 정부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5(10), 575-59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3484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김해시조례 제185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8926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065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3), 「제7차 근로환경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서울특별시(2025.3.18), 서울시, 안전한 제조현장 만든다...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장 모집,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수원특례시(2025.1.10), 수원시, 중소기업·지식산업센터 노동·작업환경 개선 지원한다,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 청주시(2025.11.14), 청주시, 2025년 최상급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시적 성과', 청주시 보도자료.
- 안향자·이상직(2021), 중소기업의 물리적 업무환경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개인집중업 공간, 협업 공간, 어메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2), 261-270.
- 용인특례시(2026.3.26), 용인특례시, 상반기 '찾아가는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완료,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기업부.

김해시청 홈페이지 분야포털 투자유치(2025년 12월 기준), <https://www.gimhae.go.kr>.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단지 통계현황(2025년 12월 기준), <https://www.industryland.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icox.or.kr>.

| 부록 |


▣ 부록 1: 중소기업 기본통계 상 기업규모 분류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평균매출액등)	소상공인
제조업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명 미만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12개 업종)	식료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8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12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12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0억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수도업				
건설업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제조업 (6개 업종)	음료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8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명 미만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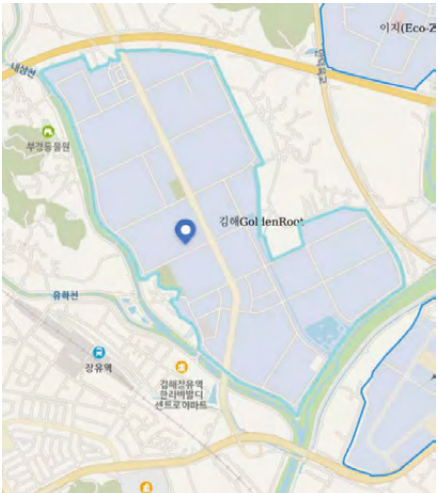
업종	중소기업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평균매출액등)	소상공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명 미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명 미만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 비고: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부록 2: 김해시 산업단지별 기본 현황(2025년 12월 기준 준공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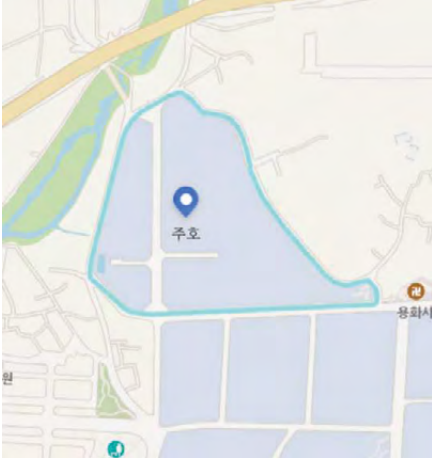
○ 덕암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1999-08 ~ 2001-05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95번지 일원	
	지정면적	155,574㎡	
	관리기관	(사)덕암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준공인가일	2001-07-26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106,469㎡ (68.4%)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49,105㎡ (31.6%)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933㎡ (0.6%)
		상업시설 면적	-
산업/업무기타		-	
지원시설 면적		-	
공원 면적		-	
녹지 면적	22,495㎡ (14.5%)		


○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7-08 ~ 2014-12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	
	지정면적	1,519,228㎡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14-12-26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845,659㎡ (55.7%)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113,346㎡ (7.5%)
		지원시설용지	135,512㎡ (8.9%)
		공공시설용지	424,711㎡ (28.0%)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14,640㎡ (1.0%)
		상업시설 면적	39,846㎡ (2.6%)
산업/업무기타		-	
지원시설 면적		-	
공원 면적		13,990㎡ (0.9%)	
녹지 면적	101,563㎡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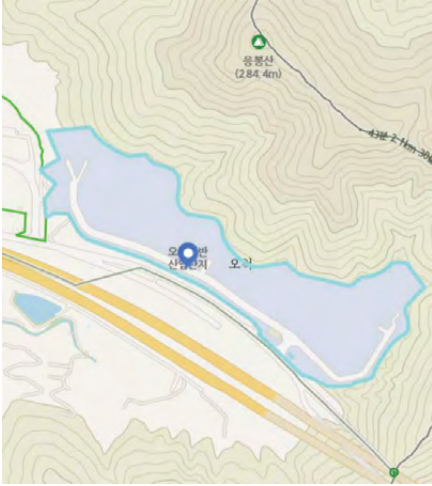
○ 주호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9-12 ~ 2013-06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709-8번지 일원	
	지정면적	116,696㎡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13-06-25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87,171㎡ (74.7%)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7,080㎡ (6.1%)
공공시설용지		22,445㎡ (19.2%)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1,750㎡ (1.5%)	
	상업시설 면적	-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5,328㎡ (4.6%)	
	공원 면적	1,793㎡ (1.5%)	
	녹지 면적	6,042㎡ (5.2%)	


○ 김해명동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9-12 ~ 2019-02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375번지 일원	
	지정면적	263,030㎡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19-02-22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182,532㎡ (69.4%)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4,486㎡ (1.7%)
공공시설용지		76,012㎡ (28.9%)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2,926㎡ (1.1%)	
	상업시설 면적	-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	
	공원 면적	1,501㎡ (0.6%)	
	녹지 면적	34,007㎡ (12.9%)	

○ 오척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1-07 ~ 2013-11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774번지 일원	
지정면적	149,256㎡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13-12-12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99,795㎡ (66.9%)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5,365㎡ (3.6%)
	공공시설용지	44,096㎡ (29.5%)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2,731㎡ (1.8%)
	상업시설 면적	-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2,634㎡ (1.8%)
	공원 면적	1,744㎡ (1.2%)
	녹지 면적	16,545㎡ (11.1%)

○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1-01 ~ 2018-04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	
지정면적	1,644,011㎡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18-04-06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1,067,683㎡ (64.9%)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83,715㎡ (5.1%)
	공공시설용지	492,613㎡ (30.0%)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10,718㎡ (0.7%)
	상업시설 면적	21,538㎡ (1.3%)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14,397㎡ (0.9%)
	공원 면적	31,249㎡ (1.9%)
	녹지 면적	67,99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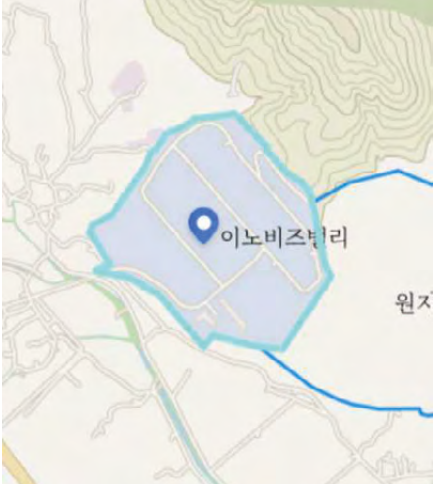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3-01 ~ 2021-04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789-4번지 일원	
지정면적	448,897㎡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준공인가일	2021-04-23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276,312㎡ (61.6%)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39,051㎡ (8.7%)
	공공시설용지	133,534㎡ (29.7%)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5,325㎡ (1.2%)
	상업시설 면적	-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33,726㎡ (7.5%)
	공원 면적	7,294㎡ (1.6%)
	녹지 면적	35,362㎡ (7.9%)


○ 김해가산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0-12 ~ 2022-07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88번지 일원	
지정면적	97,499㎡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22-07-18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73,437㎡ (75.3%)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1,187㎡ (1.2%)
	공공시설용지	22,875㎡ (23.5%)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1,187㎡ (1.2%)
	상업시설 면적	-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
	공원 면적	1,635㎡ (1.7%)
	녹지 면적	6,170㎡ (6.3%)


○ 이노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3-08 ~ 2020-01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993번지 일원	
	지정면적	212,757㎡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20-01-02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135,102㎡ (63.5%)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4,028㎡ (1.9%)
		공공시설용지	73,627㎡ (34.6%)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3012㎡ (1.4%)
		상업시설 면적	-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1,016㎡ (0.5%)	
공원 면적		3,038㎡ (1.4%)	
녹지 면적		29,886㎡ (14.0%)	

○ 신천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2-12 ~ 2024-06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90번지 일원	
	지정면적	245,306㎡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24-04-05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167,626㎡ (68.3%)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4,513㎡ (1.8%)
		공공시설용지	73,167㎡ (29.8%)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2,800㎡ (1.1%)
		상업시설 면적	-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1,713㎡ (0.7%)	
공원 면적		4,592㎡ (1.9%)	
녹지 면적		34,162㎡ (13.9%)	


○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5-12 ~ 2022-08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191-13번지 일원
		지정면적	162,492㎡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22-08-10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106,837㎡ (65.7%)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5,868㎡ (3.6%)
		공공시설용지	49,787㎡ (30.6%)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3,486㎡ (2.1%)
		상업시설 면적	-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2,382㎡ (1.5%)
		공원 면적	2,977㎡ (1.8%)
		녹지 면적	18,007㎡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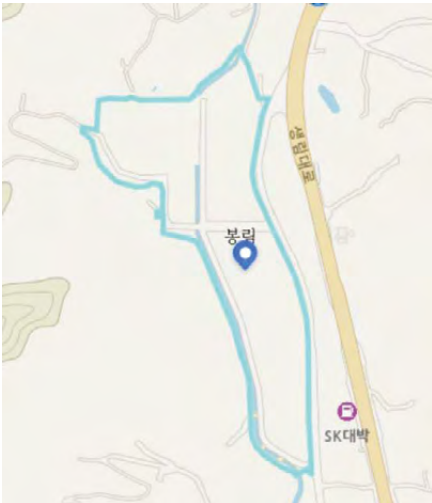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6-12 ~ 2024-05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1281-20번지 일원
		지정면적	2,806,746㎡
		관리기관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준공인가일	2024-05-30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1,106,989㎡ (39.4%)
		복합시설용지	179,352㎡ (6.4%)
		주거시설용지	106,055㎡ (3.8%)
		지원시설용지	178,831㎡ (6.4%)
		공공시설용지	1,235,519㎡ (44.0%)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45,452㎡ (1.6%)
		상업시설 면적	25,273㎡ (0.9%)
		산업/업무기타 지원시설 면적	42,434㎡ (1.5%)
		공원 면적	284,897㎡ (10.2%)
		녹지 면적	255,00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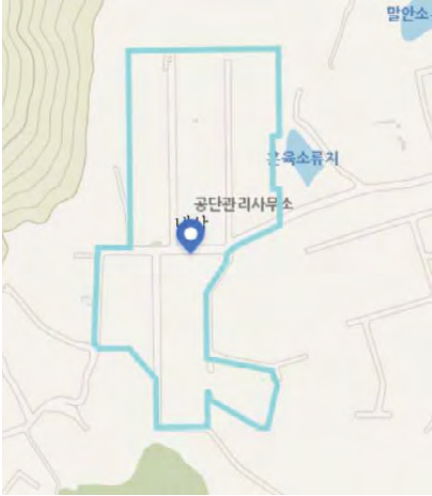
○ 나전농공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1994-06 ~ 1995-06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249번길 13-67 일원	
	지정면적	144,133㎡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1995-06-30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94,213㎡ (65.4%)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3,169㎡ (2.2%)
공공시설용지		46,751㎡ (32.4%)	
주요 시설	기타용지	-	
	근린공공시설	3,169㎡ (2.2%) (휴게실, 식당, 관리사무실)	
	공원 면적	-	
	녹지 면적	3,45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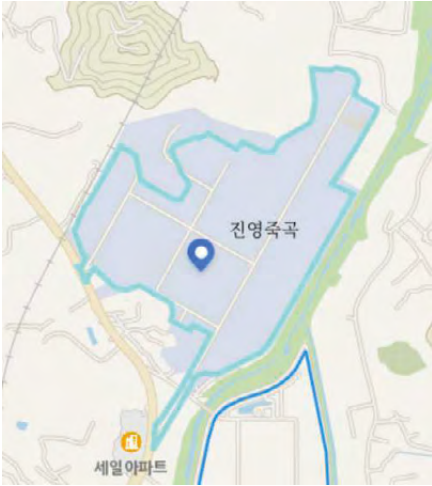
○ 봉림농공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1995-12 ~ 1997-08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일원	
	지정면적	93,401㎡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1997-08-30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66,441㎡ (71.1%)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1,683㎡ (1.8%)
공공시설용지		25,277㎡ (27.1%)	
주요 시설	기타용지	-	
	근린공공시설	1,683㎡ (1.8%) (휴게실, 식당, 관리사무실)	
	공원 면적	-	
	녹지 면적	4,19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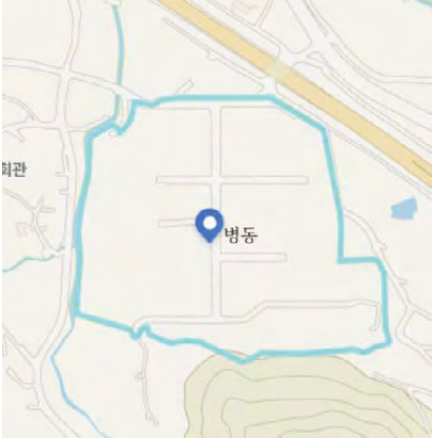
○ 내삼농공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1996-11 ~ 1998-09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서부로 1499번길 102-6 일원	
	지정면적	112,994㎡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1998-09-28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90,712㎡ (80.3%)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2,539㎡ (2.2%)
		공공시설용지	19,743㎡ (17.5%)
		기타용지	-
	주요 시설	근린공공시설	2,539㎡ (2.2%) (휴게실, 식당, 관리사무실)
		공원 면적	3,328㎡ (2.9%)
녹지 면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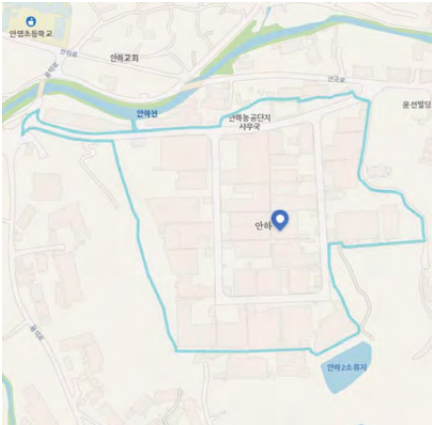
○ 진영죽곡농공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1989-04 ~ 1997-08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일원	
	지정면적	405,147㎡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1997-08-30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346,038㎡ (85.4%)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7,145㎡ (1.8%)
		공공시설용지	51,964㎡ (12.8%)
		기타용지	-
	주요 시설	근린공공시설	7,145㎡ (1.8%) (휴게실, 식당, 관리사무실)
		공원 면적	-
녹지 면적		46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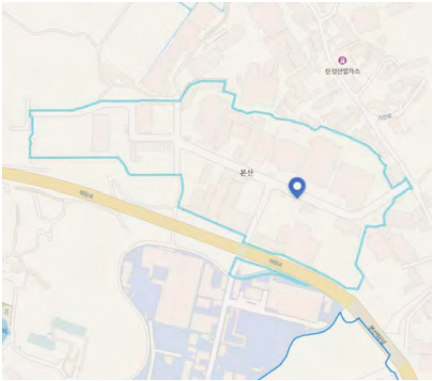
○ 병동농공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1-12 ~ 2003-09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562번지 일원	
	지정면적	148,518㎡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03-11-10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95,733㎡ (64.5%)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417㎡ (0.3%)
공공시설용지		52,368㎡ (35.3%)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	
	근린공공시설	417㎡ (0.3%) (공단관리사무소)	
	공원 면적	-	
	녹지 면적	33,434㎡ (22.5%)	


○ 안하농공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4-12 ~ 2007-04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01-1번지 일원	
	지정면적	127,349㎡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07-04-26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98,979㎡ (77.7%)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28,370㎡ (22.3%)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1,268㎡ (1.0%)	
	근린공공시설	1,458㎡ (1.1%)	
	공원 면적	-	
	녹지 면적	9,199㎡ (26.3%)	

○ 본산농공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5-10 ~ 2011-06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693번지 일원	
	지정면적	131,306㎡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11-06-30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103,992㎡ (79.2%)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27,314㎡ (20.8%)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1,081㎡ (1.0%)
		근린공공시설	-
공원 면적		-	
	녹지 면적	8,934㎡ (6.8%)	

○ 하계농공단지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6-12 ~ 2012-04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240번길 일원	
	지정면적	136,687㎡	
	관리기관	경남 김해시	
	준공인가일	2012-04-26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98,686㎡ (72.2%)
		복합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38,001㎡ (27.8%)
		기타용지	-
	주요 시설	주차장 면적	1,045㎡ (0.8%)
		근린공공시설	838㎡ (0.6%)
공원 면적		1,574㎡ (1.2%)	
	녹지 면적	13,987㎡ (10.2%)	

▣ 부록 3: 통계분석 및 검정 방법

○ 기초통계량

- 인식 변수의 평균(\bar{Y})과 집단별 표준편차(s), 중복응답 문항의 항목별 선택률(p_k)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bar{Y} = \frac{1}{n} \sum_{i=1}^n Y_i$$

$$s = \sqrt{\frac{\sum_{i=1}^n (Y_i - \bar{Y})^2}{n-1}}$$

$$p_k = \frac{m_k}{n} \times 100$$

(단, Y_i 는 응답자 i 의 응답값, n 은 전체 응답자 수, p_k 는 항목 k 의 선택률, m_k 는 항목 k 를 선택한 응답자 수)

○ t -검정

- 성별과 산업단지 유형처럼 두 집단 비교가 가능한 변수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적용함. 이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우연한 차이인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검정하는 방법임
- t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t = \frac{\bar{X}_1 - \bar{X}_2}{\sqrt{\frac{s_1^2}{n_1} + \frac{s_2^2}{n_2}}}$$

(단, \bar{X}_1 , \bar{X}_2 는 각 집단의 평균, s_1^2 , s_2^2 는 각 집단의 분산, n_1 , n_2 는 각 집단의 표본 수)

- t -검정의 귀무가설(H_0)은 두 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없으며, 대립가설(H_1)은 두 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차이를 검정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됨

H_0 : 남성과 여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평균은 동일함

H_1 : 남성과 여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평균은 동일하지 않음

- 검정통계량의 유의확률(p)에 따라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유의수준 5% 미만($p < 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그리고 유의수준 1% 미만($p < 0.01$)은 강한 유의성, 유의수준 10% 미만($p < 0.10$)은 약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일원분산분석(ANOVA)

- 연령대와 근무 기간처럼 세 집단 이상에서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적용함
- 일원분산분석 통계량

$$F = \frac{MS_B}{MS_W}$$

(단, $MS_B = \frac{SS_B}{k-1}$, $MS_W = \frac{SS_W}{N-K}$, SS_B 는 집단 간 제곱합, SS_W 는 집단 내 제곱합, k 는 집단 수, N 은 전체 표본 수)

- 일원분산분석의 귀무가설(H_0)은 모든 집단의 평균은 동일함이며, 대립가설(H_1)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집단은 다른 집단의 평균과 차이가 있음임
- 예를 들어, 연령대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차이를 검정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음
 - H_0 : 세 집단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평균은 모두 동일함
 - H_1 : 세 집단 중 적어도 하나의 평균은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음
- 분산분석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된 경우, 이는 전체 집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나, 어느 집단 간 차이인지까지는 바로 알 수 없음
- 따라서 분산분석 결과가 유의한 경우, 별도의 사후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사이의 차이인지 확인함

○ 카이제곱(χ^2)-검정

- 사업장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 항목처럼 항목별 선택 비율의 집단 간 차이는 χ^2 -검정을 적용함
- χ^2 -검정통계량

$$\chi^2 = \sum \frac{(O_{ij} - E_{ij})^2}{E_{ij}}$$

(단, O_{ij} 는 실제 관측빈도, E_{ij} 는 귀무가설 하의 기대빈도)

- χ^2 -검정의 귀무가설(H_0)은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며, 집단별 항목 선택 비율에 차이가 없으며, 대립가설(H_1)은 두 변수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집단별 항목 선택 비율에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산업단지 환경개선 선호 항목 중 ‘보행환경’ 선택 여부에 대한 검정 가설은 다음과 같음
 - H_0 : 성별과 보행환경 선택 여부는 독립적이며, 남성과 여성의 보행환경 선택 비율은 차이가 없음
 - H_1 : 성별과 보행환경 선택 여부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의 보행환경 선택 비율은 차이가 있음
- 귀무가설이 기각된 경우, 검정 결과와 함께 집단별 선택 비율의 상대적 크기를 함께 해석함. 예를 들어, 여성 집단에서 보행환경 항목 선택률이 높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도 유의하다면, 여성은 보행환경 개선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음

○ Kruskal-Wallis 검정

- Kruskal-Wallis 검정은 평균 자체보다 순위의 차이를 비교하는 비모수 검정으로, Mann-Whitney U 검정과 유사하게 표본 수가 적고 정규성 가정을 엄격히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함
-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노후도, 지정 면적, 근로자 수, 소기업 비중, 산업 시설용지 비중, 버스노선 수와 같은 3개 그룹 변수의 차이를 검정하는 데 활용함
- Kruskal-Wallis 검정통계량

$$H = \frac{12}{N(N+1)} \sum_{j=1}^g \frac{R_j^2}{n_j} - 3(N+1)$$

(단, N 은 전체 산업단지 수, g 는 특성 그룹 수, R_j 는 그룹 j 에 속한 사례들의 순위 합, n_j 는 그룹 j 의 사례 수)

- Kruskal-Wallis 검정의 귀무가설(H_0)은 각 그룹의 분포는 동일하며, 그룹

간 차이가 없으며, 대립가설(H_1)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그룹은 다른 그룹과 분포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버스노선 수 수준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도 차이를 검정하는 경우, 가설은 다음과 같음

H_0 : 버스노선 특성 세 그룹의 환경개선 필요도 분포는 동일함

H_1 : 세 그룹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른 그룹과 필요도 분포가 다름

▣ 부록 4: 주요 지자체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추진 사례

구분	자치단체	사업명	주요 내용	김해시 적용 가능성
작업환경 개선 패키지	서울특별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영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력 향상 설비 지원과 함께 안전관리·정리정돈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단순 시설 보조가 아니라 설비 개선과 컨설팅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사업으로 설계하는 데 참고
노동·작업 환경 개선	수원특례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노동환경과 작업환경 개보수를 지원함	김해시의 기능형 공공인프라 개선과 소규모 기업 개보수 지원을 도비·시비·자부담 매칭형으로 구체화하는 데 참고
정주여건 개선	청주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기숙사 확충, 공용시설 및 작업공간 개보수 등 근로자의 근무·생활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농공단지 생활기반 집중 패키지를 작업장 내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거·공용편의·생활기반까지 확장하는데 참고
공동복지 거점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서비스 확대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하남산단에서 인근 산단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	김해시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공동복지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향후 인근 산업단지까지 확대 운영하는 모델로 참고
현장지원 원스톱 서비스	용인특례시	기업SOS 지원단 운영 및 찾아가는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기업애로 접수, 현장 조사, 원스톱 처리회의,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을 병행함	김해시 기업애로119 센터 고도화 및 김해형 산단 현장지원체계 구축 시 유관기관과 연계한 거버넌스 운영 모형으로 참고

자료) 각 지자체 공식 보도자료 및 공식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부록 5: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인식조사지

GHRI 김해연구원
Gyeonghae Research Institute

ID				
----	--	--	--	--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근로환경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재)김해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및 사업단지 내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추후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넓은 의미의 '근로환경'은 근로조건이나 조직문화, 법·제도적 환경 등을 포괄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좁은 의미의 '근로환경'으로 한정하며 물리적 근로환경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 설문은 약 3-5분 정도 소요되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통계적 분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0월

※ 설문조사 주관기관: (재)김해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Part 1. 기본 정보

1.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세요.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3.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4.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를 선택해 주세요.

- ① AM하이테크일반산업단지 ②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③ 가산일반산업단지
④ 대동일반산업단지 ⑤ 덕암일반산업단지 ⑥ 명동일반산업단지
⑦ 신천일반산업단지 ⑧ 오척일반산업단지 ⑨ 이노비즈밸리일반산업단지
⑩ 진영주호일반산업단지 ⑪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⑫ 서김해일반산업단지
⑬ 나전농공단지 ⑭ 내삼농공단지 ⑮ 병동농공단지
⑯ 본산농공단지 ⑰ 봉림농공단지 ⑱ 안하농공단지
⑲ 진영농공단지 ⑳ 하계농공단지

(뒷면 계속)

Part 2. 소속 사업장 내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및 수요

5.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6. 아래 항목 중 근로자의 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소속하신 사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실, 기숙사 등 복지환경
 ② 작업장 내부 조명시설, 공기조화설비, 냉난방 시설 등 작업환경
 ③ 작업장 외부 균열, 누수, 도색 등 외관환경
 ④ 조경, 화단, 울타리 등 녹지환경
 ⑤ 흡연구역,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외부환경
 ⑥ 기타 (직접 기입) _____

7. 소속하고 계신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면, 직장 내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소속하고 계신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면, 회사의 청년 근로자 채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Part 3. 산업단지 환경조성(개선)에 대한 인식 및 수요

9.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0. 아래 항목 중 향후 산업단지 내 환경조성(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 | |
|--------------------------|-----------------------|
| ① 도로정비, 주차장 등 도로 및 주차 환경 | ② 인도, 가로등 등 보행 환경 |
| ③ 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 | ④ 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 |
| ⑤ 대중교통, 셔틀버스 등 접근성 | ⑥ 화단, 공원 등 녹지 공간 |
| ⑦ 옥외 벤치, 그늘막 등 휴식 공간 | ⑧ 표지판 등 안내시설 |
| ⑨ 상징물, 도색 등 경관 디자인 | ⑩ 기타 (직접 기입) _____ |

11. 산업단지의 환경조성(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산업단지의 환경조성(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회사의 청년 근로자 채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계속)

Part 4. 기타 의견

사업장 근로환경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
세요. (예, 특정 시설 보강, 사업 우선순위 등)
(직접 기입) _____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김해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연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 쇄 2026년 4월 30일

발 행 2026년 4월 30일

발 행 인 김 재 원

발 행 처 김 해 연 구 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055)344-7700

Homepage : www.ghri.re.kr

ISBN : 979-11-997022-6-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